

(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

2021. 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3년마다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해의 6월부터 10월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조사는 COVID-19의 영향으로 2차례의 조사중단과 가구 방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약 7개월간, 조사중단 기간 3개월 포함)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유럽과 비교가 가능한 조사이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유럽 근로환경조사는 2020년 제7차 조사가 COVID-19로 중단되고, 2021년에 유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과의 비교는 2015년 실시한 제6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조사 시점이 크게 다르므로 참고자료 일 뿐 한국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에 유의가 필요하다.
3. 성별, 연령, 직종, 업종, 종사상 지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한 수치이다.
4. 근로환경조사의 조사 문항 수는 130여 개가 넘어 문항별 분석 대신 “일의 질(Job quality)” 을 구성하는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1) 노동환경의 유해·위험요인, (2) 사회적 환경, (3) 노동강도, (4) 기술과 재량권 (5) 노동시간, (6) 일의 전망, (7) 건강상태 및 근로 환경 만족도
5.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본 자료는 요약자료이며, 세부 내용과 상세한 자료 산출 방법은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 <http://oshr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목 차

I. 근로환경조사 소개	1
1. 근로환경조사 개요	1
2.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3
II. 조사 결과	4
1. 응답자 특성	4
2. 결과 분석	6
(1) 노동환경의 유해·위험요인	6
(2) 노동 강도	16
(3) 노동 시간	24
(4) 사회적 환경	37
(5) 기술과 재량권	53
(6) 직업 전망	67
(7)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77
(8) 기타 :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86
[부록] 근로환경조사 질문 문항 및 자료 산출 방법	91

I. 근로환경조사 소개

1. 근로환경조사 개요

-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
 -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위험요인의 노출수준, 근로시간, 노동강도, 업무 자율성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접근 필요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000명(가구당 1명)
 -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 조사(테블릿 PC 이용)
 - * 2020년(제6차) 조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조사 방식을 확대하여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와 인터넷 조사 병행
- (조사내용) 종사상 지위 등 취업자 특성,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폭력/차별, 건강상태, 위험요인 노출정도 등 130여개 항목
 - * 유럽 근로환경조사(EU산하 유로파운드에서 1990년부터 실시)와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유럽 35개국과 노동환경 비교 가능

〈표 1-1〉 근로환경조사의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1)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 만 15세 이상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취업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 - 조사(원활한 의사소통)가 가능할 경우 외국인도 조사대상에 포함
2)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제주 포함 전국의 17개 시도)
3)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u>조사구</u> 정보를 이용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 (코로나 등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u>자기기입식조사/웹조사</u> 병행)
4) 조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5)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의 근로 환경 (근로환경 관련 물리적 위험 요소,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위험 요소 등)
6)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역·지역크기·주택유형</u>을 고려한 <u>층화</u> 추출
7)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 ±0.45%p(설계효과 1.41 적용 시 ±0.53%p)

○ (조사연혁) 2006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3차(2011년) 조사부터 표본을 5만 가구로 확대하고 매 3년마다 조사

〈표 2〉 근로환경조사의 연혁

	1차(2006)	2차(2010)	3차(2011)	4차(2014)	5차(2017)	6차(2020)
조사대상	만 15~64세 취업자	만 15세 이상 취업자	만 15세 이상 취업자	만 15세 이상 취업자	만 15세 이상 취업자	만 15세 이상 취업자
표본 수	10,000가구 (가구당 1명)	10,000가구 (가구당 1명)	50,000가구 (가구당 1명)	50,000가구 (가구당 1명)	50,000가구 (가구당 1명)	50,000가구 (가구당 1명)
조사항목	EWCS	EWCS+LFS	EWCS+LFS	EWCS+LFS	EWCS	EWCS
조사기간	6~9월	6~10월	6~11월	6~9월	7~10월	2020. 10월~2021. 4월
조사주기	4년	4년	1년	3년	3년	3년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승인통계 (제38002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영국의 노동력 조사(LFS) 설문 문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 수 확대 재해규모 및 정밀한 모집단 추정을 위해 주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주기로 변경 TAPI 조사 방식 최초 도입 및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PI 조사 시스템 전면 도입 LFS(직업력) 문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vid-19 상황속 실시 비 대면조사 확대 EWCS 동일 연도 조사

- (조사활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국제협력, 학술연구 등에 활용
- (정책기초자료) 정부, 공단사업을 위한 자료 제공
 - 감정노동자 법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자 모수 추정 및 종사 분야 분석, 감정노동자 매뉴얼 제작(노동부, 2015, 2017, 2020)
 - 장시간 노동의 업종·직종분포 등 분석자료(감사원, 2018)
 - COVID-19 확산에 따른 지자체별 대면 업무 종사자 수 제공(2021)
 - (연구인프라 확대) 연구인프라 확대 및 학술연구 촉진
 - 원시자료 이용 희망자에게 원시자료 및 매뉴얼 제공(국문, 영문)
 - * 185건(2014년), 114건(2016년), 122건(2017년), 212건(2019년), 1,169건(2020년)
 - 논문경진대회 개최(2014년부터 매년)
 - 유관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문 강좌 개설, 심포지엄 및 포럼 운영
 - (국제협력) 국제 근로환경 발전을 위한 국제기관 간 협력 증진
 - ILO 및 EU산하기관(유로파운드)과 공동으로 「국제 근로환경비교 보고서(Global Report)」 발간(2019년)
 -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ICOH)에서 유로파운드와 공동 세션 운영(2015년)
 - (연구과제수행)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2.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 (조사진행) 2020년 3월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차례의 조사중단 등 조사가 지연되어 2021년 6월 계약 종료

- 용역기관 :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 계약기간 : 2020.3.17.~2021.6.14.

* 조사중단 : 2020.8.19.~2020.10.4.(1.5개월), 2020.12.13.~2021.1.26.(1.5개월)

* 현장조사 기간 : 2020.10.5.~2021.4.4.(약 6개월)

* 조사원 교육 : 코로나로 인해 지역별 28개 그룹(20명 이내)으로 9일간 실시

- 투입 조사원 수 : 389명

- 최소 조사시간 : 자영업자(15분 이상), 임금근로자(20분 이상)

○ (품질관리) 조사업체 자체적인 검사와 별도의 품질관리업체를 통해 2단계 품질 관리 진행

- 조사업체

구 분	내 용
1. 1차 확인	조사대상자 적격여부, 무응답 문항 비율, 방문일지 확인
2. 2차 확인	문항 간 로직 확인, 주관식 문항의 응답범위, 무응답 보완
3. 전화검증(40%)	성별, 나이, 거주지역, 종사상 지위 등 유선 확인
4. 직업/산업 분류	전문 코더에 의한 직업과 산업 분류
5. 데이터 클리닝	노동시간, 소득 등 주요항목 재 검정, 빈도 분석을 통한 이상치 확인

- 품질관리업체(한국조사연구학회)

구 분	내 용
1. 파라미터 검증	(1) 조사시간 20분 미만
	(2)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조사된 경우
	(3) 조사된 두 가구 간 응답시간 간격 5분 미만
	(4) 면접원당 1일 10부 초과하여 조사한 경우
	(5) 방문원칙(가구당 4회: 오전, 오후, 주말, 평일 각 1회)
	(6) 조사가구 주소와 GPS 위치 불일치
	(7) 완료 표본 특성(업종, 연령, 성별 등 분석)
	(8) 협조율 10% 미만 및 70% 이상 조사원
	(9) 문항 간 일관성 검토
2. 종이 설문지 검증	(1) 응답 누락 등 응답 성실성과 정확성 확인
	(2) 종이설문지 응답값과 전산 입력값 대조
3. 가구방문 조사	위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

II.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 전국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538명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직종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표 1-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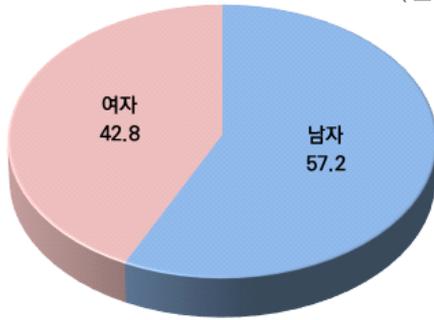
구 분		인원수	비율		인원	비율		
계		50,538	100.0%					
성별	남성	28,898	57.2%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2,587	5.1%	
	여성	21,640	42.8%		광업	7	0.0%	
연령	15-19세	314	0.6%		제조업	8,256	16.3%	
	20-29세	6,776	13.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72	0.5%	
	30-39세	9,843	19.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0	0.3%	
	40-49세	11,817	23.4%		건설업	3,846	7.6%	
	50-59세	11,882	23.5%		도매 및 소매업	6,331	12.5%	
	60세 이상	9,906	19.6%		운수 및 창고업	2,897	5.7%	
종사상 지위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7,827	15.5%		숙박 및 음식점업	3,959	7.8%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2,444	4.8%		정보통신업	1,649	3.3%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38,518		76.2%	금융 및 보험업	1,494	3.0%
						부동산업	985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33	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업	2,520	5.0%
	일용근로자	6,119	15.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34	4.2%	
일용근로자	2,293	6.0%	교육 서비스업		3,390	6.7%		
무급가족종사자	1,749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75	9.1%		
직종	관리자	388	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94	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600	2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34	4.2%	
	사무 종사자	8,903	17.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	192	0.4%	
	서비스 종사자	5,608	11.1%	국제 및 외국기관	13	0.0%		
	판매 종사자	5,228	10.3%	규모	1~49명	40,036	7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95	4.9%		50~299명	5,979	1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411	8.7%		300명 이상	3,087	6.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554	11.0%					
	단순노무 종사자	7,349	14.5%					

*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3월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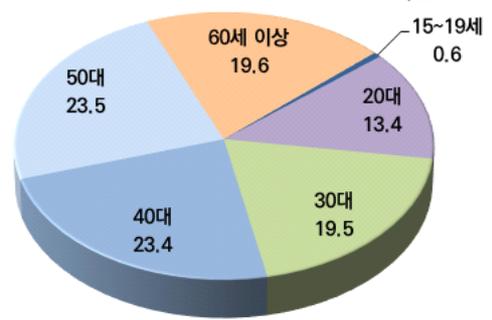
성 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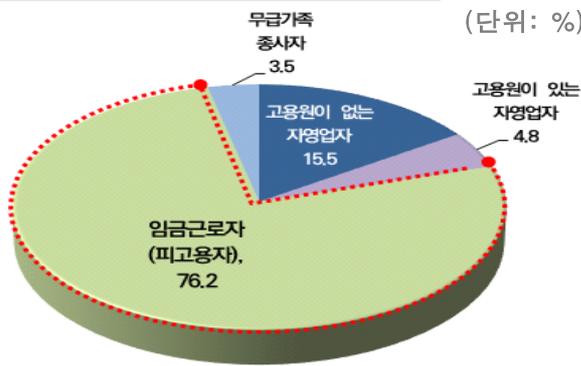
연 령 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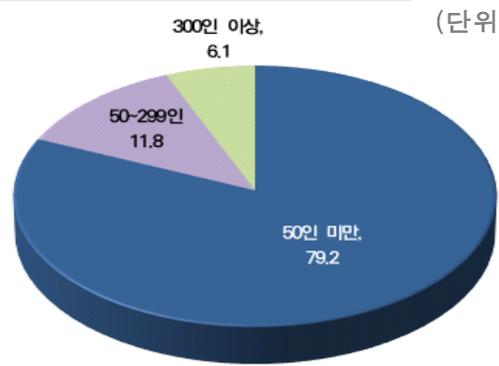
종사상 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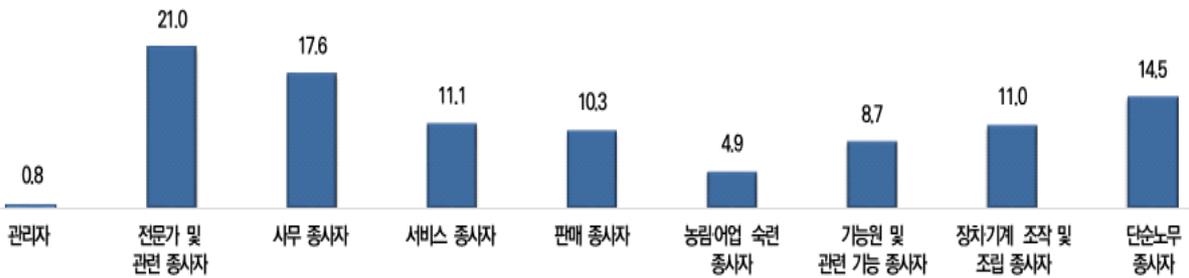
사업장 규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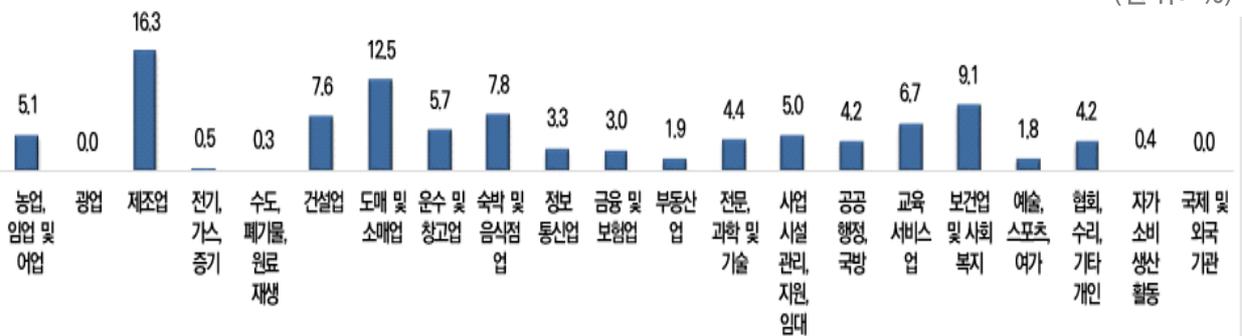
직 종 별

(단위: %)



산 업 별

(단위: %)



2. 결과 분석

(1) 노동환경의 유해·위험 요인

- ◆ 유해·위험요인(13개)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는 5차(2017년) 조사 대비 모든 요인에서 감소하여 위험요인 종합 평가에서 5점(6.2%) 상승

- 5차 조사(2017년) 대비 근무 시간의 1/4 이상을 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이 13개 모든 유해·요인에서 감소, 전체 항목을 종합한 점수에서 5점(6.2%) 상승
- 많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6차(2015년) 유럽 근로환경조사 결과보다 1.4점 높게 나타남

〈표 1-2〉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과 종합 점수(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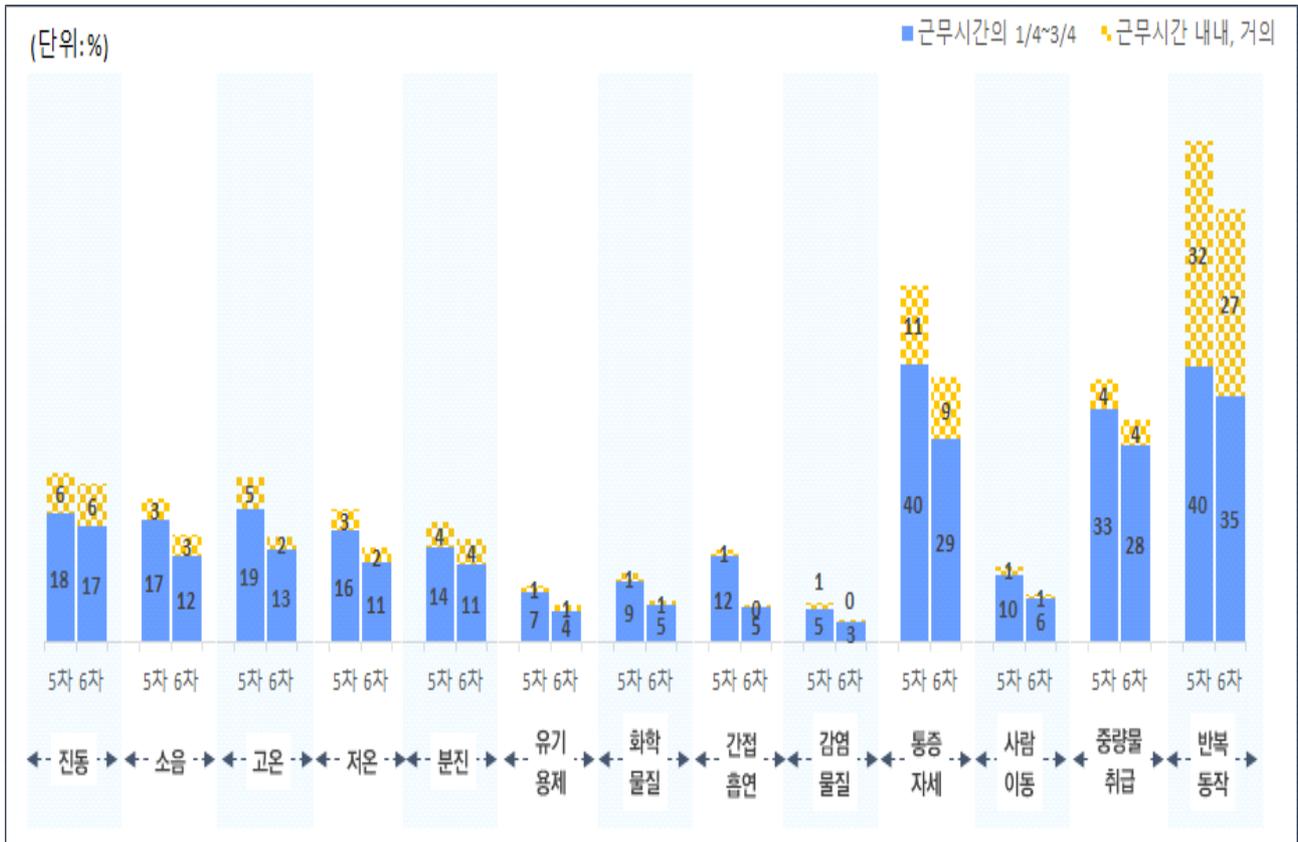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환경 위험	1.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24	23	23	22	20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21	20	15	16	28
	3.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24	21	15	14	23
	4.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19	18	13	13	21
생물 · 화학 적 위험	5. 연기, 흙(옹접 흙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17	17	15	15	15
	6.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8	8	5	5	11
인간 공학 적 위험	7.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10	9	6	6	17
	8.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13	13	5	5	9
	9.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함	6	6	3	3	13
인간 공학 적 위험	10.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51	48	38	35	43
	11.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김	11	11	7	7	10
	12.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	38	33	32	28	32
	13.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72	71	62	60	61
위험요인 종합 점수(100)		80.4	80.9	85.4	85.6	84

주1) 근무 시간의 1/4 이상을 해당 요인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주2) 종합 점수는 노출 정도를 0~100으로 환산한 값으로, 노출이 많을수록 값이 낮음

※ 상세한 자료 산출 방법은 [붙임] 참조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비율(%) 변화



1) 성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지만,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 취약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부분의 요인에서 위험에 많이 노출

- 근골격계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일이나 반복 동작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

〈표 1-3〉 성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비율(%)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 용제	화학 물질	간접 흡연	감염 물질	통증 자세	사람 이동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남성	31	21	19	18	21	7	7	7	4	39	6	37	61
여성	12	8	10	8	7	2	4	2	2	36	9	25	63

남성	31	21	19	18	21	7	7	7	4	39	6	37	61
여성	12	8	10	8	7	2	4	2	2	36	9	25	63

〈그림〉 한국과 유럽의 성별 인간 공학적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구 분		KWCS(2020)		EWCS(2015)	
통증 자세	남성	30	9	32	12
	여성	28	8	30	13
사람 이동	남성	5	1	4	2
	여성	8	1	9	6
중량물 취급	남성	32	5	29	11
	여성	23	2	18	5
반복 동작	남성	35	26	31	30
	여성	36	27	28	33

■ 근무시간의 1/4~3/4 ■ 근무시간 내내, 거의

2) 연령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50대” “60세 이상”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많은 연령층

○ 연령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가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노출이 많은 집단

- 50대는 7개(진동, 소음,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사람을 들거나 이동) 요인에 가장 노출이 많은 집단

- 60대는 8개(고온, 저온,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통증을 주는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요인에 가장 노출이 많은 집단

○ 한편, “15세 이상부터 20대”는 “분진”에 의한 노출이 가장 많고, “중량물 취급”과 “반복 동작을 하는 작업”에서 많이 노출됨

〈표 1-4〉 연령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비율(%)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통증자세	사람이동	중량물취급	반복동작
15-19세	15	12	8	9	20	4	0	3	0	31	4	32	66
20-29세	17	11	10	8	9	4	4	3	3	32	7	27	63
30-39세	20	15	10	9	12	4	6	5	3	32	6	25	57
40-49세	23	16	13	12	15	6	6	6	3	34	7	29	58
50-59세	28	19	17	14	18	7	7	6	3	41	8	37	64
60세 이상	23	14	24	22	17	5	7	6	3	50	7	40	67



3) 종사상 지위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 자영업자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수준은 임금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
- ◆ 일용근로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순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수준은 소음, 분진, 사람을 들거나 옮김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보다 높음
 - 특히,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모든 요인의 노출수준이 상용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남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가장 많은 집단은 일용근로자로 상용근로자의 거의 2배 수준
 - 진동, 소음과 생물·화학적 위험요인을 제외하면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순으로 노출이 많음

〈표 1-5〉 종사상 지위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통증자세	사람이동	중량물취급	반복동작
자영업자	25	13	20	16	14	5	7	5	3	47	5	44	67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23	12	20	17	13	5	7	5	2	47	5	43	67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31	18	20	16	17	8	8	6	4	46	7	47	68
임금근로자	22	16	14	13	15	5	6	5	3	35	7	28	60
상용근로자	22	16	12	10	13	5	6	5	3	32	7	25	59
임시근로자	13	11	15	16	12	3	3	5	2	39	9	28	62
일용근로자	49	37	36	35	44	13	12	16	6	66	7	62	74
무급가족종사자	23	14	21	16	15	7	8	5	3	46	5	46	65

4)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3개 유해·위험요인 중 8개 요인에서 가장 노출 수준이 높게 나타남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통증을 주는 자세 등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노출이 가장 많은 직종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3개의 유해·위험요인 중 진동(66%), 소음(45%), 분진(45%) 등 8개 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도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원 역시 진동(56%), 소음(37%), 분진(32%) 등 전반적으로 노출 수준이 높았음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고온(42%), 저온(32%), 통증을 주는 자세(68%), 중량물 취급(67%), 반복동작(81%)로 5개 요인에 대해 가장 노출이 많은 직종으로 특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가장 취약
- 서비스 종사자는 사람을 들거나 이동(14%)에서 가장 노출이 많음

〈표 1-6〉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비율(%)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통증자세	사람이동	중량물취급	반복동작
관리자	30	18	15	9	19	5	14	6	7	19	5	10	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	8	5	5	6	2	3	3	3	24	10	11	51
사무 종사자	10	7	4	4	4	2	2	2	1	18	2	11	50
서비스 종사자	15	10	13	7	9	3	5	3	2	44	14	33	67
판매 종사자	7	6	6	6	4	2	2	3	1	29	4	38	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	14	42	32	18	4	10	3	3	68	7	67	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6	42	33	32	45	19	17	15	7	63	8	61	7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6	37	22	20	32	13	13	8	6	48	6	44	77
단순노무 종사자	20	16	27	26	20	5	5	8	3	51	6	46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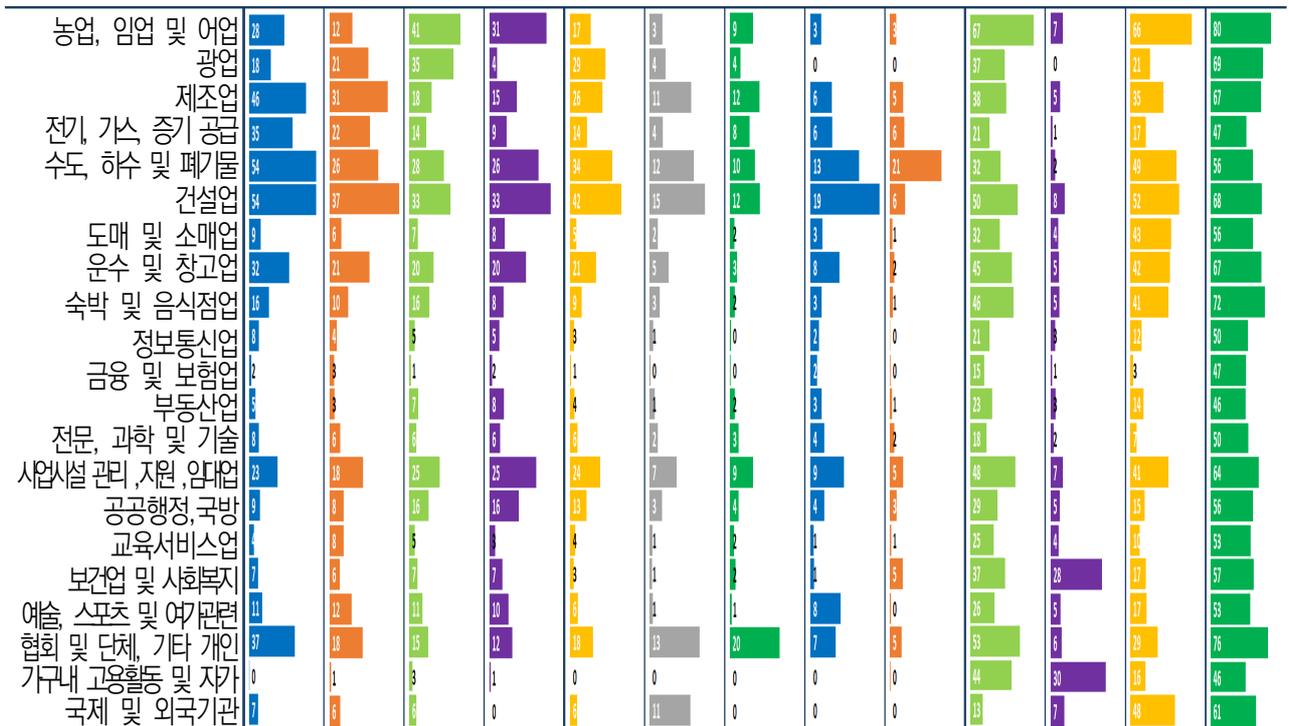
5)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 건설업이 유해·위험요인에 가장 노출되는 사람이 많은 업종
 - 13개 유해·위험요인 중 진동, 소음, 저온 등 6개 요인에서 노출이 가장 많고, 그 외 유해·위험요인에서도 노출이 많은 편
- ◆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반복동작 등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노출이 가장 많은 업종

- 건설업이 가장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되는 사람이 많은 업종
 - 13개의 유해·위험요인 중 진동(54%), 소음(37%), 저온(33%), 분진(42%), 유기용제(15%), 간접흡연(19%)의 6개 요인에서 가장 높음
 - 그 외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노출이 많은 업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역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많은 업종으로 진동(54%), 감염물질(21%)에 노출이 가장 많이 발생
- 농업, 임업 및 어업 역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이 많은 업종
 - 고온(41%), 통증을 주는 자세(67%), 중량물 취급(66%), 반복 동작(80%)에서 가장 노출이 많았으며
 - 저온(31%), 화학물질(9%), 사람을 들거나 이동(7%)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도 전반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적지 않은 업종이며
 - 운수 및 창고업은 반복동작(67%) 등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
- 제조업은 특정 유해·위험요인에 가장 많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많은 편
- 상대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적은 업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남

〈표 1-7〉 업종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비율(%)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통증자세	사람이동	중공물취급	반복동작
농업, 임업 및 어업	28	12	41	31	17	3	9	3	3	67	7	66	80
광업	18	21	35	4	29	4	4	0	0	37	0	21	69
제조업	46	31	18	15	26	11	12	6	5	38	5	35	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35	22	14	9	14	4	8	6	6	21	1	17	4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54	26	28	26	34	12	10	13	21	32	2	49	56
건설업	54	37	33	33	42	15	12	19	6	50	8	52	68
도매 및 소매업	9	6	7	8	5	2	2	3	1	32	4	43	56
운수 및 창고업	32	21	20	20	21	5	3	8	2	45	5	42	67
숙박 및 음식점업	16	10	16	8	9	3	2	3	1	46	5	41	72
정보통신업	8	4	5	5	3	1	0	2	0	21	3	12	50
금융 및 보험업	2	3	1	2	1	0	0	2	0	15	1	3	47
부동산업	5	3	7	8	4	1	2	3	1	23	3	14	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6	6	6	6	2	3	4	2	18	2	7	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3	18	25	25	24	7	9	9	5	48	7	41	6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8	16	16	13	3	4	4	3	29	5	15	56
교육 서비스업	4	8	5	3	4	1	2	1	1	25	4	10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6	7	7	3	1	2	1	5	37	28	17	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1	12	11	10	6	1	1	8	0	26	5	17	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37	18	15	12	18	13	20	7	5	53	6	29	7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0	1	3	1	0	0	0	0	0	44	30	16	46
국제 및 외국기관	7	6	6	0	6	11	0	0	0	13	7	48	61



〈표 1-8〉 유해·위험요인 그룹별 노출 수준 변화(0~100)

구 분	전체(13개 요인)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79	85	80	86	88	93	66	73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80	83	81	84	87	92	70	72
임금근로자	81	86	82	87	88	93	70	76
상용근로자	81	86	83	87	88	93	71	77
임시근로자	81	86	84	88	89	93	69	75
일용근로자	71	75	71	74	81	85	59	63
무급가족종사자	79	85	79	87	89	92	66	74

구 분	전체(13개 요인)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관리자	85	88	84	87	90	91	78	8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5	90	87	93	91	95	75	81
사무 종사자	86	91	88	93	91	96	77	83
서비스 종사자	81	86	85	90	90	94	67	73
판매 종사자	84	90	87	93	91	95	73	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4	81	73	81	87	93	59	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0	75	67	71	80	84	61	6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2	77	71	75	82	86	61	68
단순노무 종사자	76	82	78	83	85	91	63	70
군인	80	-	80	-	87	-	71	-

구 분	전체(13개 요인)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건설업	71	77	68	74	80	85	64	70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2	79	69	77	77	84	69	74
농업, 임업 및 어업	75	81	74	82	87	93	59	66
광업	75	83	70	82	81	89	72	75
제조업	77	81	75	79	85	88	68	7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7	83	79	85	84	90	66	72
운수업	77	81	80	82	87	91	63	6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9	82	81	83	87	90	68	73
숙박 및 음식점업	81	86	84	89	90	95	67	7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1	87	81	86	86	92	74	83
도매 및 소매업	84	89	87	92	90	95	72	77
정보통신업	84	91	87	94	91	97	72	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88	86	89	90	94	74	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4	90	85	91	90	96	75	8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	88	89	92	91	95	70	76
국제 및 외국기관	84	90	91	93	93	96	67	80
자가소비 생산활동	85	91	91	96	93	97	68	77
부동산업	85	91	87	93	90	95	78	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	91	89	93	90	95	76	83
교육 서비스업	86	91	89	94	93	96	75	82
금융 및 보험업	88	93	90	96	93	97	79	86

〈표 1-9〉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비율(%) [요약]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통증자세	사람이동	중량물취급	반복동작
남성	11	11	9	8	11	7	7	7	11	9	7	7	11
여성	12	10	10	8	7	7	4	2	12	6	5	3	13
15-19세	15	12	8	9	20	4	0	3	0	31	4	32	66
20-29세	17	11	10	8	9	4	4	3	3	32	7	27	63
30-39세	20	15	10	9	12	4	6	5	3	32	6	25	57
40-49세	23	16	13	12	15	6	6	6	3	34	7	29	58
50-59세	28	19	17	14	18	7	7	6	3	41	8	37	64
60세 이상	23	14	24	22	17	5	7	6	3	50	7	40	67
자영업자	25	13	20	16	14	5	7	5	3	47	5	44	67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23	12	20	17	13	5	7	5	2	47	5	43	67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31	18	20	16	17	8	8	6	4	46	7	47	68
임금근로자	22	16	14	13	15	5	6	5	3	35	7	28	60
상용근로자	22	16	12	10	13	5	6	5	3	32	7	25	59
임시근로자	13	11	15	16	12	3	3	5	2	39	9	28	62
일용근로자	49	37	36	35	44	13	12	16	6	66	7	62	74
무급가족종사자	23	14	21	16	15	7	8	5	3	46	5	46	65
관리자	30	18	15	9	19	5	14	6	7	19	5	1	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	8	5	5	6	2	3	3	3	24	10	1	51
사무 종사자	10	7	4	4	4	2	2	2	1	18	2	1	50
서비스 종사자	15	10	13	7	9	3	5	3	2	44	14	33	67
판매 종사자	7	6	6	6	4	2	2	3	1	29	4	38	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	14	42	32	18	4	10	3	3	68	7	67	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6	42	33	32	45	19	17	15	7	63	8	61	7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6	37	22	20	32	13	13	8	6	48	6	44	77
단순노무 종사자	20	16	27	26	20	5	5	8	3	51	6	46	69
농업, 임업 및 어업	28	12	41	31	17	3	9	3	3	67	7	66	80
광업	18	21	35	4	29	4	4	0	0	37	0	21	69
제조업	46	31	18	15	26	11	12	6	5	38	5	35	67
전기, 가스 증기 공급	35	22	14	9	14	4	8	6	6	21	1	17	4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54	26	28	26	34	12	10	13	21	32	12	49	66
건설업	54	37	33	33	42	15	12	19	6	50	8	52	68
도매 및 소매업	49	6	7	8	5	2	2	3	1	32	4	43	56
운수 및 창고업	32	21	20	20	21	5	3	8	2	45	5	42	67
숙박 및 음식점업	16	10	16	8	9	3	2	3	1	46	5	41	72
정보통신업	38	4	5	5	9	1	0	2	0	21	3	12	50
금융 및 보험업	42	3	1	2	1	0	0	2	0	15	1	3	47
부동산업	35	3	7	8	4	1	2	3	1	23	2	14	46
전문, 과학 및 기술	38	6	6	6	6	2	3	4	2	18	2	7	50
사업시설 관리, 자원, 압업	23	18	25	25	24	7	9	9	5	48	7	41	64
공공행정, 국방	49	8	16	16	13	3	4	4	3	23	5	15	56
교육서비스업	47	8	5	6	4	1	2	1	1	25	4	11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47	6	7	7	3	1	1	1	5	37	20	17	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1	12	11	10	6	1	1	8	0	26	5	17	53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37	18	15	12	13	13	20	7	5	53	6	23	76
가내 고용활동 및 자가	0	1	3	1	0	0	0	0	0	44	30	16	46
국제 및 외국기관	47	6	6	0	6	11	0	0	0	13	7	48	61

(2) 노동 강도

* 3가지 항목으로 측정 : ①일의 양적 요구, ②작업속도 결정요인, ③감정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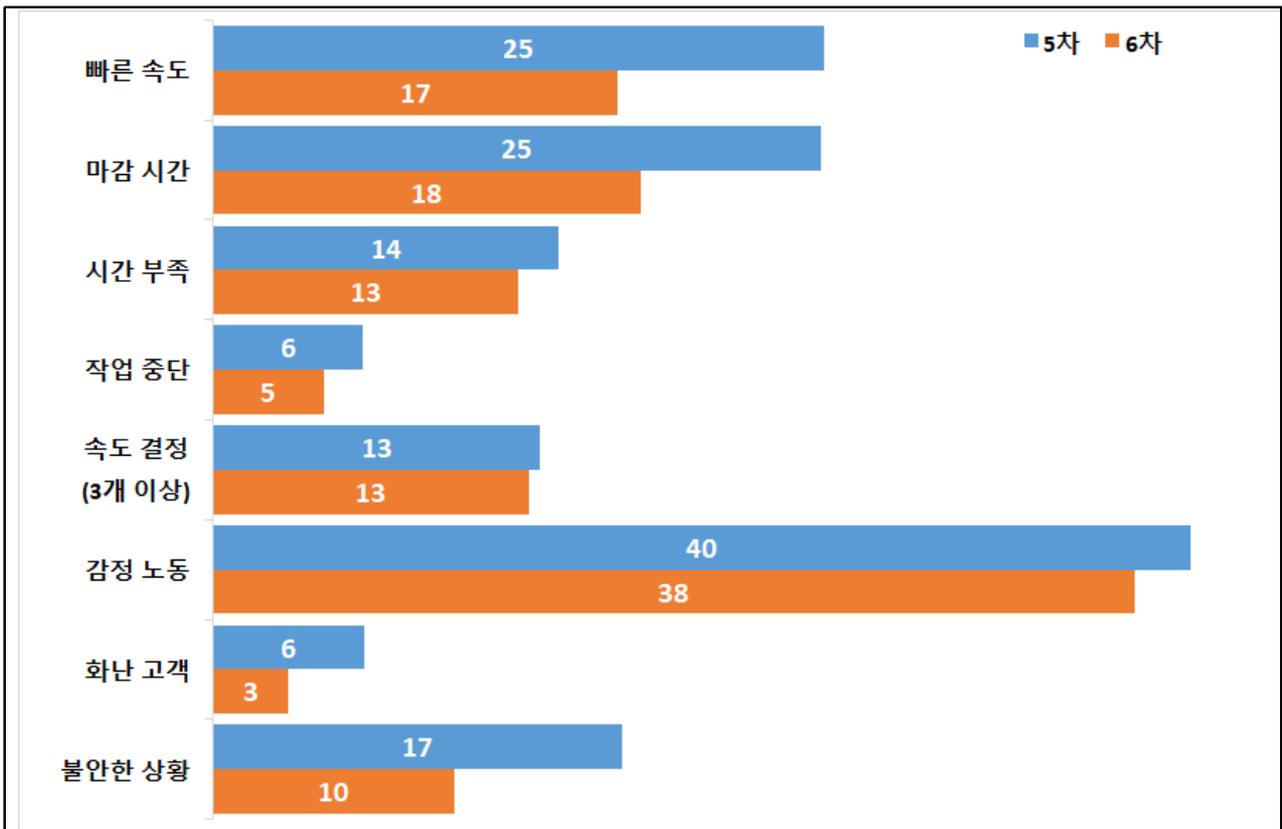
- ◆ 노동 강도는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감소
- ◆ 항상(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38%)와 일을 완료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13%)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럽(2015년)보다 노동 강도는 약한 편

- 노동 강도는 측정하는 3가지 항목 모두 5차 조사(2017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의 3/4이상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경우 등 4가지의 일의 양적 요구(아래 표 참조) 항목에 대해 5차 조사(2017년) 대비 모두 감소
 -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는 유럽(2015년) 보다 많았으나, 그 외의 항목은 유럽(2015)의 절반 수준
- 고객의 요구, 생산 목표, 상사의 관리·감독 등 5가지의 작업속도를 결정하는 외부 요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5차 조사(2017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이 역시 유럽(2015년)의 약 1/3 수준
 - 한국과 유럽 모두 작업속도의 결정 요인으로 고객 등의 직접적인 요구로 인한 경우(52%)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 그 외 항목으로 우리나라는 상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34%)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럽은 수치화된 생산목표나 성과목표(42%)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임
- 감정노동 항목으로 업무시간의 대부분 또는 항상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경우, 화가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 업무시간의 1/4 이상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모두 5차 조사(2017년) 대비 감소
 -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는 유럽(2015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2-1〉 노동 강도(%)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양적 요구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근무시간의 3/4 이상)	25	26	17	17	33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함(근무시간의 3/4이상)	25	27	18	19	36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14	15	13	13	10
	잡은 작업 중단으로 업무 방해 여부	6	7	5	5	16
작업 속도 의 결정 요인	아래 작업속도의 결정 요인이 3개 이상 해당	13	16	13	16	33
	동료가 수행한 업무	25	26	33	34	39
	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의 직접적 요구	55	49	52	47	68
	수치화된 생산 목표나 성과 목표	21	22	20	22	42
	자동화 라인 속도 또는 제품의 이동 속도	11	12	10	11	18
	상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45	46	34	35	35
감정 노동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항상/대부분 그렇다)	40	41	38	38	31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 (업무시간의 3/4이상)	6	6	3	3	16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 (업무시간의 1/4이상)	17	17	10	10	30

노동 강도(%)



1) 성별 노동 강도(%)

- ◆ 남성의 노동 강도가 여성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편
- ◆ 감정과 관련된 노동(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은 여성(41%, 4%)이 남성(2%, 4%)보다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일의 강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된 일*의 노동 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여성의 41%가 업무시간 내내 또는 거의 모든 시간 감정을 숨기고 일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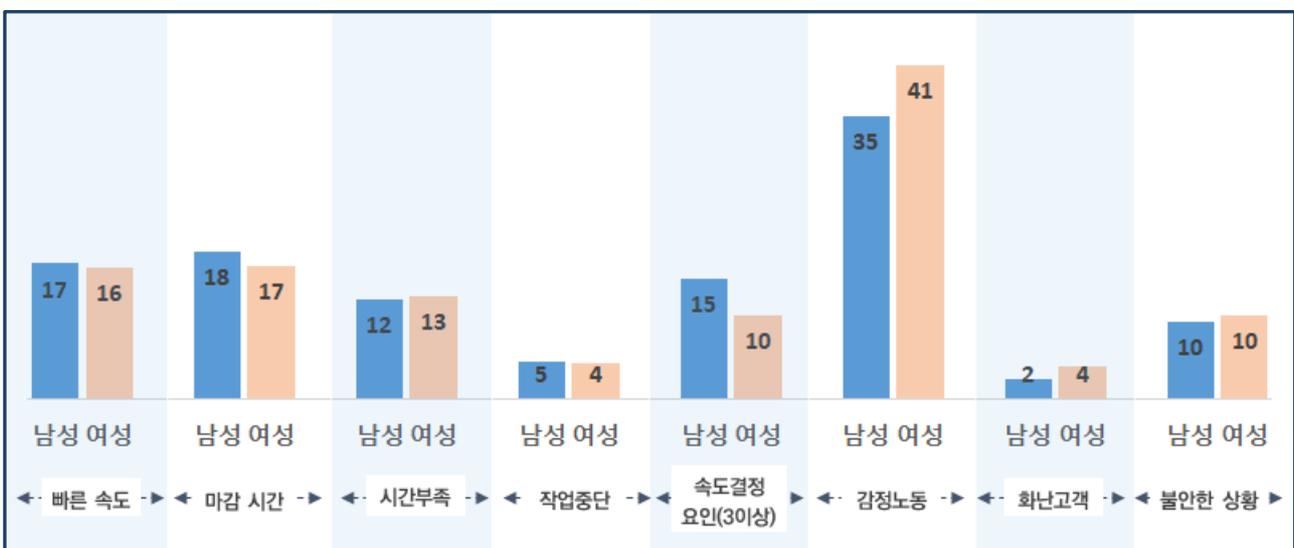
* ① 업무시간 내내 또는 거의 모든 시간 감정을 숨기고 일을 경우

② 업무시간의 3/4 이상을 화가 난 고객·환자·학생 등을 상대하는 일

③ 업무시간의 1/4이상 정서적으로 불안해 지는 상황에 놓이는 일

〈표 2-2〉 성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비율(%)

구 분	양적 요구				작업속도 결정요인	감정노동		
	빠른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시간부족	작업중단	요인 (3개 이상)	감정노동	화난 고객 상대	불안한 상황
남성	17	18	12	5	15	35	2	10
여성	16	17	13	4	10	41	4	10



2) 연령별 노동 강도(%)

- ◆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와 30대이며, 60세 이상이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15세 이상 20세 미만은 빠른 속도로 일함(21%)과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42%)를 가장 많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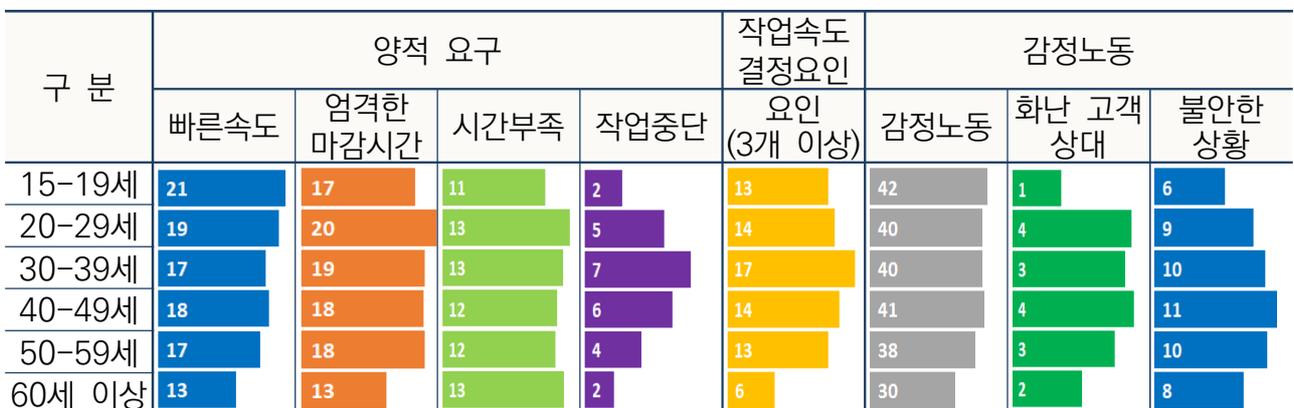
○ 대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노동 강도가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모두 감정노동이 높은 수준이며, 20대는 근무시간의 3/4이상을 빠른 속도(19%)나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하는 경우(20%) 등 육체적인 노동이 많고, 30대는 잦은 작업 중단(7%), 외부 요인에 의한 작업 속도 결정(17%)에서 높게 나타남

○ 15세 이상 20세 미만이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경우(21%)와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42%)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연령대

〈표 2-3〉 연령별 노동강도(%)

구 분	양적 요구				작업속도 결정요인 요인 (3개 이상)	감정노동		
	빠른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시간부족	작업중단		감정노동	화난 고객 상대	불안한 상황
15-19세	21	17	11	2	13	42	1	6
20-29세	19	20	13	5	14	40	4	9
30-39세	17	19	13	7	17	40	3	10
40-49세	18	18	12	6	14	41	4	11
50-59세	17	18	12	4	13	38	3	10
60세 이상	13	13	13	2	6	30	2	8



3) 종사상 지위별 노동 강도(%)

- ◆ 상용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일함(26%), 엄격한 마감시간(23%), 시간부족(19%)을 가장 많이 경험
-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41%),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11%)를 가장 많이 경험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8가지 항목 중 작업 중단 등 7가지 항목에서 경험 비율이 높아 노동 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가 일의 빠른 속도(26%), 엄격한 마감시간(23%), 시간 부족(19%)을 가장 많이 경험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노동 강도가 다소 낮지만, 감정 노동 부분에서 높게 나타남
 -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41%)가 가장 높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11%)가 가장 높음

〈표 2-4〉 고용형태별 노동강도(%)

구 분	양적 요구				작업속도 결정요인 요인 (3개 이상)	감정노동		
	빠른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시간부족	작업중단		감정노동	화난고객 상대	불안한 상황
자영업자	15	14	10	3	2	39	3	10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14	13	10	3	1	39	3	11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16	15	10	4	7	41	3	10
임금근로자	17	19	13	5	16	38	3	10
상용근로자	17	19	12	6	17	39	3	10
임시근로자	15	17	16	3	9	36	3	9
일용근로자	26	23	19	2	13	32	2	9
무급가족종사자	11	11	7	1	5	31	1	9

4)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 육체적 노동과 관련이 많은 빠른 속도로 일함, 엄격한 마감시간 등에서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음
- ◆ 감정 노동과 관련된 노동강도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육체적 노동과 관련이 많은 빠른 속도로 일함, 엄격한 마감 시간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높음
- 반면, 정신적 노동과 관련이 많은 감정노동, 화가 난 고객 등 상대, 불안한 상황을 느끼는 부분은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종사자에서 높게 나타남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외부환경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집단이었으며, 감정 노동과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직종별 노동강도(%)

구 분	양적 요구				작업속도 결정요인 요인 (3개 이상)	감정노동		
	빠른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시간부족	작업중단		감정노동	화난고객 상대	불안한 상황
관리자	10	15	3	6	12	37	2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17	12	7	14	43	4	10
사무 종사자	14	16	10	6	14	37	2	8
서비스 종사자	20	17	14	5	9	49	6	14
판매 종사자	12	12	12	3	7	47	4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4	9	1	2	13	0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	23	11	4	17	32	1	1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	27	13	3	24	32	2	11
단순노무 종사자	22	20	18	3	9	33	2	10

구 분	빠른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시간부족	작업중단	작업속도 결정요인 요인 (3개 이상)	감정노동	화난고객 상대	불안한 상황
관리자	10	15	3	6	12	37	2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17	12	7	14	43	4	10
사무 종사자	14	16	10	6	14	37	2	8
서비스 종사자	20	17	14	5	9	49	6	14
판매 종사자	12	12	12	3	7	47	4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4	9	1	2	13	0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	23	11	4	17	32	1	1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	27	13	3	24	32	2	11
단순노무 종사자	22	20	18	3	9	33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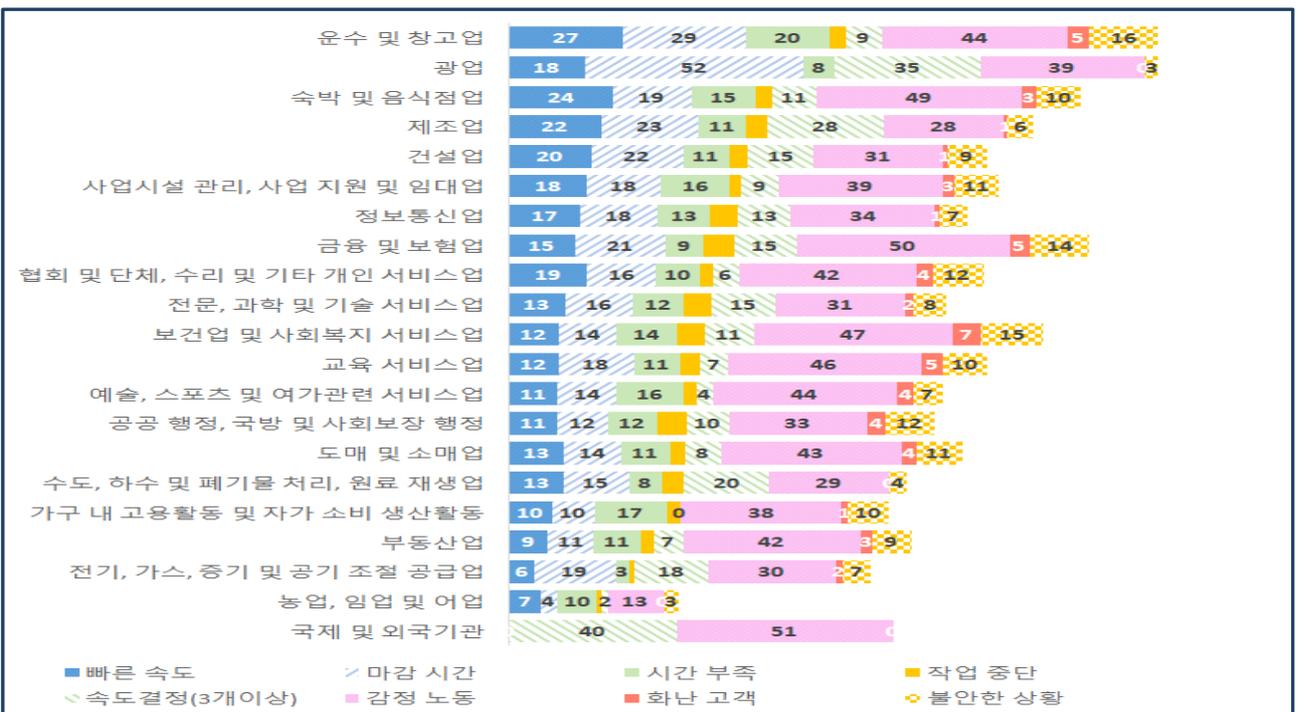
5)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 운수 및 창고업이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은 감정 노동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

- 운수 및 창고업이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 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 육체적인 일의 양(빠른 속도(27%), 마감시간(29%), 시간 부족(20%))도 많고, 정신적인 요구(감정노동(44%), 화난고객(5%), 불안한 상황(16%))도 높은 업종
-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육체적 요구(빠른 속도(24%), 마감시간(19%))와 함께 감정노동(49%)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감정 노동은 높지 않으나, 빠른 속도(22%), 마감시간(23%), 3가지 이상의 외부요인에 의한 속도결정(28%)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예상하지 못한 일의 발생으로 일에 방해되는 경우(7%)와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50%)가 가장 많은 업종이며, 화난 고객 상대(5%), 근무시간 중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14%)도 높게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예상하지 못한 일의 발생으로 일에 방해되는 경우(7%)와 화난 고객 상대(5%)가 가장 많은 업종이며,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47%)와 근무시간 중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15%)도 높게 나타남
- 교육서비스업도 감정노동(46%)와 화난 고객 상대(5%)가 많은 업종
- 건설업은 타 업종과 비교할 때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편

〈표 2-6〉 업종별 노동강도(%)

구 분	양적 요구				작업속도 결정요인	감정노동		
	빠른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시간부족	작업중단	요인 (3개 이상)	감정노동	화난고객 상대	불안한 상황
농업, 임업 및 어업	7	4	10	1	2	13	0	3
광업	18	52	8	0	35	39	0	3
제조업	22	23	11	5	28	28	1	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6	19	3	1	18	30	2	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13	15	8	5	20	29	0	4
건설업	20	22	11	4	15	31	1	9
도매 및 소매업	13	14	11	4	8	43	4	11
운수 및 창고업	27	29	20	4	9	44	5	16
숙박 및 음식점업	24	19	15	4	11	49	3	10
정보통신업	17	18	13	6	13	34	1	7
금융 및 보험업	15	21	9	7	15	50	5	14
부동산업	9	11	11	3	7	42	3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16	12	7	15	31	2	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업	18	18	16	3	9	39	3	1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12	12	7	10	33	4	12
교육 서비스업	12	18	11	5	7	46	5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14	14	7	11	47	7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1	14	16	3	4	44	4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9	16	10	3	6	42	4	1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10	10	17	3	0	38	1	10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40	51	0	0



(3) 노동 시간

- ◆ 노동 시간이 단축(2018.7.1.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유럽(2015년)과 비교할 때는 아직 높은 수준
- ◆ 밤 근무 등 비정형 근무도 감소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 역시 감소

1) 장시간 노동

- 전체 취업자 중 주당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는 28%, 임금근로자는 20%,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는 13%, 임금근로자는 6%로 나타남
-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5차(2017년) 조사와 비교할 때
 - 주당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는 28%, 임금근로자는 33% 감소
 -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는 38%, 임금근로자는 54% 감소
 -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가 크게 나타남
- 많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당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 수의 비율(28%)은 유럽(2015년)의 16%에 비해 12%p 높은 수준
- 전날 퇴근 이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의 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5%)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12%) 역시 크게 감소
 - 이 부분은 유럽(2015년)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을 나타냄

2) 비정형 근무

- 밤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 교대 근무를 하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5차(2017년) 조사에 비해 다소 감소
 - * 밤 근무 :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우
 - ** 토요일, 일요일 근무 : 집에서 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7%(1%p) 증가
- 전체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교대 근무자의 비율(10%, 8%)은 다소 감소

-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근무 시간대의 변경이 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영구교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64%, 58%)
- 비정형적인 근무시간에 일하는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유럽(2015년)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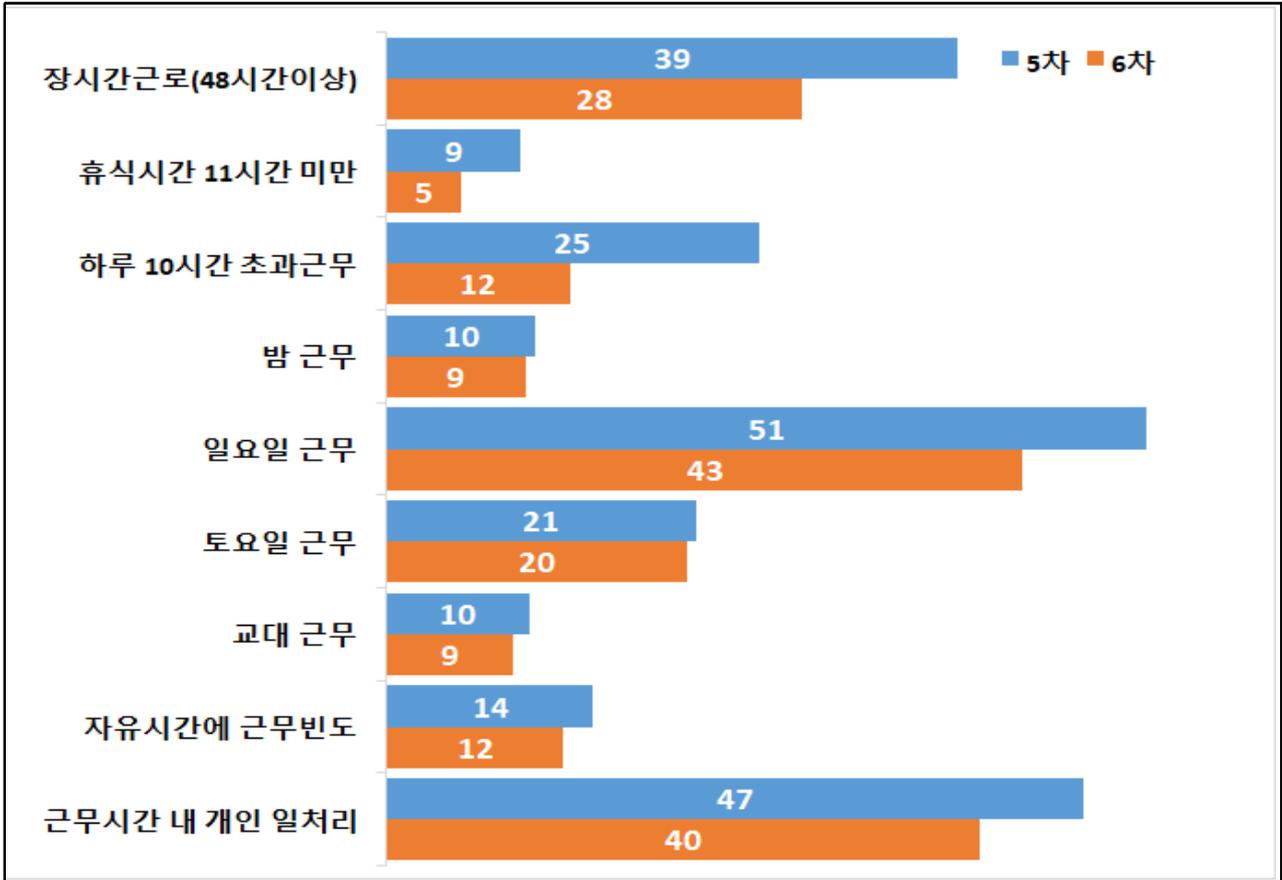
3) 노동시간의 유연성

-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정규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취업자 17%, 임금근로자 29% 감소
- 반면,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일이나 집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취업자의 40%, 임금근로자의 31%가 매우 쉽거나 비교적 쉽다고 응답
 - 제5차 조사(2017년)에 비해 각각 15%, 23% 감소

〈표 3-1〉 노동 시간(%)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장시간 노동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이상	39	30	28	20	16	
		52시간 이상	21	13	13	6	-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의 유무		9	8	5	5	23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		25	21	12	11	32	
비정형 근무	밤 근무(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우)		10	10	9	10	19	
	일요일 근무(집에서 일한 경우 제외,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한 경우)		21	15	20	16	30	
	토요일 근무(집에서 일한 경우 제외,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한 경우)		51	41	43	35	52	
	교대 근무		10	12	9	11	21	
		평일 분할 교대 (하루 안에서 4시간 이상 시간 간격으로 교대)		25	24	16	10	7
		영구 교대 (오전, 오후, 야간등 시간대의 변경이 없는 경우)		25	26	41	41	40
		순환 교대 (오전, 오후, 야간등 시간대가 변경되는 경우)		49	49	43	43	49
		기타		2	1	0	0	4
유연 성	지난 1년간 정규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 업무를 얼마나 자주 해야 했는지(한 달에 여러 번 이상)		14	14	12	10	22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의 처리 가능 여부	매우 쉬움	5	2	5	2	25	
		매우 쉬움+비교적 쉬움	47	40	40	31	-	

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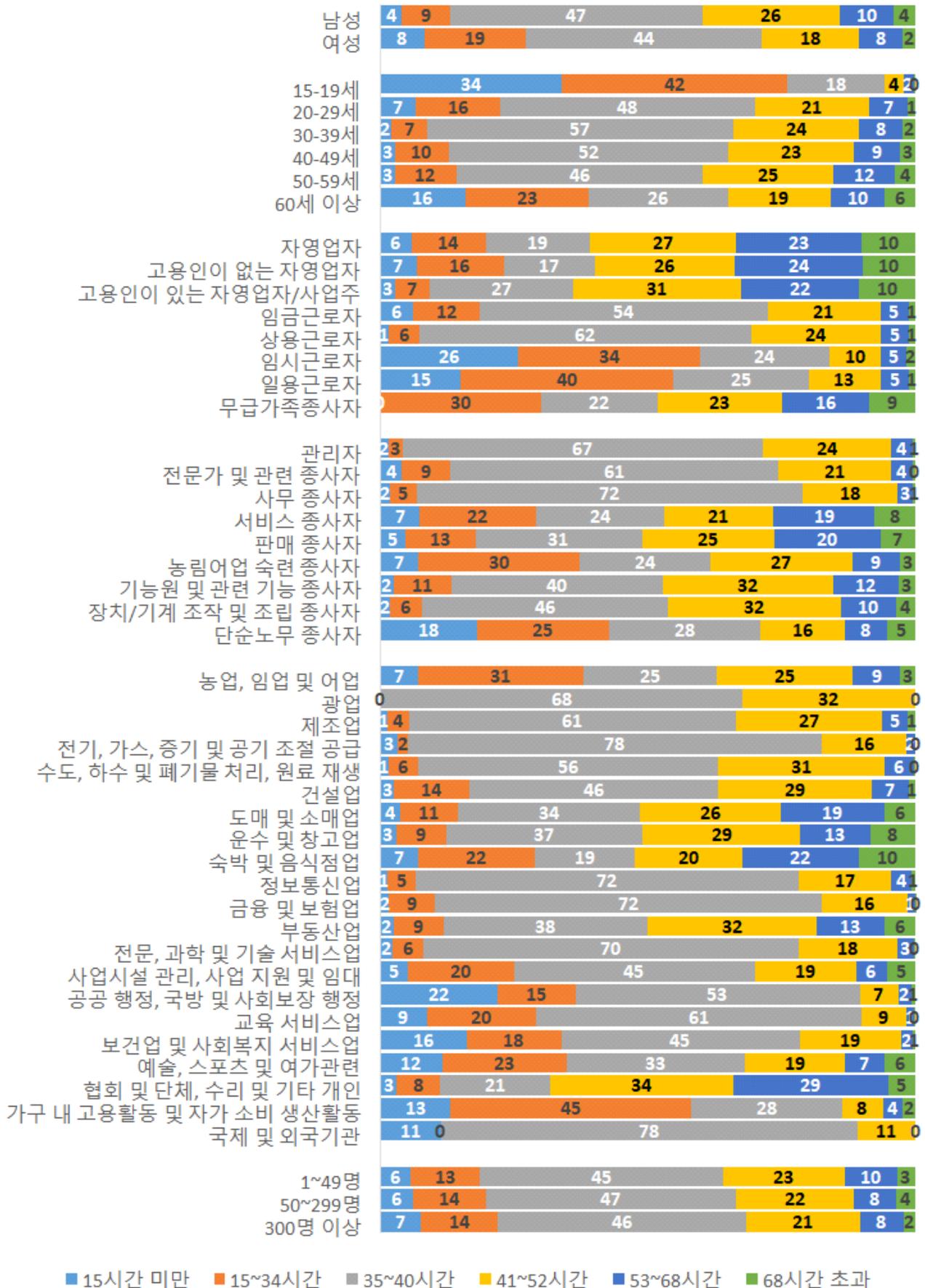


4) 집단별 노동시간의 분포

- ◆ 연령이 많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어, 60세 이상의 16%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
- ◆ 자영업자의 33%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반면, 임금근로자는 6% 수준

-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비율은 남성(14%), 여성(10%)로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고령으로 갈수록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아져 20대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8%인 반면, 50대 16%, 60세 이상이 16%로 가장 장시간 노동
 - 반면, 10대의 경우 주당 15시간미만 비율이 34%
- 자영업자의 33%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으며,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34%)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노동시간이 긴 직종으로 각각 27%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으로 근무시간이 적었으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5% 미만
- 노동시간이 긴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순으로 각각 34%, 32%, 25%, 21%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13%, 50인~299인 12%, 300인 이상 사업장의 10%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단별 노동 시간 분포(%)



5) 성별 노동시간

- ◆ 남성이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에서 여성보다 노동시간이 김
- ◆ 여성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처리가 남성보다 어려운 편

- 남성이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자유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의 처리가 쉽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2%, 여성은 38%로 여성이 낮게 나타남

〈표 3-2〉 성별 노동 시간(%)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남성	32	7	16	13	23	46	10	13	42
여성	22	3	8	5	17	39	7	12	38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초과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남성	32	7	16	13	23	46	10	13	42
여성	22	3	8	5	17	39	7	12	38

6) 연령별 노동시간

- ◆ 주당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50대 이상에서, 퇴근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11시간)을 못 갖거나,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는 30대, 40대에서 많이 발생

- 주당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50대 이상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와 퇴근 이후 다음날 출근까지의 시간이 11시간미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30대~40대에서 많이 발생
-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20대~50대 (10%)에서 주로 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15세~19세와 60세 이상에서 많이 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는 20대 이하가 많이 수행
- 한 달에 여러 번 자유 시간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30대, 40대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에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을 처리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표 3-3〉 연령별 노동 시간(%)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15-19세	5	1	5	7	47	68	19	10	35
20-29세	22	4	10	10	22	43	14	9	29
30-39세	24	6	14	10	15	36	8	14	38
40-49세	27	6	14	9	17	38	7	14	40
50-59세	33	5	12	10	20	48	8	12	41
60세 이상	30	4	12	8	27	49	8	12	48

구 분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15-19세	5	1	5	7	47	68	19	10	35
20-29세	22	4	10	10	22	43	14	9	29
30-39세	24	6	14	10	15	36	8	14	38
40-49세	27	6	14	9	17	38	7	14	40
50-59세	33	5	12	10	20	48	8	12	41
60세 이상	30	4	12	8	27	49	8	12	48

7) 종사상 지위별 노동시간

- ◆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많은 노동 시간을 나타냄
-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은 일용근로자가 가장 낮음

- 장시간 노동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거의 2배 많이 함
- 밤 근무는 상용근로자(11%),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10%)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무급가족종사자(71%, 36%)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71%, 34%)가, 교대근무는 임시근로자(14%), 상용근로자(11%)가 많이 함
- 자유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26%),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20%), 무급가족종사자(20%) 순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처리가 쉽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용근로자(22%), 임시근로자(24%)가 낮게 나타남

〈표 3-4〉 종사상 지위별 노동 시간(%)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 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자영업자	55	6	20	9	34	70	2	22	69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5	7	20	9	34	71	1	20	70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58	6	20	10	34	66	6	26	68
임금근로자	20	5	11	10	16	35	11	10	31
상용근로자	21	5	12	11	15	34	11	10	33
임시근로자	13	3	6	7	18	33	14	8	24
일용근로자	17	2	9	5	23	49	3	9	22
무급가족종사자	42	4	13	5	36	71	4	20	76

8) 직종별 노동시간

- ◆ 서비스 종사자가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이 많고, 노동시간의 유연성도 낮은 편으로 노동 시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밤근무, 교대근무, 하루 10시간이상 근무가 가장 많은 직종

- 서비스 종사자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형 노동이 많고, 노동시간의 유연성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판매종사자가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와 자유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
-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와 근무와 자유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할 경우가 가장 많은 업종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 밤 근무, 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직종

〈표 3-5〉 직종별 노동 시간(%)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 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관리자	21	4	12	10	14	24	3	14	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	6	12	8	12	28	5	15	40
사무 종사자	13	4	8	5	7	19	3	13	42
서비스 종사자	42	6	16	15	36	64	13	11	33
판매 종사자	45	4	12	5	28	62	12	17	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	9	2	54	70	0	24	8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0	4	12	6	15	55	4	11	3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8	9	21	22	23	50	20	9	36
단순노무 종사자	24	5	12	11	22	42	12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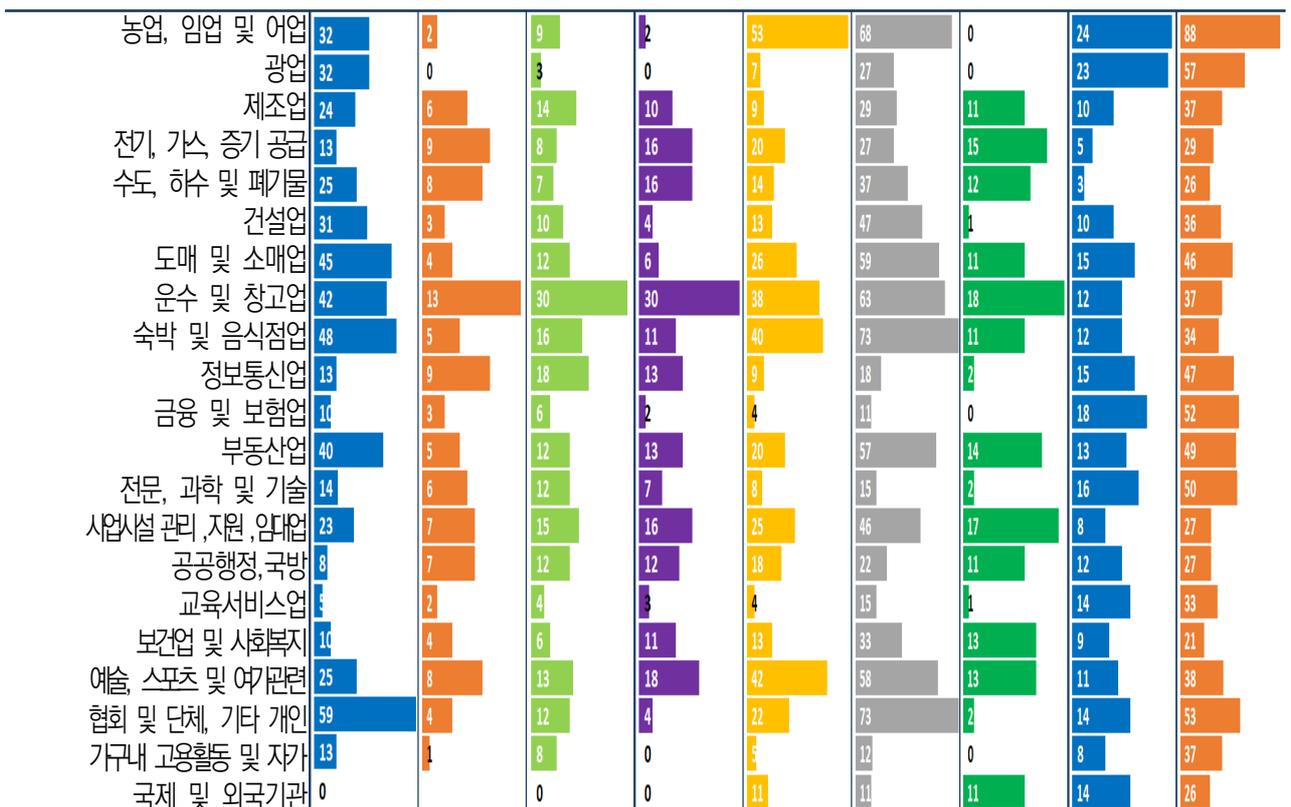
9) 업종별 노동시간

- ◆ 운수 및 창고업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형 노동 형태가 많은 업종
 - 특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30%), 밤 근무(30%), 교대근무(18%)가 가장 많은 업종

- 운수 및 창고업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30%), 밤 근무(30%), 교대근무(18%)가 가장 많은 업종이며, 주 48시간 이상 근무(42%),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기 까지 11시간미만 휴식(13%), 일요일 근무(38%), 토요일 근무(63%)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당 48시간 이상을 가장 많이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9%)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도 많은 편
- 토요일 근무가 가장 많은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3%)과 숙박 및 음식점업(73%)이고, 일요일 근무가 가장 많은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68%)임
-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자유 시간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24%), 금융 및 보험업(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6%) 순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 처리가 쉽다고 응답한 경우는 농업, 임업 및 어업(88%)이 가장 많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이 가장 적었음

〈표 3-6〉 업종별 노동 시간(%)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 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농업, 임업 및 어업	32	2	9	2	53	68	0	24	88
광업	32	0	3	0	7	27	0	23	57
제조업	24	6	14	10	9	29	11	10	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13	9	8	16	20	27	15	5	2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25	8	7	16	14	37	12	3	26
건설업	31	3	10	4	13	47	1	10	36
도매 및 소매업	45	4	12	6	26	59	11	15	46
운수 및 창고업	42	13	30	30	38	63	18	12	37
숙박 및 음식점업	48	5	16	11	40	73	11	12	34
정보통신업	13	9	18	13	9	18	2	15	47
금융 및 보험업	10	3	6	2	4	11	0	18	52
부동산업	40	5	12	13	20	57	14	13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6	12	7	8	15	2	16	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3	7	15	16	25	46	17	8	2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8	7	12	12	18	22	11	12	27
교육 서비스업	5	2	4	3	4	15	1	14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4	6	11	13	33	13	9	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25	8	13	18	42	58	13	11	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59	4	12	4	22	73	2	14	5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13	1	8	0	5	12	0	8	37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11	11	11	14	26



9) 사업장 규모별 노동시간 형태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함

-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노동(주 48시간 이상 근무,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미만 휴식,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이 많음
- 비정형 노동형태는 규모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편
 - 일요일에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을 하는 일요일 근무(21%)와 교대근무(9%)는 50~299인 사업장이 제일 많고
 -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일을 하는 밤 근무를 하는 경우는 300인 이상 사업장(8%)이 가장 적음
-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자유 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300인 이상 사업장(11%)이 가장 적음
 - 반면,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 처리가 쉽다고 응답한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40%)이 가장 많음

〈표 3-7〉 업종별 노동 시간(%)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이상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 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1~49명	29	5	13	10	20	43	8	13	40
50~299명	26	5	12	10	21	43	9	13	39
300명 이상	24	4	11	8	20	43	8	11	39

1~49명	29	5	13	10	20	43	8	13	40
50~299명	26	5	12	10	21	43	9	13	39
300명 이상	24	4	11	8	20	43	8	11	39

〈표 3-8〉 노동 시간(%) [요약]

구 분	장시간 노동			비정형 노동			유연성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10시간 초과근무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교대근무	자유시간 근무빈도	근무시간 개인 일
남성	32	7	16	13	23	46	10	13	42
여성	22	3	8	5	17	39	7	12	38
15-19세	5	1	5	7	47	68	19	10	35
20-29세	22	4	10	10	22	43	14	9	29
30-39세	24	6	14	10	15	36	8	14	38
40-49세	27	6	14	9	17	38	7	14	40
50-59세	33	5	12	10	20	48	8	12	41
60세 이상	30	4	12	8	27	49	8	12	48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5	7	20	9	34	71		20	70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58	6	20	10	34	66	6	26	68
임금근로자	20	5	11	10	16	35	11	10	31
상용근로자	21	5	12	11	15	34	11	10	33
임시근로자	13	3	6	7	18	33	14	8	24
일용근로자	17	2	9	5	23	49	3	9	22
무급가족종사자	42	4	13	5	36	71	4	20	76
관리자	21	4	12	10	14	24	3	14	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	6	12	8	12	28	5	15	40
사무 종사자	13	4	8	5	7	19	3	13	42
서비스 종사자	42	6	16	15	36	64	13	11	33
판매 종사자	45	4	12	5	28	62	12	17	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	9		54	70		24	8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0	4	12	6	15	55	4	11	35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	38	9	21	22	23	50	20	9	36
단순노무 종사자	24	5	12	11	22	42	12	7	25
농업, 임업 및 어업	32	2	9	2	53	68		24	88
광업	32		3	0	7	27		23	57
제조업	24	6	14	10	9	29	11	10	37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13	9	8	16	20	27	15	5	2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25	8	7	16	14	37	12	3	26
건설업	31	3	10	4	13	47		10	36
도매 및 소매업	45	4	12	6	26	59	11	15	46
운수 및 창고업	42	13	30	30	38	63	18	12	37
숙박 및 음식점업	48	5	16	11	40	73	11	12	34
정보통신업	13	9	18	13	9	18	2	15	47
금융 및 보험업	1	3	6			1		18	52
부동산업	40	5	12	13	20	57	14	13	49
전문, 과학 및 기술업	14	6	12	7	8	15	2	16	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업	23	7	15	16	25	46	17	8	27
공공 행정, 국방업	8	7	12	12	18	22	11	12	27
교육 서비스업	5	2	4	3	4	15		14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1	4	6	11	13	33	13	9	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8	13	18	42	58	13	11	38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취업	59	4	12	4	22	73		14	53
국제 및 외국기관	13	1	8	0	5	12		8	37
			0	0	11	1	11	14	26
1~49명	29	5	13	10	20	43	8	13	40
50~299명	26	5	12	10	21	43	9	13	39
300명 이상	24	4	11	8	20	43	8	11	39

(4) 사회적 환경

1)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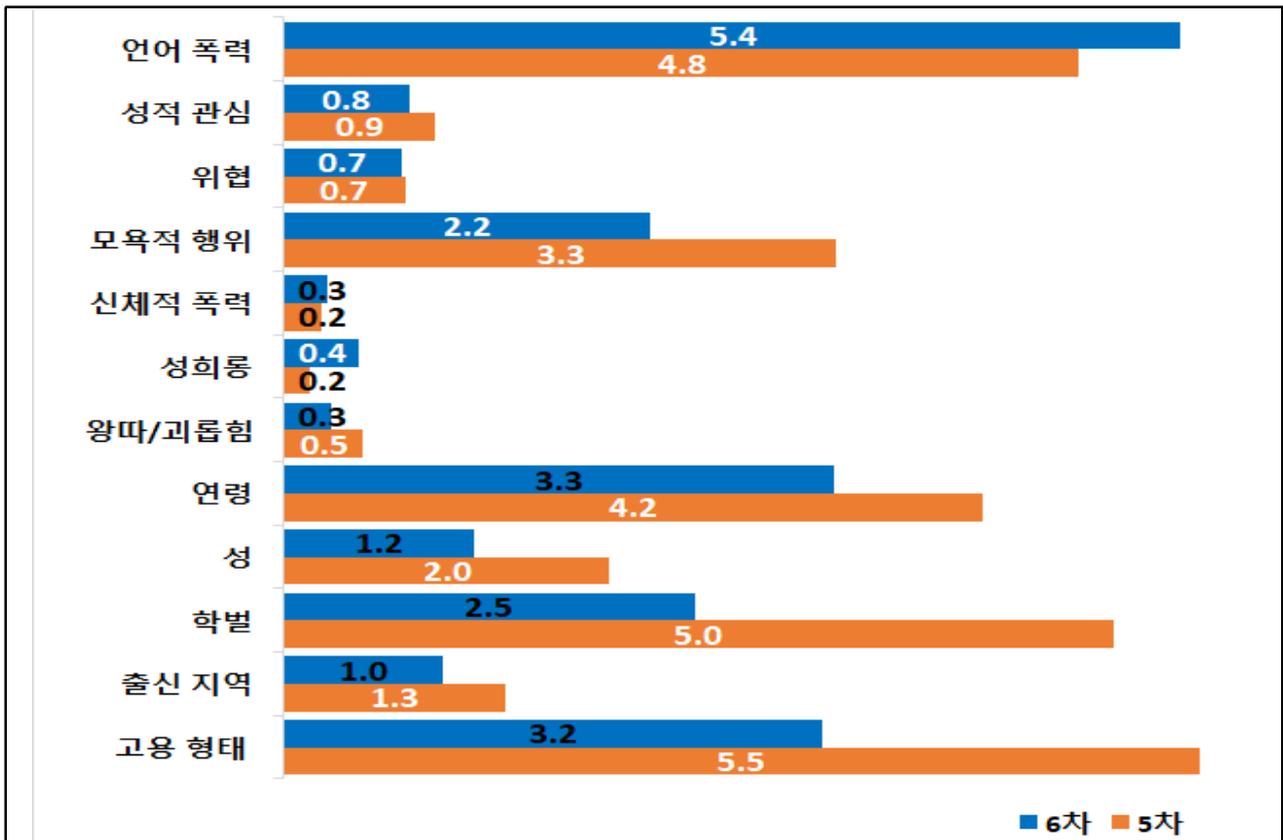
- ◆ 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험은 5차 조사(2017년)와 비교할 때, 대부분 항목에서 감소
- ◆ 전체 취업자에서 증가한 항목은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희롱 3가지로 각각 13%, 50%, 100% 증가

-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달간 경험한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의 경우
 - 언어폭력 경험은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5.4%가 경험, 5차 조사(2017년)보다 각각 13%, 8% 증가
 - 언어폭력 외 두 개 항목은 5차 조사(2017년)와 비교할 때 모두 감소
 -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각각 11%, 30% 감소
 - 위협은 임금근로자만 25% 감소, 모욕적 행위는 각각 33%, 40% 감소
- 조사시점 기준 지난 12개월간 경험한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과 연령 등의 차별 경험은 5차 조사(2017년)와 비교할 때
 - 신체적 폭력은 임금근로자는 변동이 없이, 전체 취업자에서 50% 증가
 - 성희롱은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크게 증가(100%, 150%)
 - 왕따/괴롭힘은 취업자, 임금근로자 모두 감소(40%, 20%)
 - 연령, 성, 학력, 출신지역, 고용형태(비정규직 등)에 따른 차별 경험은 모두 감소
 - 학력에 대한 차별이 취업자, 임금근로자 각각 50%, 52%로 가장 많이 감소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성 차별은 40% 정도의 감소를, 연령과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은 20% 정도 감소
-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유럽(2015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폭력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영향이 있을 것

〈표 4-1〉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반 사 회 적 행 동	지난 한 달 동안 경험	언어 폭력	4.8	5.0	5.4	5.4	12.0
		성적 관심	0.9	1.0	0.8	0.7	2.0
		위협	0.7	0.8	0.7	0.6	4.0
		모욕적 행위	3.3	3.5	2.2	2.1	6.0
	지난 1년 동안 경험	신체적 폭력	0.2	0.3	0.3	0.3	2.0
		성희롱	0.2	0.2	0.4	0.5	1.0
		왕따/괴롭힘	0.5	0.5	0.3	0.4	5.0
		연령 차별	4.2	5.1	3.3	4.1	-
		성 차별	2.0	2.3	1.2	1.4	-
		학벌 차별	5.0	6.4	2.5	3.1	-
		출신 지역 차별	1.3	1.6	1.0	1.2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5.5	7.2	3.2	4.1	-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2)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 ◆ 임금근로자가 느끼는 직속 상사에 대한 관리자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개인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항목(3% 감소)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 ◆ 취업자, 임금근로자가 느끼는 동료와 상사로 부터의 지지는 제5차 조사(2017년) 보다 각각 13%, 9% 감소

○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직속 상사에 대한 관리자의 질을 묻는 항목에서 개인의 발전을 도와준다는 항목만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3% 감소

- 그 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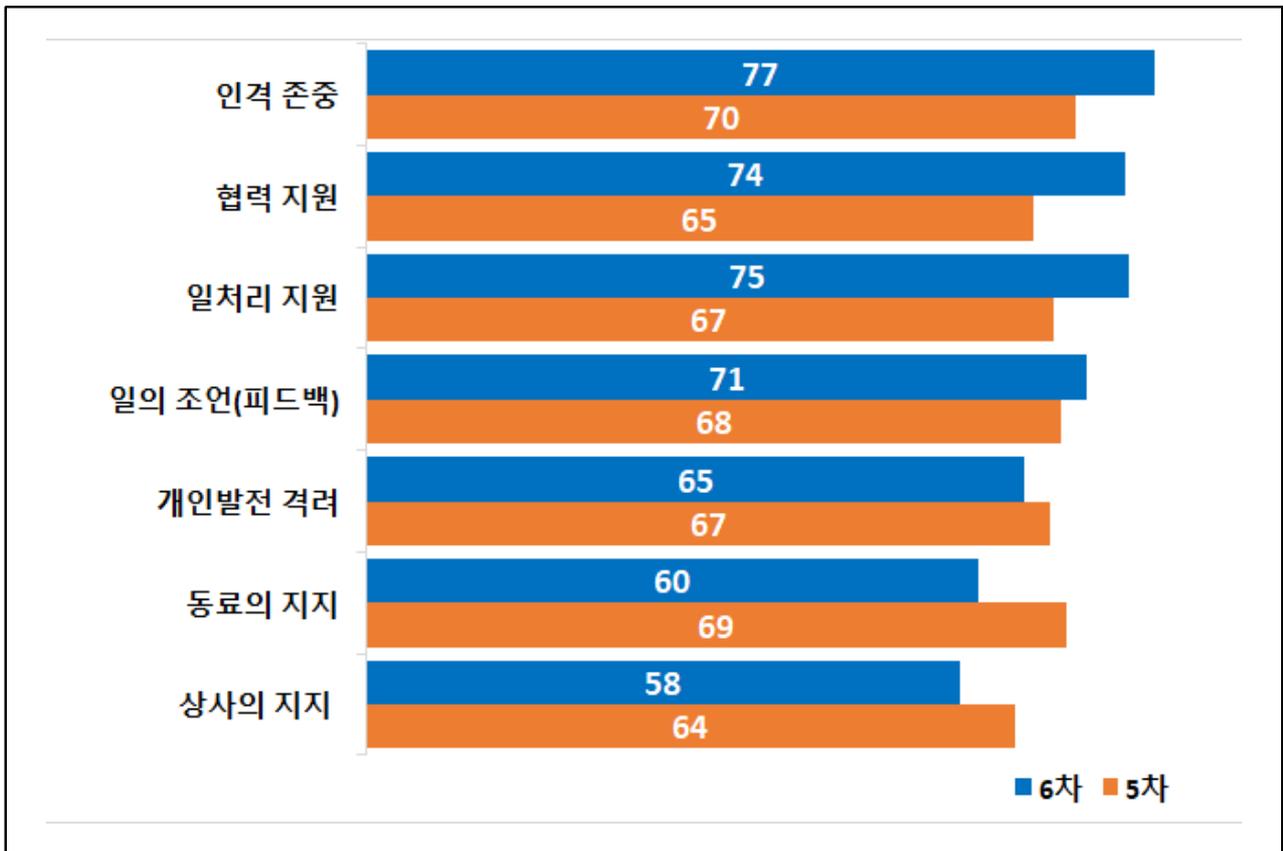
- 인격적 존중 10% 증가, 직원들과의 협력 지원 14% 증가, 일처리에 도움 12%, 일처리에 도움이 되는 조언(피드백) 4% 증가

○ 그러나,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동료와 상사의 지지(지원)에 대해서는 제5차 조사(2017년) 때보다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각각 13%, 9% 감소

<표 4-2>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사 회 적 지 지	관리자의 질 (임금근로자만 조사)	직속상사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	70	-	77	89
		직속상사는 직원들이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65	-	74	73
		직속상사는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67	-	75	66
		직속상사는 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피드백)을 해 준다	-	68	-	71	70
		직속상사는 내가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	67	-	65	68
	사회적 지지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9	69	60	60	71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4	64	58	58	58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3) 성별 사회적 환경

- ◆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과 차별 경험이 많으나, 동료와 상사들로 부터의 지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7% 더 높게 받음

○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성차별의 경우 남성(0.8%)에 비해 여성(1.7%)이 2배 이상 높음

○ 직속 상사의 지원은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없이 인격적 존중은 여성이 1%p 높고, 개인발전에 대한 격려는 남성이 2%p 높으나

- 동료와 상사로 부터의 지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7% 높게 나타남

〈표 4-3〉 성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남성	5.1	0.7	0.7	2.1	0.3	0.2	0.3	3.1	0.8	2.4	1.0	3.2
여성	5.8	0.9	0.7	2.4	0.3	0.8	0.3	3.6	1.7	2.6	0.9	3.3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남성	5.1	0.7	0.7	2.1	0.3	0.2	0.3	3.1	0.8	2.4	1.0	3.2
여성	5.8	0.9	0.7	2.4	0.3	0.8	0.3	3.6	1.7	2.6	0.9	3.3

〈표 4-4〉 성별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구 분	관리자(직속 상사)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남성	77	75	75	71	66	62	60
여성	78	75	75	71	64	58	56

구 분	관리자(직속 상사)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남성	77	75	75	71	66	62	60
여성	78	75	75	71	64	5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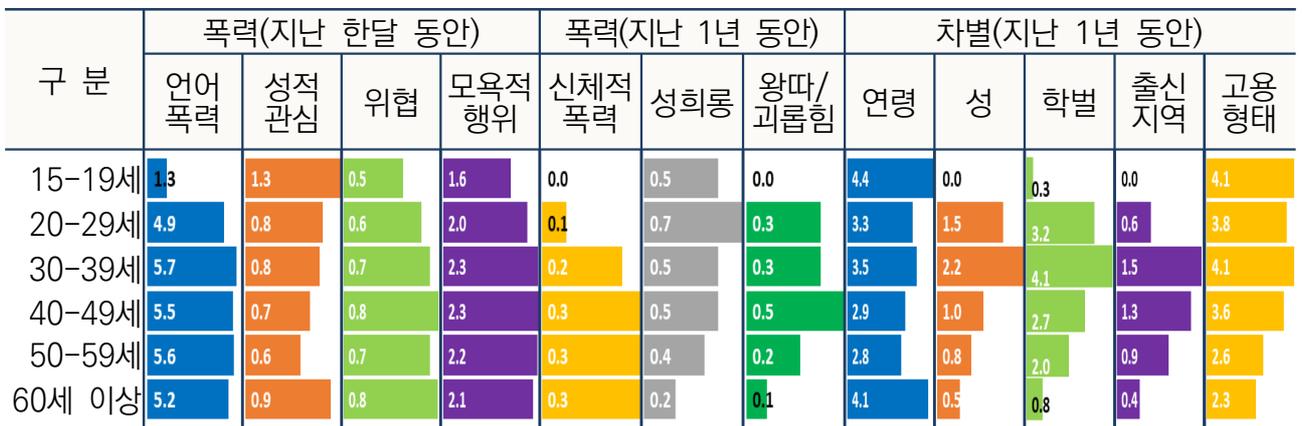
4) 연령별 사회적 환경

- ◆ 신체적·정신적 폭력 경험은 40대, 차별 경험은 30대가 많이 받음
- ◆ 30대가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반면, 10대와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음

- 10대(15세 이상 20세 미만)는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1.3%)과 연령 차별(4.4%),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4.1%)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함
 - 반면, 직속 상관으로부터 일처리에 대한 도움이나 조언은 가장 많이 받지만, 동료와 상사로부터 가장 지지(지원)를 못 받는 연령대
-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희롱 경험(0.7%)이 가장 많고, 직속 상사가 직원들이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76%)가 가장 많은 집단
- 30대는 언어폭력(5.7%), 모욕적 행위(2.3%), 성차별(2.2%), 학벌에 대한 차별(4.1%),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1.5%)에서 가장 높은 경험을 나타냄
 - 반면, 직속 상사의 인격적 존중(80%), 직원들 간 협력 지원(76%), 개인 발전을 위한 격려(68%) 역시 가장 높았으며, 동료와 상사의 지지(63%, 61%)도 높은 편임
- 40대는 신체적 위협(0.8%), 모욕적 행위(2.3%), 신체적 폭력(0.3%), 왕따/괴롭힘(0.5%)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나타냄
 - 반면, 동료와 상사의 지지(65%, 62%)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50대는 신체적 폭력 경험(0.3%)이 가장 많지만 대체적으로 폭력과 차별의 경험이 많지 않으며, 동료와 상사의 지원도 높지 않음
- 60대는 신체적 위협(0.8%)과 신체적 폭력(0.8%)의 경험이 가장 많음
 - 반면, 차별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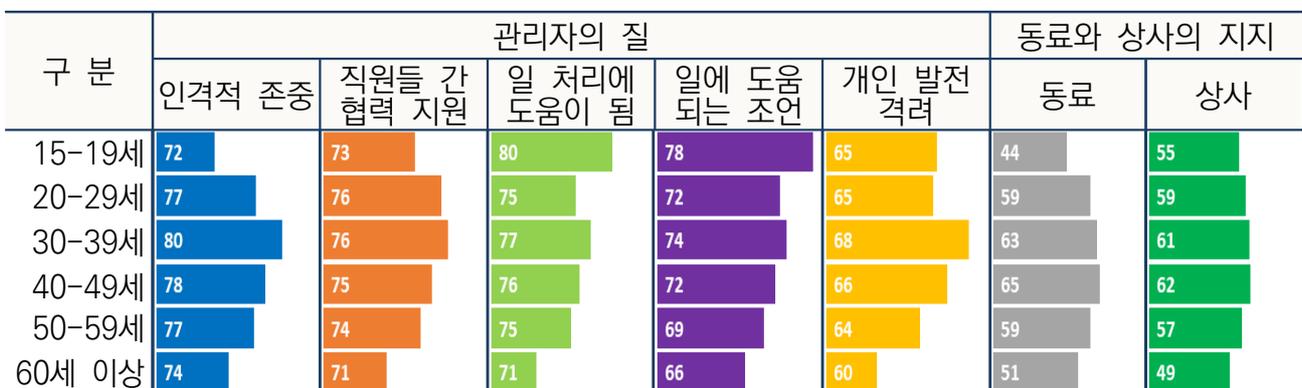
〈표 4-5〉 연령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 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15-19세	1.3	1.3	0.5	1.6	0.0	0.5	0.0	4.4	0.0	0.3	0.0	4.1
20-29세	4.9	0.8	0.6	2.0	0.1	0.7	0.3	3.3	1.5	3.2	0.6	3.8
30-39세	5.7	0.8	0.7	2.3	0.2	0.5	0.3	3.5	2.2	4.1	1.5	4.1
40-49세	5.5	0.7	0.8	2.3	0.3	0.5	0.5	2.9	1.0	2.7	1.3	3.6
50-59세	5.6	0.6	0.7	2.2	0.3	0.4	0.2	2.8	0.8	2.0	0.9	2.6
60세 이상	5.2	0.9	0.8	2.1	0.3	0.2	0.1	4.1	0.5	0.8	0.4	2.3



〈표 4-6〉 연령별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구 분	관리자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15-19세	72	73	80	78	65	44	55
20-29세	77	76	75	72	65	59	59
30-39세	80	76	77	74	68	63	61
40-49세	78	75	76	72	66	65	62
50-59세	77	74	75	69	64	59	57
60세 이상	74	71	71	66	60	51	49



7)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환경

-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신체적·정신적 폭력 경험은 많은 반면, 차별에 대한 경험은 상용근로자가 많은 편
- ◆ 직속 상사의 지지, 동료와 상사의 지지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순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는 언어폭력(5.6%),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0.9%), 신체적 위협(0.9%), 모욕적 행위(0.4%), 성희롱(0.4%)을 많이 받으며, 동료(54%)와 상사(40%)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1.0%)과 신체적 위협(1.0%)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동료(69%)와 상사(56%)의 지지 역시 많이 받는 집단
- 상용근로자는 신체적 폭력(0.3%), 성희롱(0.5%), 왕따/괴롭힘(0.4%), 성차별(1.6%), 학력 차별(3.6%), 출신지역 차별(1.3%)로 폭력과 차별을 가장 많이 받지만
 - 직속상사,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지지(지원) 역시 가장 많이 받는 집단
- 임시근로자는 성희롱(0.5%), 왕따/괴롭힘(0.3%), 연령 차별(5.0%), 성차별(0.8%), 학력 차별(1.6%),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4.5%)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직속상사,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지지(지원)도 일용근로자 보다는 많이 받지만, 상용근로자 보다는 적게 받음
- 일용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많이 받지 않는 편이지만, 연령 차별(6.1%)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5.5%)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성차별(0.8%)과 출신지역 차별(1.1%)도 높은 편
 - 한편, 직속 상사,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지지는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종사상 지위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력	출신지역	고용형태
자영업자	5.2	1.0	0.9	2.5	0.3	0.4	0.1	1.0	0.3	0.4	0.3	0.4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6	0.9	0.9	2.5	0.4	0.4	0.1	0.9	0.3	0.3	0.3	0.4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4.0	1.2	1.0	2.5	0.1	0.3	0.0	1.1	0.2	0.6	0.3	0.3
임금근로자	5.4	0.7	0.6	2.1	0.3	0.5	0.4	4.1	1.4	3.1	1.2	4.1
상용근로자	5.7	0.7	0.7	2.1	0.3	0.5	0.4	3.7	1.6	3.6	1.3	4.0
임시근로자	4.6	0.8	0.5	2.1	0.1	0.5	0.3	5.0	0.8	1.6	0.6	4.5
일용근로자	4.5	0.5	0.8	1.6	0.1	0.3	0.3	6.1	0.8	1.4	1.1	5.5
무급가족종사자	5.3	0.5	0.8	3.5	0.0	0.3	0.0	0.4	0.0	0.0	0.0	0.2

자영업자	5.2	1.0	0.9	2.5	0.3	0.4	0.1	1.0	0.3	0.4	0.3	0.4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6	0.9	0.9	2.5	0.4	0.4	0.1	0.9	0.3	0.3	0.3	0.4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4.0	1.2	1.0	2.5	0.1	0.3	0.0	1.1	0.2	0.6	0.3	0.3
임금근로자	5.4	0.7	0.6	2.1	0.3	0.5	0.4	4.1	1.4	3.1	1.2	4.1
상용근로자	5.7	0.7	0.7	2.1	0.3	0.5	0.4	3.7	1.6	3.6	1.3	4.0
임시근로자	4.6	0.8	0.5	2.1	0.1	0.5	0.3	5.0	0.8	1.6	0.6	4.5
일용근로자	4.5	0.5	0.8	1.6	0.1	0.3	0.3	6.1	0.8	1.4	1.1	5.5
무급가족종사자	5.3	0.5	0.8	3.5	0.0	0.3	0.0	0.4	0.0	0.0	0.0	0.2

〈표 4-8〉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구 분	관리자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자영업자	-	-	-	-	-	66	52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	-	-	-	-	54	40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	-	-	-	-	69	56
임금근로자	-	-	-	-	-	60	58
상용근로자	79	76	76	72	66	63	61
임시근로자	75	72	72	69	62	51	51
일용근로자	61	59	63	56	48	43	44
무급가족종사자	90	83	88	83	82	56	56

자영업자						66	52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4	40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69	56
임금근로자	77	74	75	71	65	60	58
상용근로자	79	76	76	72	66	63	61
임시근로자	75	72	72	69	62	51	51
일용근로자	61	59	63	56	48	43	44
무급가족종사자	90	83	88	83	82	56	56

8) 직종별 사회적 환경

- ◆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차별 경험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게 나타남
- ◆ 직속 상사, 동료와 상사의 지지는 관리자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음

- 관리자는 신체적 위협(1.1%)을 제외하고 폭력과 차별을 가장 안 받으며, 직속 상사, 동료와 상사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학력에 대한 차별(4.5%)을 가장 많이 받으며,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0.9%), 성차별(1.6%), 출신지역 차별(1.3%)을 많이 경험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계층
- 사무종사자는 왕따/괴롭힘(0.5%), 성폭력(2.2%), 출신지역 차별(1.7%)을 가장 많이 받고, 성희롱(0.7%), 학력 차별(4.1%), 고용형태 차별(4.1%) 역시 많이 받지만, 사회적 지지는 나쁘지 않은 수준
- 서비스 종사자는 신체적 폭력(1.0%), 성희롱(1.3%)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왕따/괴롭힘(0.4%) 역시 많이 받지만 차별 경험은 높지 않음
- 판매종사자는 모욕적 행위(3.0%)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차별 경험은 낮은 편, 이와 함께 동료와 상사의 지지도 낮음
-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는 성적관심(1.2%), 모욕적 행위(3.0%)는 가장 많은 경험을 하지만, 차별 경험은 가장 적고, 동료와 상사의 지지 역시 낮은 편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언어폭력(6.0%) 경험이 가장 많고, 신체적 폭력(0.7%)과 연령 차별(3.7%)이 많으며, 사회적 지지도 낮은 편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신체적 폭력(0.7%)가 많고, 직속 상사의 지지가 단순 노무종사자 다음으로 낮음
- 단순노무종사자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험이 많고, 특히 연령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가장 많은 반면, 사회적 지지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종사상 지위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관리자	3.9	0.6	1.1	2.4	0.0	0.0	0.1	1.5	0.7	2.1	0.5	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	0.9	0.8	2.4	0.2	0.4	0.3	3.4	1.6	4.5	1.3	3.7
사무 종사자	5.7	0.5	0.6	2.0	0.1	0.7	0.5	3.0	2.2	4.1	1.7	4.1
서비스 종사자	5.1	0.7	0.7	2.1	1.0	1.3	0.4	2.7	0.6	1.1	0.5	2.9
판매 종사자	5.3	0.8	0.8	2.5	0.1	0.6	0.1	1.9	0.5	1.0	0.4	1.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4	1.2	1.0	3.0	0.0	0.0	0.0	0.4	0.0	0.1	0.1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0.7	0.6	2.2	0.0	0.0	0.0	3.7	0.6	1.7	1.1	2.6
장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9	0.6	0.6	1.9	0.7	0.1	0.2	3.3	0.9	1.7	0.7	3.4
단순노무 종사자	5.3	0.9	0.7	2.0	0.1	0.2	0.3	5.9	1.0	1.5	0.7	4.5

관리자	3.9	0.6	1.1	2.4	0.0	0.0	0.1	1.5	0.7	2.1	0.5	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	0.9	0.8	2.4	0.2	0.4	0.3	3.4	1.6	4.5	1.3	3.7
사무 종사자	5.7	0.5	0.6	2.0	0.1	0.7	0.5	3.0	2.2	4.1	1.7	4.1
서비스 종사자	5.1	0.7	0.7	2.1	1.0	1.3	0.4	2.7	0.6	1.1	0.5	2.9
판매 종사자	5.3	0.8	0.8	2.5	0.1	0.6	0.1	1.9	0.5	1.0	0.4	1.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4	1.2	1.0	3.0	0.0	0.0	0.0	0.4	0.0	0.1	0.1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0.7	0.6	2.2	0.0	0.0	0.0	3.7	0.6	1.7	1.1	2.6
장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9	0.6	0.6	1.9	0.7	0.1	0.2	3.3	0.9	1.7	0.7	3.4
단순노무 종사자	5.3	0.9	0.7	2.0	0.1	0.2	0.3	5.9	1.0	1.5	0.7	4.5

〈표 4-10〉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구 분	관리자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관리자	90	85	82	82	77	74	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	80	80	76	71	68	65
사무 종사자	80	77	77	74	67	63	62
서비스 종사자	78	75	75	71	64	57	58
판매 종사자	79	74	76	72	66	53	5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6	72	75	72	68	58	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	74	75	70	64	62	58
장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70	72	66	60	59	55
단순노무 종사자	68	66	67	62	55	49	46

관리자	90	85	82	82	77	74	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	80	80	76	71	68	65
사무 종사자	80	77	77	74	67	63	62
서비스 종사자	78	75	75	71	64	57	58
판매 종사자	79	74	76	72	66	53	5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6	72	75	72	68	58	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	74	75	70	64	62	58
장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70	72	66	60	59	55
단순노무 종사자	68	66	67	62	55	4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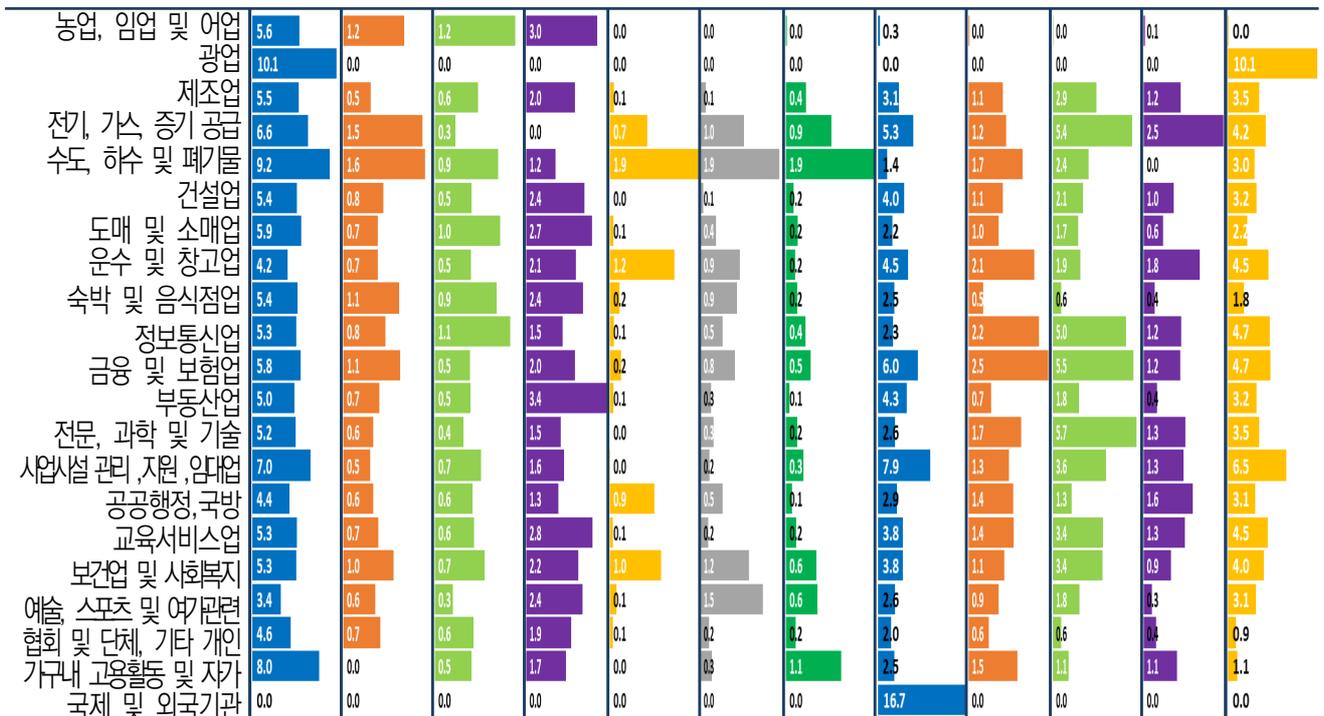
9) 업종별 사회적 환경

- ◆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폭력과 차별 경험이 가장 적지만, 사회적 지지 역시 최하위
- ◆ 수도,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서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을 가장 많이 경험
-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업은 전반적으로 폭력, 차별도 많고, 사회적 지지도 매우 낮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성적 관심(1.2%), 위협(1.2%), 모욕적 행위(3.0%)에 대한 경험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업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은 연령차별(5.3%), 출신지역 차별(2.5%)이 가장 높고, 성희롱(1.0%), 왕따/괴롭힘(0.9%), 학력차별(5.4%)도 높지만, 사회적 지지는 가장 좋은 업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은 언어폭력(9.2%), 성적관심(1.6%), 신체적 폭력(1.9%), 성희롱(1.9%), 왕따/괴롭힘(1.9%) 경험이 가장 많고, 위협(0.9%), 성차별(1.7%)도 많은 업종
-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차별 경험이 많지만, 사회적 지지는 많이 받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학벌 차별(5.7%)이 가장 많은 업종이나, 사회적 지지는 좋은 편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업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6.5%)이 가장 많고, 언어폭력, 연령차별 등 전반적인 폭력과 차별이 적지 않지만, 사회적 지지가 무척 낮은 업종
- 교육서비스업은 모욕적 행위(2.8%), 출신지역 차별(1.3%)이 다소 높지만, 직속상사의 직원들 간 협력 지원이 가장 좋은 등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업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신체적 폭력(1.0%), 성희롱(1.2%), 왕따/괴롭힘(0.6%) 경험이 많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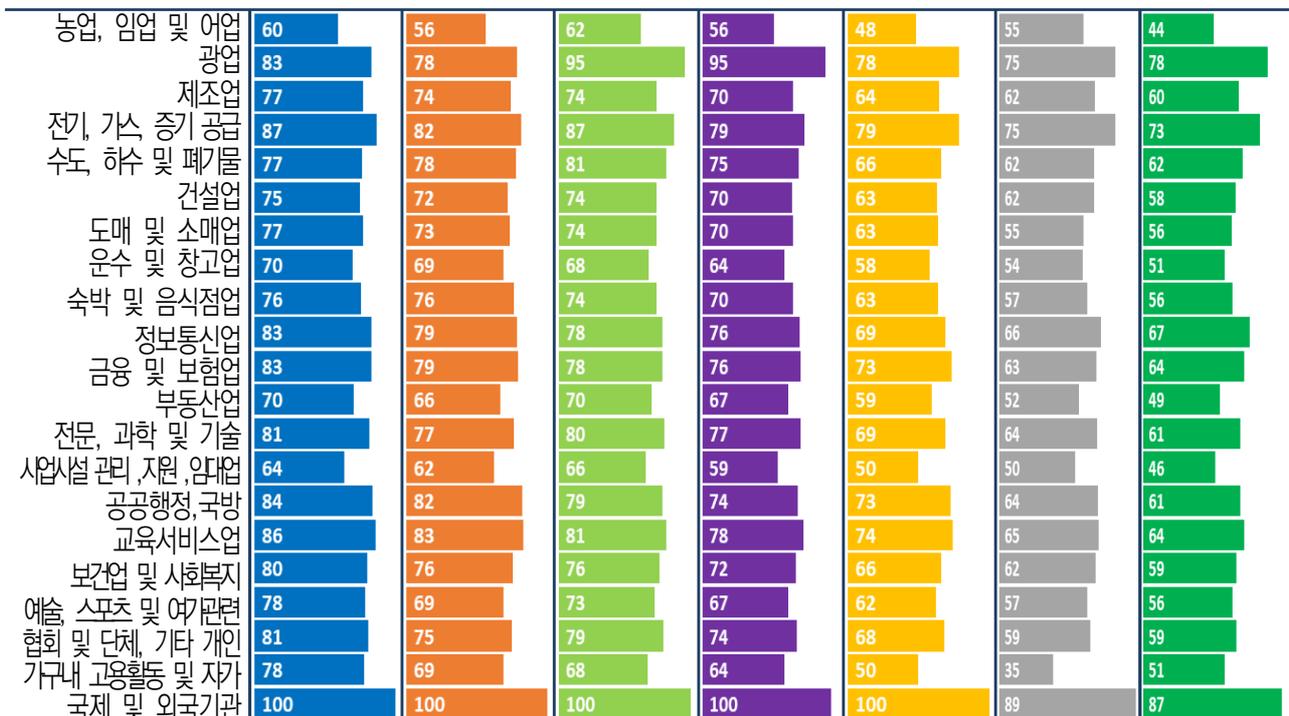
〈표 4-11〉 업종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농업, 임업 및 어업	5.6	1.2	1.2	3.0	0.0	0.0	0.0	0.3	0.0	0.0	0.1	0.0
광업	1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1
제조업	5.5	0.5	0.6	2.0	0.1	0.1	0.4	3.1	1.1	2.9	1.2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6.6	1.5	0.3	0.0	0.7	1.0	0.9	5.3	1.2	5.4	2.5	4.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9.2	1.6	0.9	1.2	1.9	1.9	1.9	1.4	1.7	2.4	0.0	3.0
건설업	5.4	0.8	0.5	2.4	0.0	0.1	0.2	4.0	1.1	2.1	1.0	3.2
도매 및 소매업	5.9	0.7	1.0	2.7	0.1	0.4	0.2	2.2	1.0	1.7	0.6	2.2
운수 및 창고업	4.2	0.7	0.5	2.1	1.2	0.9	0.2	4.5	2.1	1.9	1.8	4.5
숙박 및 음식점업	5.4	1.1	0.9	2.4	0.2	0.9	0.2	2.5	0.5	0.6	0.4	1.8
정보통신업	5.3	0.8	1.1	1.5	0.1	0.5	0.4	2.3	2.2	5.0	1.2	4.7
금융 및 보험업	5.8	1.1	0.5	2.0	0.2	0.8	0.5	6.0	2.5	5.5	1.2	4.7
부동산업	5.0	0.7	0.5	3.4	0.1	0.3	0.1	4.3	0.7	1.8	0.4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	0.6	0.4	1.5	0.0	0.3	0.2	2.6	1.7	5.7	1.3	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7.0	0.5	0.7	1.6	0.0	0.2	0.3	7.9	1.3	3.6	1.3	6.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4	0.6	0.6	1.3	0.9	0.5	0.1	2.9	1.4	1.3	1.6	3.1
교육 서비스업	5.3	0.7	0.6	2.8	0.1	0.2	0.2	3.8	1.4	3.4	1.3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	1.0	0.7	2.2	1.0	1.2	0.6	3.8	1.1	3.4	0.9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4	0.6	0.3	2.4	0.1	1.5	0.6	2.6	0.9	1.8	0.3	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4.6	0.7	0.6	1.9	0.1	0.2	0.2	2.0	0.6	0.6	0.4	0.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8.0	0.0	0.5	1.7	0.0	0.3	1.1	2.5	1.5	1.1	1.1	1.1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표 4-12〉 업종별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구 분	관리자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농업, 임업 및 어업	60	56	62	56	48	55	44
광업	83	78	95	95	78	75	78
제조업	77	74	74	70	64	62	6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87	82	87	79	79	75	7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77	78	81	75	66	62	62
건설업	75	72	74	70	63	62	58
도매 및 소매업	77	73	74	70	63	55	56
운수 및 창고업	70	69	68	64	58	54	51
숙박 및 음식점업	76	76	74	70	63	57	56
정보통신업	83	79	78	76	69	66	67
금융 및 보험업	83	79	78	76	73	63	64
부동산업	70	66	70	67	59	52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	77	80	77	69	64	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64	62	66	59	50	50	4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82	79	74	73	64	61
교육 서비스업	86	83	81	78	74	65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	76	76	72	66	62	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78	69	73	67	62	57	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81	75	79	74	68	59	5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78	69	68	64	50	35	51
국제 및 외국기관	100	100	100	100	100	89	87



〈표 4-13〉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요약]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 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남성	5.1	0.7	0.7	2.1	0.3	0.2	0.3	3.1	0.8	2.4	1.0	3.2
여성	5.8	0.9	0.7	2.4	0.3	0.8	0.3	3.6	1.7	2.6	0.9	3.3
15-19세	1.3	1.3	0.5	1.6	0.0	0.5	0.0	4.4	0.0	0.3	0.0	4.1
20-29세	4.9	0.8	0.6	2.0	0.1	0.7	0.3	3.3	1.5	3.2	0.6	3.8
30-39세	5.7	0.8	0.7	2.3	0.2	0.5	0.3	3.5	2.2	4.1	1.5	4.1
40-49세	5.5	0.7	0.8	2.3	0.3	0.5	0.5	2.9	1.0	2.7	1.3	3.6
50-59세	5.6	0.6	0.7	2.2	0.3	0.4	0.2	2.8	0.8	2.0	0.9	2.6
60세 이상	5.2	0.9	0.8	2.1	0.3	0.2	0.1	4.1	0.5	0.8	0.4	2.3
자영업자	5.2	1.0	0.9	2.5	0.3	0.4	0.1	1.0	0.3	0.4	0.3	0.4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6	0.9	0.9	2.5	0.4	0.4	0.1	0.9	0.3	0.3	0.3	0.4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4.0	1.2	1.0	2.5	0.1	0.3	0.0	1.1	0.2	0.6	0.3	0.3
임금근로자	5.4	0.7	0.6	2.1	0.3	0.5	0.4	4.1	1.4	3.1	1.2	4.1
상용근로자	5.7	0.7	0.7	2.1	0.3	0.5	0.4	3.7	1.6	3.6	1.3	4.0
임시근로자	4.6	0.8	0.5	2.1	0.1	0.5	0.3	5.0	0.8	1.6	0.6	4.5
일용근로자	4.5	0.5	0.8	1.6	0.1	0.3	0.3	6.1	0.8	1.4	1.1	5.5
무급가족종사자	5.3	0.5	0.8	3.5	0.0	0.3	0.0	0.4	0.0	0.0	0.0	0.2
관리자	3.9	0.6	1.1	2.4	0.0	0.0	0.1	1.5	0.7	2.1	0.5	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	0.9	0.8	2.4	0.2	0.4	0.3	3.4	1.6	4.5	1.3	3.7
사무 종사자	5.7	0.5	0.6	2.0	0.1	0.7	0.5	3.0	2.2	4.1	1.7	4.1
서비스 종사자	5.1	0.7	0.7	2.1	1.0	1.3	0.4	2.7	0.6	1.1	0.5	2.9
판매 종사자	5.3	0.8	0.8	2.5	0.1	0.6	0.1	1.9	0.5	1.0	0.4	1.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4	1.2	1.0	3.0	0.0	0.0	0.0	0.4	0.0	0.1	0.1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0.7	0.6	2.2	0.0	0.0	0.0	3.7	0.6	1.7	1.1	2.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9	0.6	0.6	1.9	0.7	0.1	0.2	3.3	0.9	1.7	0.7	3.4
단순노무 종사자	5.3	0.9	0.7	2.0	0.1	0.2	0.3	5.9	1.0	1.5	0.7	4.5
농업, 임업 및 어업	5.6	1.2	1.2	3.0	0.0	0.0	0.0	0.3	0.0	0.0	0.1	0.0
광업	1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1
제조업	5.5	0.5	0.6	2.0	0.1	0.1	0.4	3.1	1.1	2.9	1.2	3.5
전기, 가스, 증기 공급	6.6	1.5	0.3	0.0	0.7	1.0	0.9	5.3	1.2	5.4	2.5	4.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9.2	1.6	0.9	1.2	1.9	1.9	1.9	1.4	1.7	2.4	0.0	3.0
건설업	5.4	0.8	0.5	2.4	0.0	0.1	0.2	4.0	1.1	2.1	1.0	3.2
도매 및 소매업	5.9	0.7	1.0	2.7	0.1	0.4	0.2	2.2	1.0	1.7	0.6	2.2
운수 및 창고업	4.2	0.7	0.5	2.1	1.2	0.9	0.2	4.5	2.1	1.9	1.8	4.5
숙박 및 음식점업	5.4	1.1	0.9	2.4	0.2	0.9	0.2	2.5	0.9	0.6	0.4	1.8
정보통신업	5.3	0.8	1.1	1.5	0.1	0.5	0.4	2.3	2.2	5.0	1.2	4.7
금융 및 보험업	5.8	1.1	0.5	2.0	0.2	0.8	0.5	6.0	2.5	5.5	1.2	4.7
부동산업	5.0	0.7	0.5	3.4	0.1	0.3	0.1	4.3	0.7	1.8	0.4	3.2
전문, 과학 및 기술	5.2	0.6	0.4	1.5	0.0	0.3	0.2	2.6	1.7	5.7	1.3	3.5
사업시설 관리, 지원	7.0	0.5	0.7	1.6	0.0	0.2	0.3	7.9	1.3	3.6	1.3	6.5
임대업	4.4	0.6	0.6	1.3	0.9	0.5	0.1	2.9	1.4	1.3	1.6	3.1
공공행정, 국방	5.3	0.7	0.6	2.8	0.1	0.2	0.2	3.8	1.4	3.4	1.3	4.5
교육서비스업	5.3	1.0	0.7	2.2	1.0	1.2	0.6	3.8	1.1	3.4	0.9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3.4	0.6	0.3	2.4	0.1	1.5	0.6	2.6	0.9	1.8	0.3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4.6	0.7	0.6	1.9	0.1	0.2	0.2	2.0	0.6	0.6	0.4	0.9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8.0	0.0	0.5	1.7	0.0	0.3	1.1	2.5	1.5	1.1	1.1	1.1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표 4-14〉 사회적 지지(지원)에 대한 경험(%) [요약]

구 분	관리자(직속 상사)의 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인격적 존중	직원들 간 협력 지원	일 처리에 도움이 됨	일에 도움 되는 조언	개인 발전 격려	동료	상사
남성	77	75	75	71	66	62	60
여성	78	75	75	71	64	58	56
15-19세	72	73	80	78	65	44	55
20-29세	77	76	75	72	65	59	59
30-39세	80	76	77	74	68	63	61
40-49세	78	75	76	72	66	65	62
50-59세	77	74	75	69	64	59	57
60세 이상	74	71	71	66	60	51	49
자영업자						66	52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4	40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69	56
임금근로자	77	74	75	71	65	60	58
상용근로자	79	76	76	72	66	63	61
임시근로자	75	72	72	69	62	51	51
일용근로자	61	59	63	56	48	43	44
무급가족종사자	90	83	88	83	82	56	56
관리자	90	85	82	82	77	74	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	80	80	76	71	68	65
사무 종사자	80	77	77	74	67	63	62
서비스 종사자	78	75	75	71	64	57	58
판매 종사자	79	74	76	72	66	53	5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6	72	75	72	68	58	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	74	75	70	64	62	5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70	72	66	60	59	55
단순노무 종사자	68	66	67	62	55	49	46
농업, 임업 및 어업	60	56	62	56	48	55	44
광업	83	78	95	95	78	75	78
제조업	77	74	74	70	64	62	60
전기, 가스, 증기 공급	87	82	87	79	79	75	7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77	78	81	75	66	62	62
건설업	75	72	74	70	63	62	58
도매 및 소매업	77	73	74	70	63	55	56
운수 및 창고업	70	69	68	64	58	54	51
숙박 및 음식점업	76	76	74	70	63	57	56
정보통신업	83	79	78	76	69	66	67
금융 및 보험업	83	79	78	76	73	63	64
부동산업	70	66	70	67	59	52	49
전문, 과학 및 기술	81	77	80	77	69	64	61
사업시설 관리, 지원	64	62	66	59	50	50	46
임대업	84	82	79	74	73	64	61
공공행정, 국방	86	83	81	78	74	65	64
교육서비스업	80	76	76	72	66	62	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78	69	73	67	62	57	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81	75	79	74	68	59	59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78	69	68	64	50	35	51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100	100	100	100	100	89	87

(5) 기술과 재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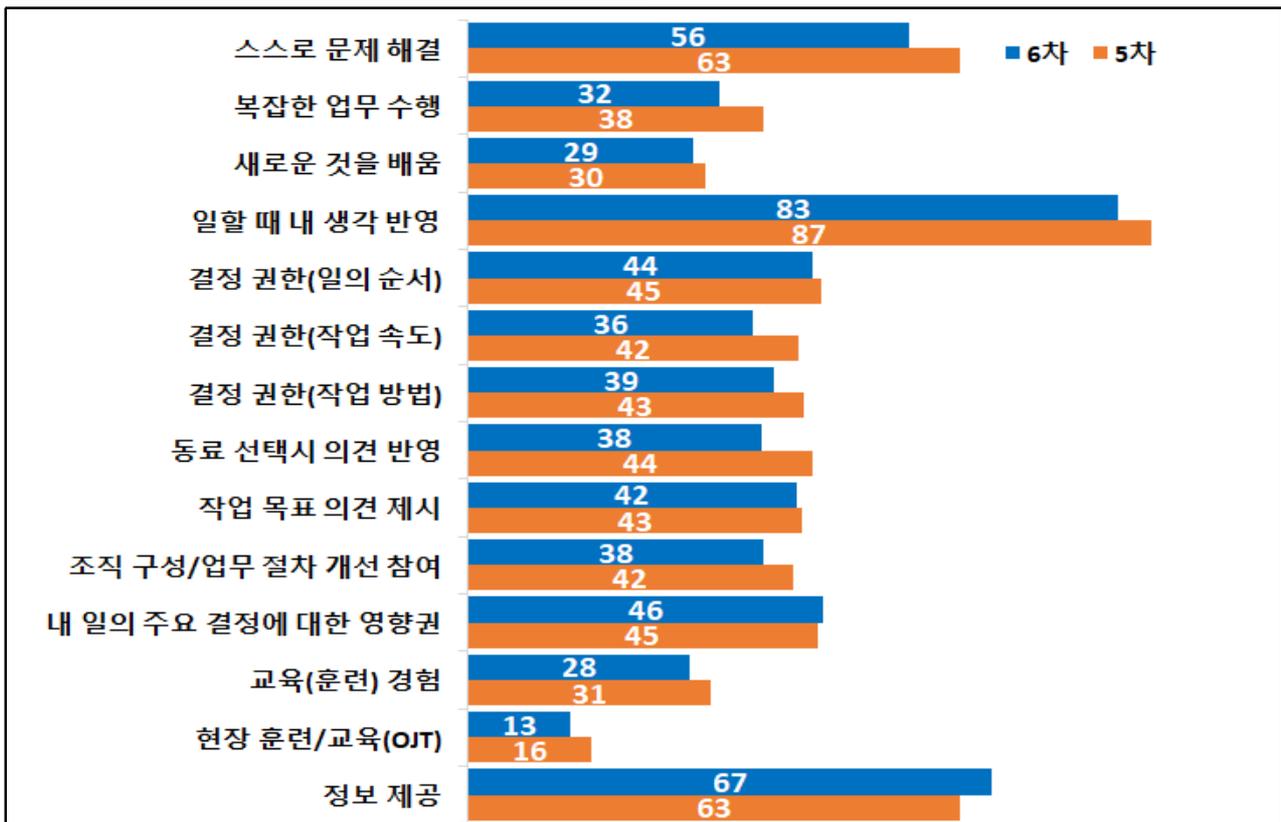
- ◆ 기술과 재량권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정보제공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감소
- ◆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83%)와 같이 일할 사람(동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경우(38%)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럽(2015년)보다 기술과 재량권이 낮은 편

- 기술과 재량권을 측정하는 5가지 항목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5차(2017년) 조사보다 감소
-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지적 활동은 모든 항목이 감소하여 창의적인 일보다는 일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의 순서, 작업 속도, 작업 방법 등 일에 대한 결정권 역시 모든 항목에서 감소
- 조직 참여 영역에서 부서·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절차 개선에 참여하는 항목은 감소하였으나
 - 작업 목표의 결정과 내가 하는 일의 중요 사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상승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받은 교육(훈련)과 동료나 작업관리자가 실시하는 현장 교육/훈련(OJT) 모두 감소
- 산업안전보건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증가
- 기술과 재량권 영역은 같이 일할 사람(동료)를 선택할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럽(2015년)보다 낮은 수준
 - 특히, 창의적인 지적 활동과 일의 순서, 속도, 방법을 결정하는 일의 결정권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표 5-1〉 기술과 재량권(%)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지적 활동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3	59	56	54	83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	38	41	32	35	63
	새로운 것을 배운다	30	32	29	30	72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항상/대부분/가끔 그렇다)	87	86	83	81	78
결정 권한	일의 순서	45	41	44	40	68
	작업 속도 또는 작업률	42	38	36	33	71
	작업 방법	43	39	39	36	69
	같이 일할 사람(동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항상/대부분 그렇다)	44	38	38	35	29
조직 참여	작업 목표가 결정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묻는다(항상/대부분 그렇다)	43	40	42	41	46
	부서,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절차 개선에 참여한다(항상/대부분 그렇다)	42	38	38	36	49
	내가 하는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렇다/대부분 그렇다)	45	38	46	41	47
교육/훈련	사업주가 제공, 비용을 대거나 스스로 비용을 지불한 교육(훈련) 경험	31	33	28	29	38
	동료나 작업 관리자의 현장 교육/훈련(OJT)	16	20	13	16	34
정보 제공	건강과 안전 관련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제공(매우 잘 받는다/잘 받는 편이다)	63	68	67	76	-

기술과 재량권(%)



1) 성별 기술과 재량권

◆ 남성의 기술과 재량권이 여성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여성 보다 보다 복잡한 일을 하고, 일의 순서 등 결정권도 높으며,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과 훈련도 더 많이 받으며,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역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 성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시 내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시 의견 반영
남성	61	37	31	85	46	39	41	41
여성	51	26	26	82	42	33	36	32

구 분	조직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교육(OJT)	
남성	46	42	49	32	14	69
여성	37	32	41	24	11	65

2) 연령별 기술과 재량권

- ◆ 30대와 40대가 기술과 재량권이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조직에서 40대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기회 역시 가장 많음
- ◆ 10대와 60대 이상이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적게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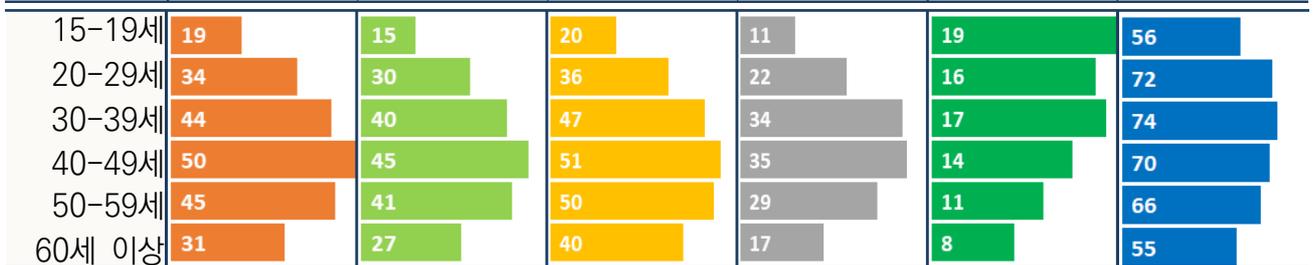
- 30대와 40대가 기술과 재량권이 높고, 10대가 낮게 나타남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지적 활동은 30대, 40대가 높았으며, 일에 대한 결정 권한은 60대 이상이 높음
- 10대의 경우 스스로 문제 해결(34%), 복잡한 업무 수행(8%)과 작업 속도의 결정 권한(24%) 등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아 단순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가 작업목표 결정(50%), 조직 구성이나 업무절차의 개선 참여(45%) 등에서 가장 높아, 조직에서 40대의 의견을 가장 많이 고려
- 교육(훈련)의 기회가 가장 많은 것도 40대(35%)가 가장 많고, 10대(11%)가 가장 적으며, 10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19%)을 통해 기술 습득
- 건강과 안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가장 잘 받는 것은 30대(74%)인 반면, 10대(56%)와 60대 이상(55%)이 낮게 나타남

〈표 5-3〉 연령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 시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 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 시 의견 반영
15-19세	34	8	24	62	39	24	31	15
20-29세	49	32	34	78	37	29	33	29
30-39세	60	43	40	86	45	37	39	39
40-49세	62	41	35	87	45	37	40	45
50-59세	58	31	25	85	44	37	39	41
60세 이상	50	14	11	80	47	40	43	27



구 분	조직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 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 /교육(OJT)	
15-19세	19	15	20	11	19	56
20-29세	34	30	36	22	16	72
30-39세	44	40	47	34	17	74
40-49세	50	45	51	35	14	70
50-59세	45	41	50	29	11	66
60세 이상	31	27	40	17	8	55



3) 종사상 지위별 기술과 재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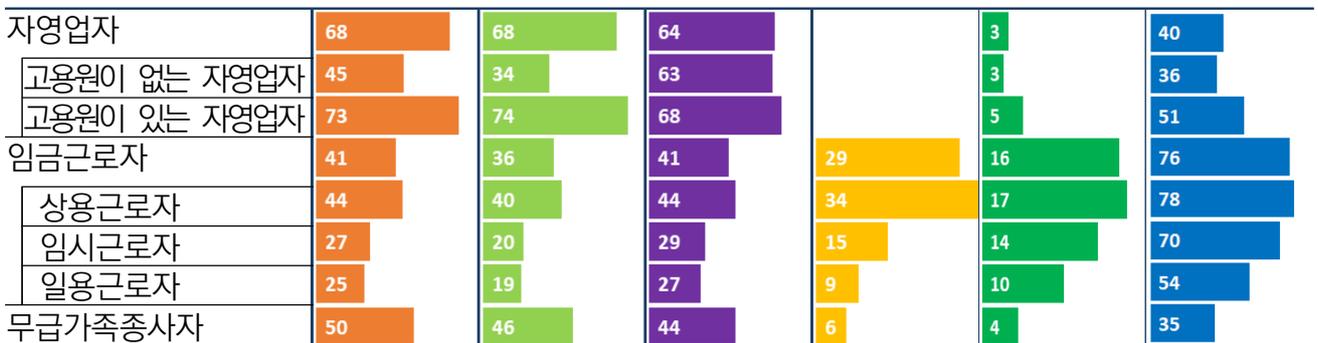
- ◆ 자영업자가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등 지적 활동, 일에 대한 결정 권한, 목표 결정 등 의견 반영 등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낮게 나타남
 - ◆ 교육(훈련)과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많이 받고 있음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등 지적 활동과 작업 목표 결정 등 조직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일에 대한 결정 권한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순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교육과 훈련은 자영업자의 경우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교육 기회가 많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5-4〉 종사상 지위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 시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 / 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 시 의견 반영
자영업자	66	25	24	92	56	48	51	7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	24	23	92	57	49	52	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9	30	28	95	54	45	49	74
임금근로자	54	35	30	81	40	33	36	35
상용근로자	58	41	35	84	42	34	37	39
임시근로자	39	12	13	70	36	28	32	21
일용근로자	38	19	13	64	32	30	31	20
무급가족종사자	52	16	19	88	54	46	47	50



구 분	조직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 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 /교육(OJT)	
자영업자	68	68	64	0	3	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5	34	63	0	3	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3	74	68	0	5	51
임금근로자	41	36	41	29	16	76
상용근로자	44	40	44	34	17	78
임시근로자	27	20	29	15	14	70
일용근로자	25	19	27	9	10	54
무급가족종사자	50	46	44	6	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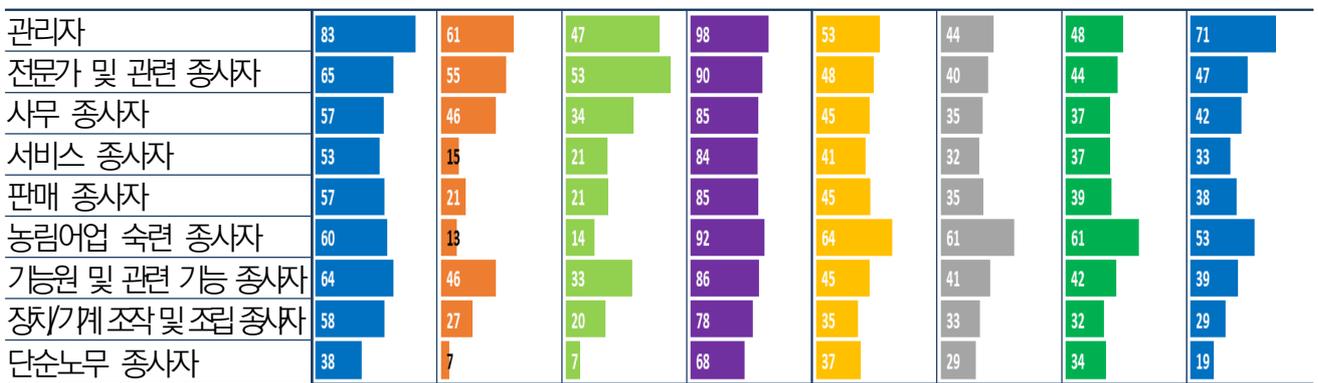
4) 직종별 기술과 재량권

- ◆ 관리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적 활동과 조직 구성이나 업무 절차에 참여하는 조직 참여, 교육/훈련에 기술과 재량권이 높게 나타남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일의 순서, 작업속도/작업률 등 업무 결정 권한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 단순노무 종사자는 인지차원, 결정권한, 조직참여에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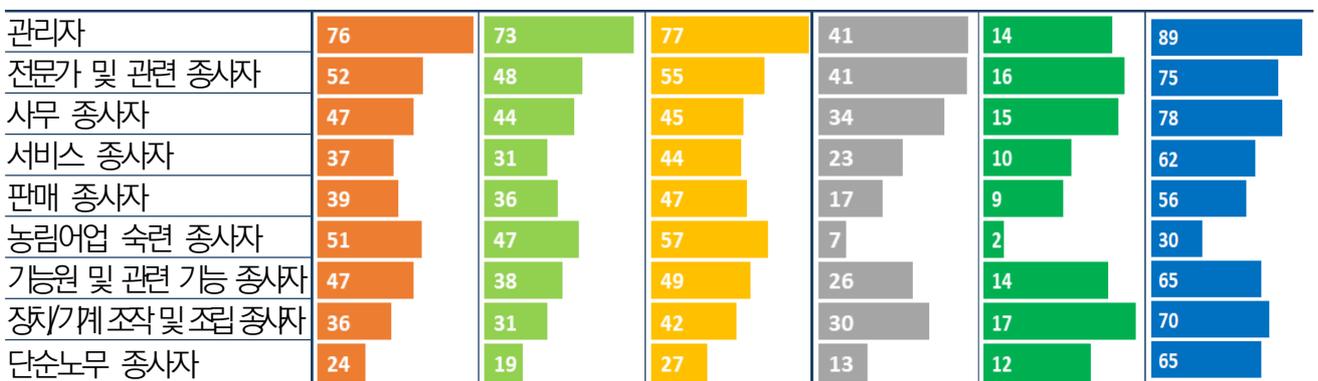
- 관리자는 스스로 문제 해결(83%), 복잡한 업무수행(61%)과 업무 시 생각 반영(98%)과 같이 지적 활동에서 높게 나타남
 - 지적 활동 중 새로운 것 배움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남(53%)
- 결정 권한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으로 높았으며,
 -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는 결정 권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직 참여는 관리자가 ‘작업 목표 결정전 나의 의견 물음(76%)’, ‘조직 구성이나 업무 절차 개선 참여(73%)’와 ‘내가 하는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침(77%)’에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단순노무 종사자는 조직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24%, 19%, 27%) 일에 있어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으로 교육/훈련 비율 높게 나타남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적게 받고 있으며, 관리자가 가장 많이 받고 있음

〈표 5-5〉 직종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 시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 / 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 시 의견 반영
관리자	83	61	47	98	53	44	48	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5	55	53	90	48	40	44	47
사무 종사자	57	46	34	85	45	35	37	42
서비스 종사자	53	15	21	84	41	32	37	33
판매 종사자	57	21	21	85	45	35	39	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0	13	14	92	64	61	61	5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4	46	33	86	45	41	42	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8	27	20	78	35	33	32	29
단순노무 종사자	38	7	7	68	37	29	34	19



구 분	조직참여			교육/훈련		안전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 /교육(OJT)	
관리자	76	73	77	41	14	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	48	55	41	16	75
사무 종사자	47	44	45	34	15	78
서비스 종사자	37	31	44	23	10	62
판매 종사자	39	36	47	17	9	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1	47	57	7	2	3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7	38	49	26	14	6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6	31	42	30	17	70
단순노무 종사자	24	19	27	13	1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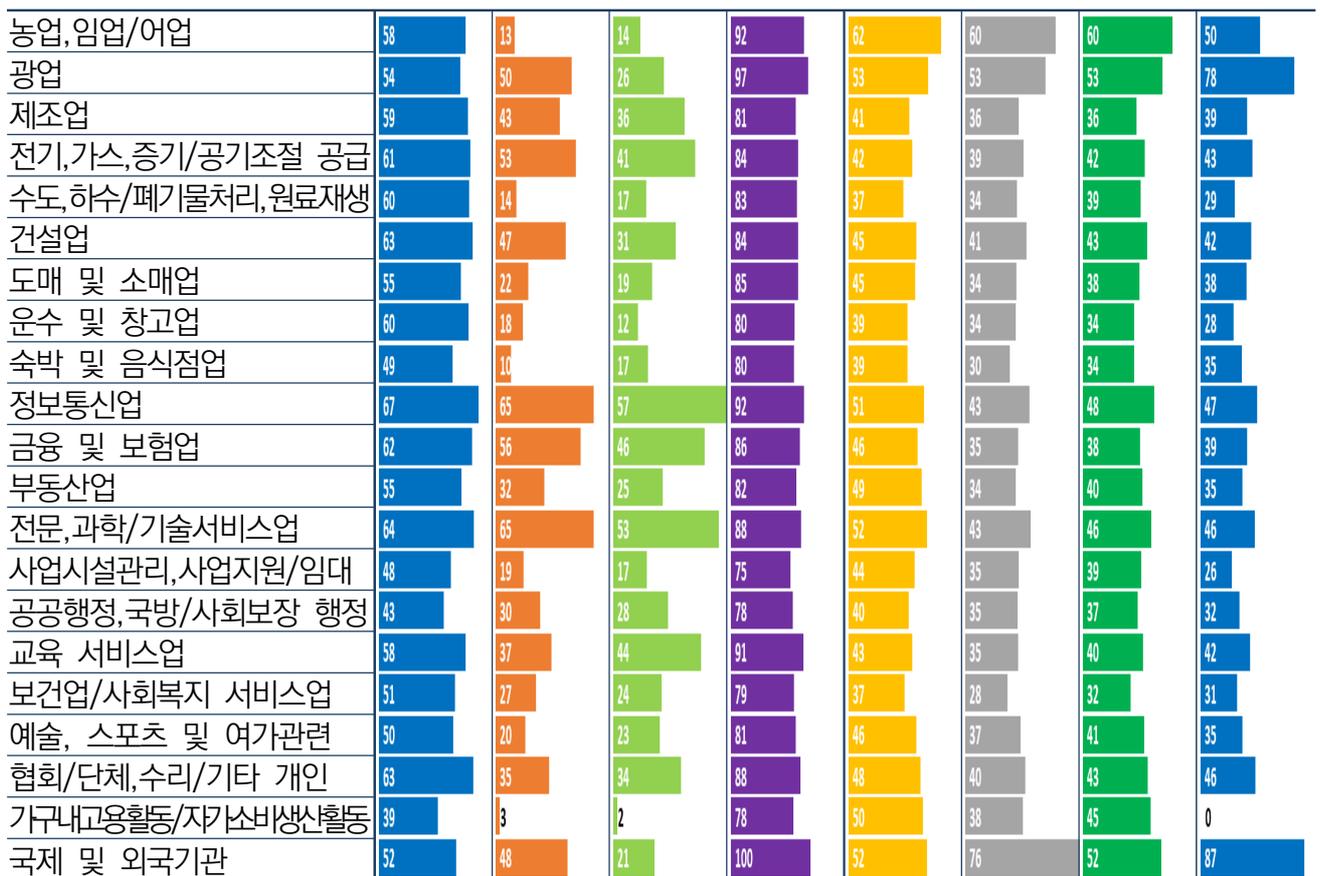


5) 업종별 기술과 재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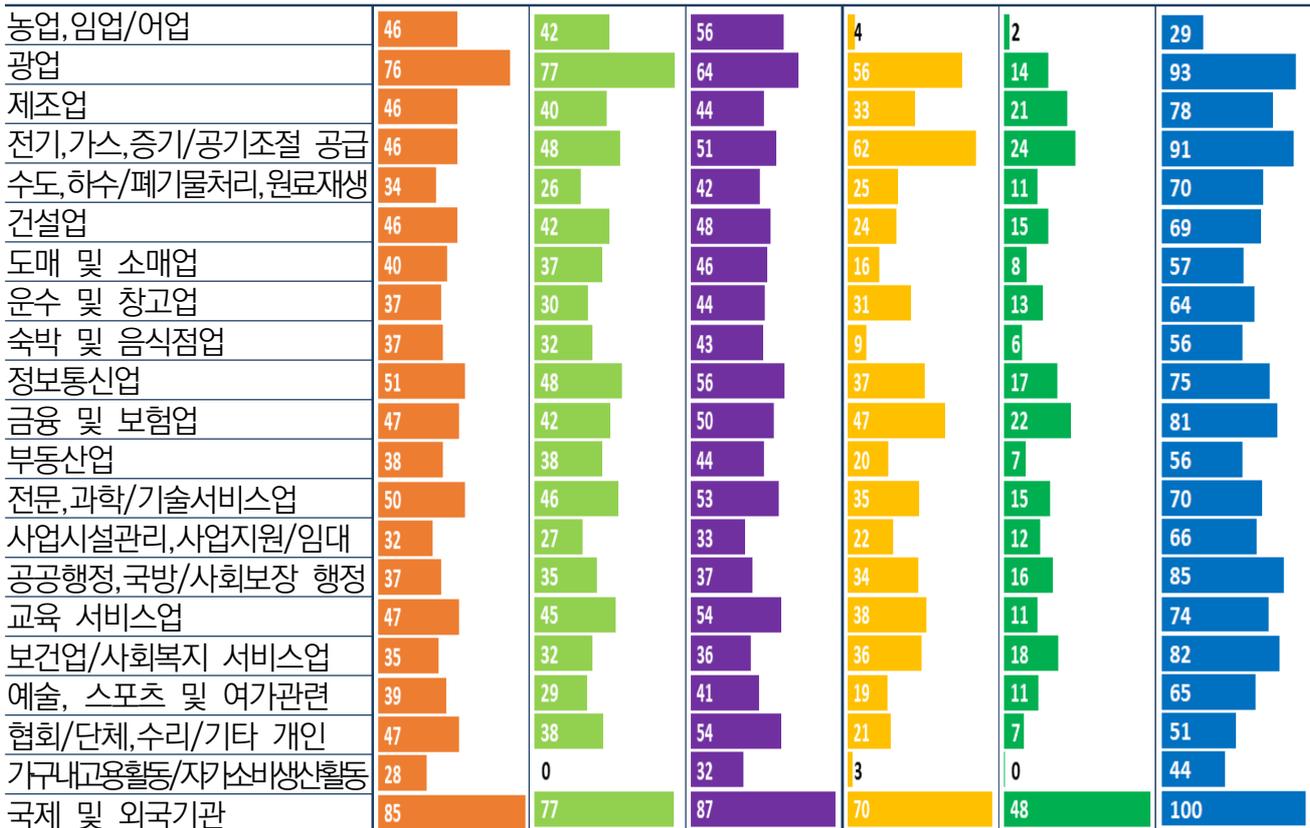
- ◆ 지적 활동과 조직 참여는 정보통신업, 결정권한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교육/훈련과 정보제공은 농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이 낮게 나타남
- 지적 활동과 조직 참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결정권한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일의 순서(62%), 작업방법(6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일의 순서(37%), 작업속도/작업률(28%)과 작업 방법(32%) 모두 가장 낮은 결정 권한을 가짐
 - 교육(훈련)과 현장 훈련(OJT)은 농업, 임업 및 어업(4%, 2%)과 숙박 및 음식점업(9%, 6%),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3%, 0%)의 경우 교육/훈련 기회가 무척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62%, 24%), 금융 및 보험업(47%, 22%)이 교육/훈련 기회가 많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농업, 임업 및 어업(29%)과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44%)이 낮은 수준이며, 금융 및 보험업(85%)이 높게 나타남

〈표 5-6〉 업종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 시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 도/ 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 시 의견 반영
농업,임업/어업	58	13	14	92	62	60	60	50
광업	54	50	26	97	53	53	53	78
제조업	59	43	36	81	41	36	36	3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	61	53	41	84	42	39	42	43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60	14	17	83	37	34	39	29
건설업	63	47	31	84	45	41	43	42
도매 및 소매업	55	22	19	85	45	34	38	38
운수 및 창고업	60	18	12	80	39	34	34	28
숙박 및 음식점업	49	10	17	80	39	30	34	35
정보통신업	67	65	57	92	51	43	48	47
금융 및 보험업	62	56	46	86	46	35	38	39
부동산업	55	32	25	82	49	34	40	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4	65	53	88	52	43	46	4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48	19	17	75	44	35	39	2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43	30	28	78	40	35	37	32
교육 서비스업	58	37	44	91	43	35	40	42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51	27	24	79	37	28	32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50	20	23	81	46	37	41	35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63	35	34	88	48	40	43	46
가구나고용활동/자카소비생산활동	39	3	2	78	50	38	45	0
국제 및 외국기관	52	48	21	100	52	76	52	87



구 분	조직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 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 /교육(OJT)	
농업,임업/어업	46	42	56	4	2	29
광업	76	77	64	56	14	93
제조업	46	40	44	33	21	7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	46	48	51	62	24	9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34	26	42	25	11	70
건설업	46	42	48	24	15	69
도매 및 소매업	40	37	46	16	8	57
운수 및 창고업	37	30	44	31	13	64
숙박 및 음식점업	37	32	43	9	6	56
정보통신업	51	48	56	37	17	75
금융 및 보험업	47	42	50	47	22	81
부동산업	38	38	44	20	7	5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0	46	53	35	15	7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32	27	33	22	12	6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37	35	37	34	16	85
교육 서비스업	47	45	54	38	11	74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35	32	36	36	18	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9	29	41	19	11	65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47	38	54	21	7	51
가구내고용활동/자가소비생산활동	28	0	32	3	0	44
국제 및 외국기관	85	77	87	70	48	100



〈표 5-7〉 기술과 재량권 [요약]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해결	복잡한 업무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 시 생각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 /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 의견반영
남성	61	37	31	85	46	39	41	41
여성	51	26	26	82	42	33	36	32
15-19세	34	8	24	62	39	24	31	15
20-29세	49	32	34	78	37	29	33	29
30-39세	60	43	40	86	45	37	39	39
40-49세	62	41	35	87	45	37	40	45
50-59세	58	31	25	85	44	37	39	41
60세 이상	50	14	11	80	47	40	43	27
자영업자	66	25	24	92	56	48	51	7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	24	23	92	57	49	52	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9	30	28	95	54	45	49	74
임금근로자	54	35	30	81	40	33	36	35
상용근로자	58	41	35	84	42	34	37	39
임시근로자	39	12	13	70	36	28	32	21
일용근로자	38	19	13	64	32	30	31	20
무급가족종사자	52	16	19	88	54	46	47	50
관리자	83	61	47	98	53	44	48	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5	55	53	90	48	40	44	47
사무 종사자	57	46	34	85	45	35	37	42
서비스 종사자	53	15	21	84	41	32	37	33
판매 종사자	57	21	21	85	45	35	39	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0	13	14	92	64	61	61	5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4	46	33	86	45	41	42	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8	27	20	78	35	33	32	29
단순노무 종사자	38	7	7	68	37	29	34	19
농업, 임업 및 어업	58	13	14	92	62	60	60	50
광업	54	50	26	97	53	53	53	78
제조업	59	43	36	81	41	36	36	39
전기, 가스, 증기 공급	61	53	41	84	42	39	42	4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60	14	17	83	37	34	39	29
건설업	63	47	31	84	45	41	43	42
도매 및 소매업	55	22	19	85	45	34	38	38
운수 및 창고업	60	18	12	80	39	34	34	28
숙박 및 음식점업	49	10	17	80	39	30	34	35
정보통신업	67	65	57	92	51	43	48	47
금융 및 보험업	62	56	46	86	46	35	38	39
부동산업	55	32	25	82	49	34	40	35
전문, 과학 및 기술	64	65	53	88	52	43	46	46
사업시설 관리, 자원, 임대업	48	19	17	75	44	35	39	26
공공행정, 국방	43	30	28	78	40	35	37	32
교육서비스업	58	37	44	91	43	35	40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51	27	24	79	37	28	32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50	20	23	81	46	37	41	35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63	35	34	88	48	40	43	46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39	3	2	78	50	38	45	0
국제 및 외국기관	52	48	21	100	52	76	52	87

구 분	조직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교육(OJT)	
남성	46	42	49	32	14	69
여성	37	32	41	24	11	65
15-19세	19	15	20	11	19	56
20-29세	34	30	36	22	16	72
30-39세	44	40	47	34	17	74
40-49세	50	45	51	35	14	70
50-59세	45	41	50	29	11	66
60세 이상	31	27	40	17	8	55
자영업자	68	68	64		3	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5	34	63		3	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3	74	68		5	51
임금근로자	41	36	41	29	16	76
상용근로자	44	40	44	34	17	78
임시근로자	27	20	29	15	14	70
일용근로자	25	19	27	9	10	54
무급가족종사자	50	46	44	6	4	35
관리자	76	73	77	41	14	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	48	55	41	16	75
사무 종사자	47	44	45	34	15	78
서비스 종사자	37	31	44	23	10	62
판매 종사자	39	36	47	17	9	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1	47	57	7	2	3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7	38	49	26	14	6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6	31	42	30	17	70
단순노무 종사자	24	19	27	13	0	65
농업, 임업 및 어업	46	42	56	4	2	29
광업	76	77	64	56	14	93
제조업	46	40	44	33	21	78
전기, 가스, 증기 공급	46	48	51	62	24	9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34	26	42	25	11	70
건설업	46	42	48	24	15	69
도매 및 소매업	40	37	46	16	8	57
운수 및 창고업	37	30	44	31	13	64
숙박 및 음식점업	37	32	43	9	6	56
정보통신업	51	48	56	37	17	75
금융 및 보험업	47	42	50	47	22	81
부동산업	38	38	44	20	7	56
전문, 과학 및 기술	50	46	53	35	15	70
사업시설 관리, 자원, 임대업	32	27	33	22	12	66
공공행정, 국방	37	35	37	34	16	85
교육서비스업	47	45	54	38	11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35	32	36	36	18	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9	29	41	19	11	65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47	38	54	21	7	51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28	0	32	3	0	44
국제 및 외국기관	85	77	87	70	48	100

(6) 직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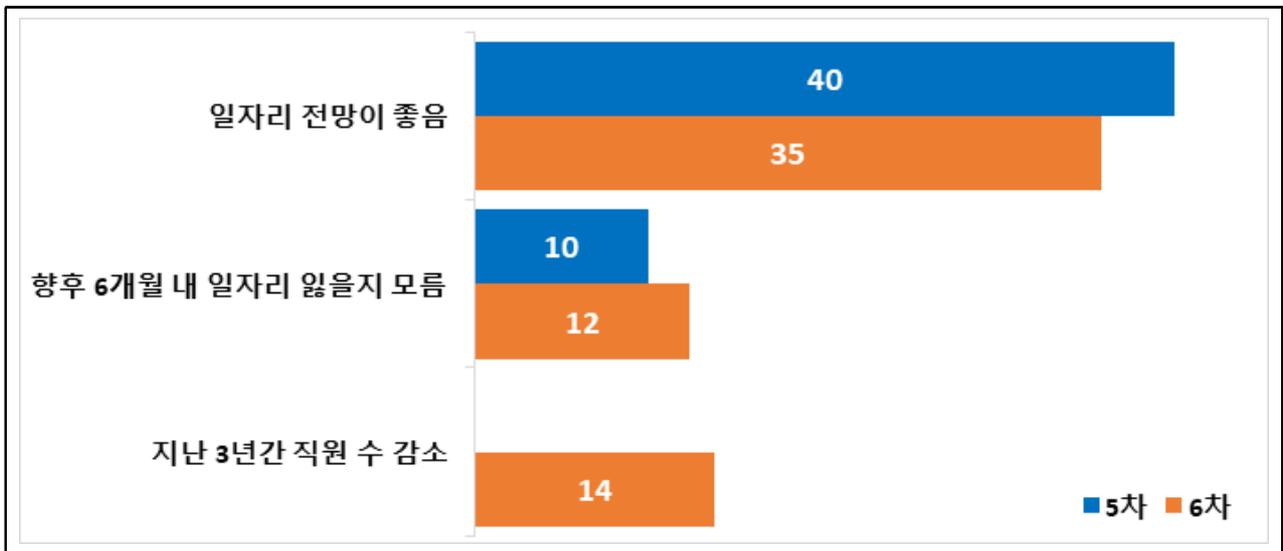
- ◆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
- ◆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직업 전망을 좋게 보는 취업자는 13% 감소, 6개월 안에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취업자가 20% 증가

- 제5차(2017년) 조사와 비교할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증가
-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취업자의 35%, 임금근로자의 38%가 응답, 제5차(2107년) 조사 대비 각각 13%, 10% 감소
- 향후 6개월 안에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취업자의 12%, 임금근로자의 13%로 제5차(2107년) 조사 대비 각각 20%, 18% 증가
- 자신이 일하는 직장(사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직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14%

〈표 6-1〉 직업의 전망(%)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2015년 EWCS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	-	16	-	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	-	5	-	5
	상용 근로자 * EWCS; indefinite contract	63	-	62	-	67
	임시 근로자 * EWCS: fixed-term or temporary contract	11	-	13	-	10
	일용 근로자 * EWCS: other or no contract	4	-	5	-	8
직업 전망	나의 일자리는 전망이 좋다	40	42	35	38	39
직업 안전성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 지도 모른다	10	11	12	13	16
사업장 규모 감소	내가 일하는 직장(사업체)은 지난 3년 동안 직원 수가 감소했다 [2020년 신규 문항]	-	-	14	1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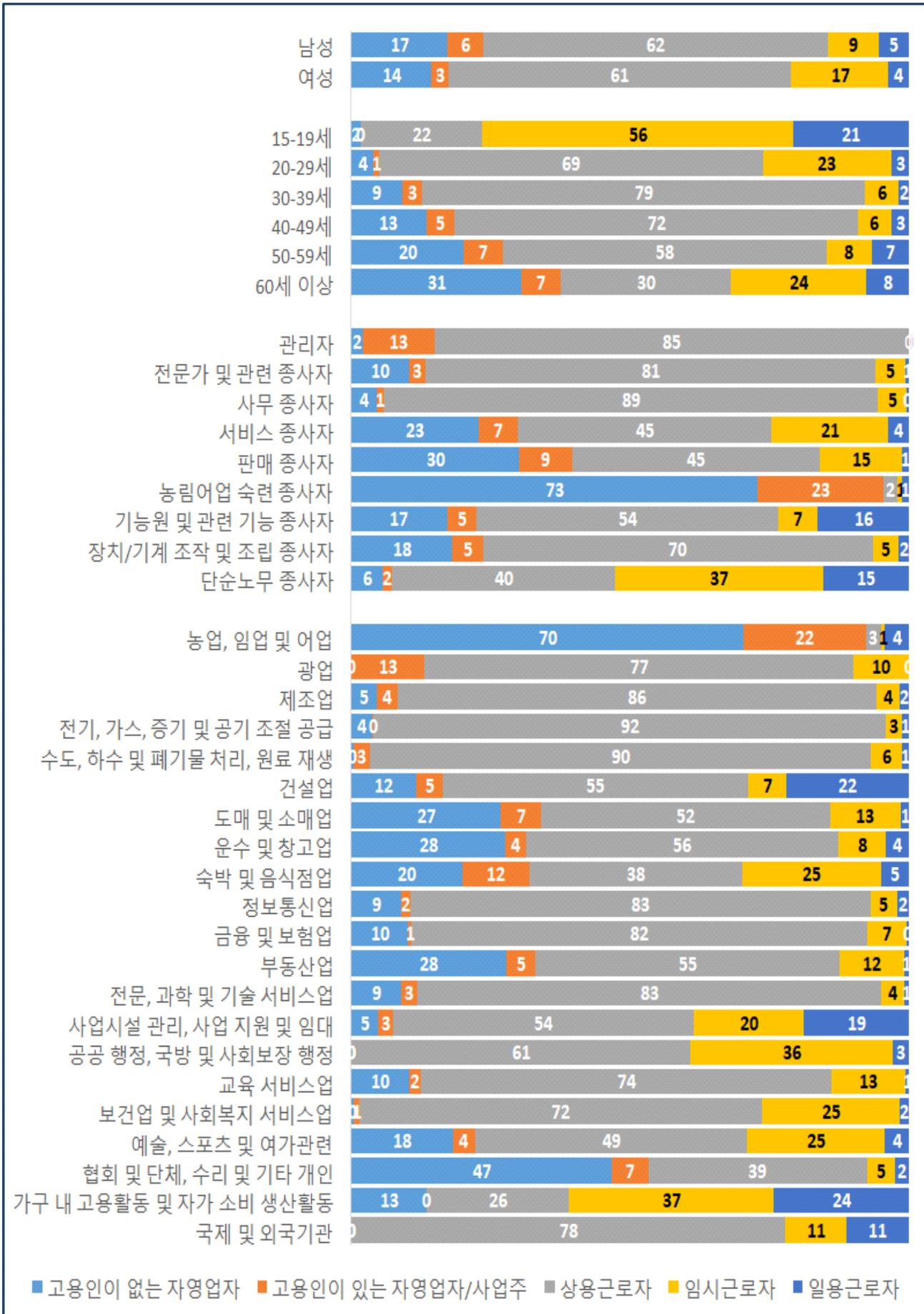
직업 전망(%)



1) 집단별 종사상 지위 분포

- 자영업자 비율은 남성 23%, 여성 17%로 남성이 높고, 임시·일용근로자는 남성 14%, 여성 21%로 여성이 높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율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30대 8%, 40대 9%, 50대 15%, 20대 26%, 60대 32%, 10대 77% 순으로 적음
- 자영업자는 농업, 어업 숙련종사자(96%), 판매종사자(39%), 서비스종사자(30%) 순으로 많고, 임시·일용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52%), 서비스종사자(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3%) 순으로 많음
- 업종별로 자영업자는 농업, 임업 및 어업(92%), 협회 및 단체, 기타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54%), 도매 및 소매업(34%) 순으로 많고
 - 임시·일용근로자는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9%) 순으로 비율이 높음
 - 일용근로자 만을 보면,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24%)과 건설업(22%)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6-2〉 집단별 종사상 지위 분포(%)



2) 성별 직업 전망

◆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 전망과 직업 안정성을 부정적으로 판단

- 남성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과 직업 안전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 실질적으로 구조조정과 같은 사업장의 규모 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경험함
- 자신의 일자리 전망이 좋다는 직업 전망 항목은 남성이 36%, 여성이 34%로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함
- 향후 6개월 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직업 안전성은 남성 11%, 여성 13%로 응답하여 여성이 안전성이 낮게 나타남
- 제6차 조사에 신규 신설된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여부를 묻는 사업장 규모 감소 항목은 남성이 15%로 여성 12%보다 높게 응답

〈표 6-3〉 성별 직업 전망(%)

구 분	직업 전망	직업 안전성	사업장 규모 감소
	일자리 전망 좋음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남성	36	11	15
여성	34	13	12

남성	36	11	15
여성	34	13	12

3) 연령별 직업 전망

- ◆ 직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은 30대, 40대로 나타남
- ◆ 구조조정과 같은 사업장 규모 감소는 40대와 50대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 30대는 직업의 전망 항목 전반에 걸쳐 다른 연령대 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 직업의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일자리 전망이 좋다는 직업 전망 항목은 30대가 44%로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40대(40%), 20대(39%) 순으로 나타남
- 향후 6개월 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직업 안전성은 10대, 20대, 60대가 모두 14%로 응답하였으며,
 - 동일하게 30대, 40대, 50대 응답도 모두 11%로 응답
- 구조조정과 같은 사업장 규모 감소에 대한 질문에 40대와 50대가 모두 16%정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0대가 13%로 나타남
- 30대는 직업의 전망 항목 전반에 걸쳐 다른 연령대 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 직업의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표 6-4〉 연령별 직업 전망(%)

구 분	직업 전망	직업 안전성	사업장 규모 감소
	일자리 전망 좋음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15-19세	27	14	6
20-29세	39	14	11
30-39세	44	11	13
40-49세	40	11	16
50-59세	34	11	16
60세 이상	21	14	10

4) 종사상 지위별 직업의 전망(%)

- ◆ 일자리 전망과 직업 안전성 모두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 임시·일용근로자가 일자리 전망과 직업 안전성 모두 나쁘게 전망

- 상용 근로자(4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5%), 임시근로자(25%), 일용근로자(16%) 순으로 자신의 일자리 전망이 좋다고 생각
- ‘향후 6개월 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역시 일자리 전망과 같은 순서로 직업의 안전성을 인식
-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의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9%)가 가장 많이 경험

〈표 6-5〉 종사상 지위별 직업 전망(%)

구 분	직업 전망	직업 안전성	사업장 규모 감소
	일자리 전망 좋음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자영업자	27	10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	9	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5	10	19
임금근로자	38	13	14
상용근로자	43	10	15
임시근로자	25	21	10
일용근로자	16	22	14
무급가족종사자	21	11	8

자영업자	27	10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	9	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5	10	19
임금근로자	38	13	14
상용근로자	43	10	15
임시근로자	25	21	10
일용근로자	16	22	14
무급가족종사자	21	11	8

5) 직종별 직업의 전망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직업 전망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가 가장 나쁘게 인식
- ◆ 직업 안전성 면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타직종에 비해 최하위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52%가 자신의 일자리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9%만이 좋다고 생각
- 단순노무 종사자의 17%가 향후 6개월 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 반면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는 4% 수준으로 가장 낮음
- 지난 3년간 사업장 규모 감소를 가장 많이 경험한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17%가 경험

〈표 6-6〉 직종별 직업 전망(%)

구 분	직업 전망	직업 안전성	사업장 규모 감소
	일자리 전망 좋음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관리자	52	10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	11	14
사무 종사자	45	12	14
서비스 종사자	32	13	14
판매 종사자	27	12	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	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3	12	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9	17
단순노무 종사자	21	17	10

6) 업종별 직업의 전망

- ◆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직업 전망(62%)과 직업 안전성(9%)을 긍정적으로 인식, 사업장 규모 감소 경험(8%)도 적음
 - ◆ 광업(21%), 제조업(21%), 금융 및 보험업(20%)이 사업장 규모 감소 경험이 가장 높음
- 자신의 일자리 전망이 좋다는 직업 전망 항목은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이 62%로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정보통신업(57%),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53%), 교육서비스업(48%) 순으로 나타남
 - 가구내 고용활동/자가소비 생산활동은 12%로 자신의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 ‘향후 6개월 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이 21%로 가장 높고,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가 4%로 가장 낮음
 - 구조조정과 같은 사업장 규모 감소에 대한 질문에 광업과 제조업이 각각 21%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 금융 및 보험업(20%), 숙박 및 음식점업(18%), 건설업(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17%) 순으로 나타남
 -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은 직업 전망(62%)과 직업 안전성(9%)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 감소 경험(8%)도 낮게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일자리의 전망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직원 수 감소를 경험(20%)한 상위 업종에 해당

〈표 6-7〉 업종별 직업 전망(%)

구 분	직업 전망	직업 안전성	사업장 규모 감소
	일자리 전망 좋음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농업,임업/어업	18	4	7
광업	15	0	21
제조업	37	10	2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	62	9	8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35	10	14
건설업	35	14	17
도매 및 소매업	29	11	13
운수 및 창고업	26	10	12
숙박 및 음식점업	25	14	18
정보통신업	57	10	16
금융 및 보험업	47	13	20
부동산업	31	13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3	13	1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25	14	1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43	21	2
교육 서비스업	48	14	11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42	12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0	16	17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36	13	11
가구내고용활동/자가소비생산활동	12	7	0
국제 및 외국기관	25	17	13

농업,임업/어업	18	4	7
광업	15	0	21
제조업	37	10	2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	62	9	8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35	10	14
건설업	35	14	17
도매 및 소매업	29	11	13
운수 및 창고업	26	10	12
숙박 및 음식점업	25	14	18
정보통신업	57	10	16
금융 및 보험업	47	13	20
부동산업	31	13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3	13	1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25	14	1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43	21	2
교육 서비스업	48	14	11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42	12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0	16	17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36	13	11
가구내고용활동/자가소비생산활동	12	7	0
국제 및 외국기관	25	17	13

〈표 6-8〉 직업 전망(%) [요약]

구 분	직업 전망	직업 안전성	사업장 규모 감소
	일자리 전망 좋음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남성	36	11	15
여성	34	13	12
15-19세	27	14	6
20-29세	39	14	11
30-39세	44	11	13
40-49세	40	11	16
50-59세	34	11	16
60세 이상	21	14	10
자영업자	27	10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	9	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5	10	19
임금근로자	38	13	14
상용근로자	43	10	15
임시근로자	25	21	10
일용근로자	16	22	14
무급가족종사자	21	11	8
관리자	52	10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	11	14
사무 종사자	45	12	14
서비스 종사자	32	13	14
판매 종사자	27	12	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	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3	12	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9	17
단순노무 종사자	21	17	10
농업, 임업 및 어업	18	4	7
광업	15	0	21
제조업	37	10	21
전기, 가스, 증기 공급	62	9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35	10	14
건설업	35	14	17
도매 및 소매업	29	11	13
운수 및 창고업	26	10	12
숙박 및 음식점업	25	14	18
정보통신업	57	10	16
금융 및 보험업	47	13	20
부동산업	31	13	8
전문, 과학 및 기술	53	13	14
사업시설 관리, 자원, 임대업	25	14	13
공공행정, 국방	43	21	2
교육서비스업	48	14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42	12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0	16	17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36	13	11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12	7	0
국제 및 외국기관	25	17	13

(7)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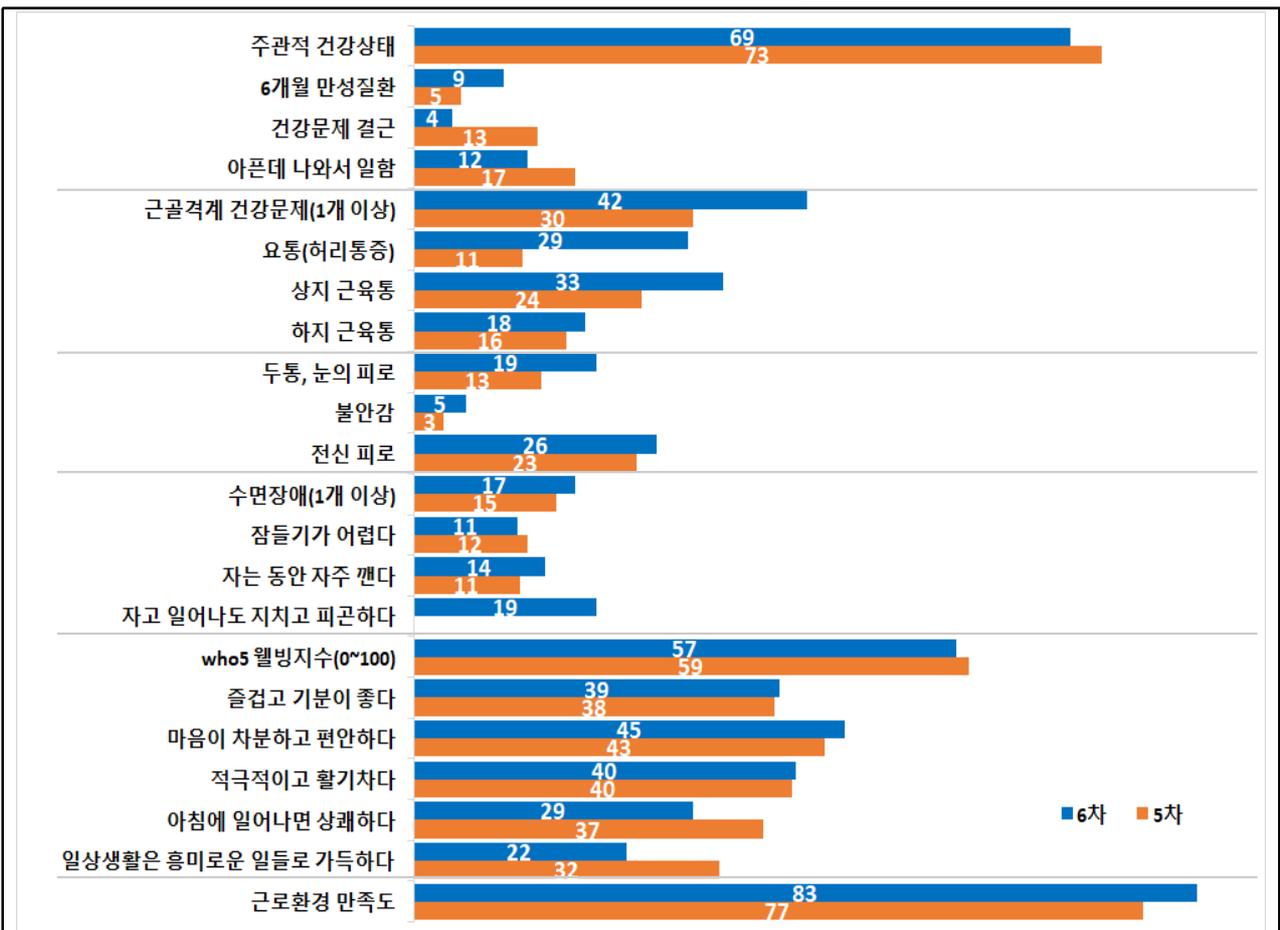
-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계 관련 증상, 두통, 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 지수 모두 제5차 조사(2017년)보다 나빠진 상태로 나타남
- ◆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8% 향상

-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 응답한 경우는 취업자의 69%, 임금근로자의 72%로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모두 5% 감소
-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이나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는 9%, 임금근로자는 8%로,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각각 80%, 100% 증가
- 지난 1년간 건강문제로 결근을 한 경우와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우는 취업자, 임금근로자 모두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감소
-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취업자 40%, 임금근로자 46% 증가, 특히 요통(허리통증)이 크게 증가
 - * 상지: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 ** 하지: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 두통, 눈의 피로, 전신 피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역시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취업자, 임금근로자 모두 13%~46% 증가
-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동안 자주 깨는 경우 등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는 취업자에서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13% 증가
- WHO-5 웰빙 지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취업자 57점, 임금근로자 58점으로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모두 3%씩 감소
 - * WHO-5 웰빙 지수 :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에 고안한 지수로 주관적인 심리학적 복지를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문지 중 하나로, 주로 우울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 일반적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하이면 우울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논문에 따라 28점을 우울증으로 제시하기도 함)
- 근로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취업자의 83%, 임금근로자의 84%로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모두 8% 향상

〈표 7-1〉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73	76	69	72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문제) 있음	5	4	9	8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는 경우	13	12	4	4
	지난 1년간 몸이 아픈 데도 나와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17	15	12	11
	근골격계 건강 문제(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30	26	42	38
	요통	11	9	29	26
	상지 근육통	24	21	33	29
	하지 근육통	16	13	18	15
	두통, 눈의 피로	13	13	19	19
	불안감	3	3	5	5
전신피로	23	21	26	24	
수면 장애	수면 장애(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15	15	17	15
	잠들기 어렵다	12	11	11	10
	자는 동안 자주 깬다	11	11	14	13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하다	-	-	19	18
WHO -5 웰빙 지수	WHO-5 웰빙 지수	59	60	57	58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다	38	40	39	40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다	43	45	45	47
	나는 적극적이고 활기차다	40	42	40	42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푹 쉬었다는 느낌이 든다	37	39	29	30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32	34	22	23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매우 만족 한다/만족 한다)		77	78	83	84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2) 성별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 ◆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71%, 여성은 67%, 그 외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문제, 수면 장애 등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71%, 여성은 67%
-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문제(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가 있는 경우도 남성은 39%인 반면 여성은 45%로 더 많음
-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경우 역시 남성은 15%인 반면, 여성은 19%로 더 많음
- 그 외 만성질환, 두통, 눈의 피로, 전신 피로를 느끼는 경우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
- 반면, 여성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5%(남성 6%), WHO-5 웰빙지수 58점(남성 57점), 근로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86%(남성 81%)에서 남성보다 좋게 나타남

〈표 7-2〉 성별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구 분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 문제	두통, 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 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남성	71	9	39	19	6	25	15	57	81
여성	67	10	45	20	5	26	19	58	86

구 분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 문제	두통, 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 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남성	71	9	39	19	6	25	15	57	81
여성	67	10	45	20	5	26	19	58	86

3) 연령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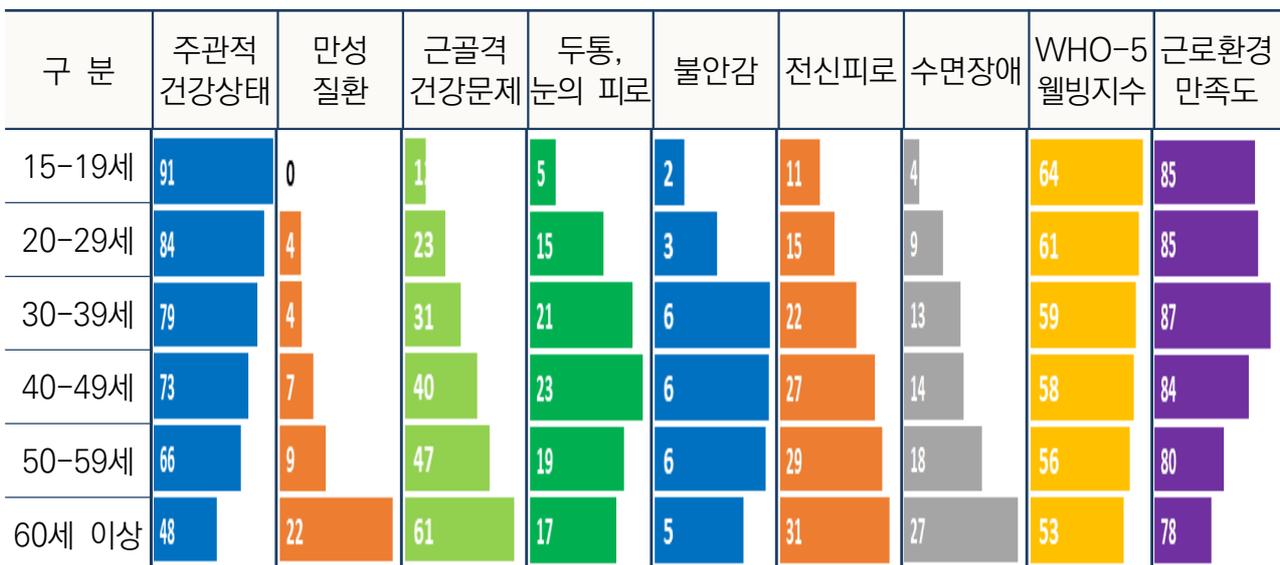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좋은 상태를 나이가 많을수록 나쁜 상태를 나타냄

○ 다만, 근로환경 만족도는 30대가 87%로 가장 높으며, 30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아지거나 적어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7-3〉 연령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구 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문제	두통, 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15-19세	91	0	12	5	2	11	4	64	85
20-29세	84	4	23	15	3	15	9	61	85
30-39세	79	4	31	21	6	22	13	59	87
40-49세	73	7	40	23	6	27	14	58	84
50-59세	66	9	47	19	6	29	18	56	80
60세 이상	48	22	61	17	5	31	27	53	78



4) 종사상 지위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 ◆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며,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남
- ◆ 일용근로자가 주관적 건강상태(58%) 등 건강상태가 가장 나쁘고,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역시 가장 낮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불안감(7%), WHO-5 웰빙지수(54점), 근로환경 만족도(78%)에서 가장 나쁘게 나타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신 피로(33%), 수면 장애(21%)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는 두통, 눈의 피로(21%)는 가장 많았지만, 그 외 주관적 건강상태(74%) 등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으며, WHO-5 웰빙지수 59점, 근로환경 만족도 86%로 역시 가장 높음
-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건강문제에서 가장 나쁘고, 일용근로자는 WHO-5 웰빙지수 (51점)와 근로환경 만족도(59%) 역시 가장 낮음

〈표 7-4〉 종사상 지위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구 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문제	두통, 눈의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자영업자	62	13	52	20	7	32	20	55	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1	13	52	20	7	31	20	54	7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6	12	52	18	6	33	21	57	83
임금근로자	72	8	38	19	5	24	15	58	84
상용근로자	74	7	36	21	5	24	15	59	86
임시근로자	65	12	42	13	4	22	19	57	84
일용근로자	58	14	58	14	6	32	18	51	59
무급가족종사자	57	16	55	14	6	28	25	56	80

5) 직종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 ◆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자, 가장 나쁜 직종은 농업, 어업 숙련 종사자로 나타남

- 농업, 어업 숙련 종사자가 주관적 건강상태(44%), 만성질환(31%),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문제(75%), 전신피로(36%), 수면장애(31%), WHO-5 웰빙지수 51점으로 9가지 항목 중 6가지 항목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단순노무 종사자는 두통, 눈의 피로(12%)는 가장 좋게 나타났으나, 주관적 건강상태(58%), 만성질환(15%) 등 전반적으로 나쁜 편이며, WHO-5 웰빙지수(53점)와 근로환경 만족도(74%) 역시 낮음
- 근로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3%)로, 두통, 눈의 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26%) 가장 많음
- 관리자가 주관적 건강상태(78%), 근로환경 만족도(92%) 등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표 7-5〉 직종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구 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문제	두통, 눈의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관리자	78	10	26	23	3	18	16	62	9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	6	32	26	6	23	14	61	91
사무 종사자	78	5	27	24	6	20	14	59	91
서비스 종사자	68	9	48	14	5	28	17	58	82
판매 종사자	76	5	31	13	5	21	14	59	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4	31	75	18	5	36	31	51	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7	9	51	16	5	30	15	56	73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4	11	51	23	6	31	18	55	74
단순노무 종사자	58	15	53	12	4	28	21	53	74

6) 업종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 및 창고업 순으로 건강 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주관적 건강상태(44%), 만성질환(31%), 근골격계 질환 관련 건강문제(73%), 수면장애(30%), WHO-5 웰빙지수(51점)에서 가장 나쁘게 나타남
- 운수 및 창고업은 불안감(10%), 전신피로(37%)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수면장애(18%)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나쁜 편
- 근로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61%)이고, 두통, 눈의 피로 문제는 정보통신업(36%)이 가장 많이 경험
-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는 WHO-5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62점)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62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WHO-5 웰빙 지수 외에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문제(22%), 수면 장애(12%), 근로환경 만족도 (93%)에서도 가장 좋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78%)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8%)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만성질환(4%)과 전신피로 (14%)에서 가장 좋게 나타남
- 불안감이 가장 적은 업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이지만, 우울증과 관련된 WHO-5 웰빙 지수(54점),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문제(60%)는 나쁜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7-6〉 업종별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구 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문제	두통, 눈의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농업, 임업 및 어업	44	31	73	17	5	35	30	51	75
광업	83	13	35	21	6	17	46	60	90
제조업	71	7	39	22	5	25	15	57	8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75	5	22	13	3	20	12	62	9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71	7	48	18	4	34	13	54	61
건설업	70	8	46	16	6	28	14	56	73
도매 및 소매업	75	6	33	14	5	22	14	58	84
운수 및 창고업	65	11	53	27	10	37	18	55	69
숙박 및 음식점업	72	7	42	10	5	25	15	58	81
정보통신업	76	6	38	36	8	26	15	60	89
금융 및 보험업	78	6	31	27	9	21	16	61	94
부동산업	73	6	28	15	5	18	15	57	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	7	31	29	6	22	15	60	9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62	11	49	15	4	27	18	54	7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62	16	43	23	7	23	23	57	92
교육 서비스업	77	7	31	21	6	20	13	62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5	12	45	18	5	28	21	58	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77	4	23	11	3	14	13	59	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67	9	53	19	5	28	19	57	8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66	12	60	8	2	27	15	54	85
국제 및 외국기관	87	0	28	11	0	46	0	54	100



〈표 7-7〉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요약]

구 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 건강문제	두통, 눈의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	수면 장애	WHO-5 웰빙지수	근로환경 만족도
남성	71	9	39	19	6	25	15	57	81
여성	67	10	45	20	5	26	19	58	86
15-19세	91	0	1	5	2	11	4	64	85
20-29세	84	4	23	15	3	15	9	61	85
30-39세	79	4	31	21	6	22	13	59	87
40-49세	73	7	40	23	6	27	14	58	84
50-59세	66	9	47	19	6	29	18	56	80
60세 이상	48	22	61	17	5	31	27	53	78
자영업자	62	13	52	20	7	32	20	55	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1	13	52	20	7	31	20	54	7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6	12	52	18	6	33	21	57	83
임금근로자	72	8	38	19	5	24	15	58	84
상용근로자	74	7	36	21	5	24	15	59	86
임시근로자	65	12	42	13	4	22	19	57	84
일용근로자	58	14	58	14	6	32	18	51	59
무급가족종사자	57	16	55	14	6	28	25	56	80
전문가 및 관리자	78	10	26	23	3	18	16	62	92
관련 종사자	77	6	32	26	6	23	14	61	91
사무 종사자	78	5	27	24	6	20	14	59	91
서비스 종사자	68	9	48	14	5	28	17	58	82
판매 종사자	76	5	31	13	5	21	14	59	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4	31	75	18	5	36	31	51	7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67	9	51	16	5	30	15	56	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4	11	51	23	6	31	18	55	74
단순노무 종사자	58	15	53	12	4	28	21	53	74
농업, 임업 및 어업	44	31	73	17	5	35	30	51	75
광업	83	13	35	21	6	17	46	60	90
제조업	71	7	39	22	5	25	15	57	83
전기, 가스, 증기 공급	75	5	22	13	3	20	12	62	9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71	7	48	18	4	34	13	54	61
건설업	70	8	46	16	6	28	14	56	73
도매 및 소매업	75	6	33	14	5	22	14	58	84
운수 및 창고업	65	11	53	27	10	37	18	55	69
숙박 및 음식점업	72	7	42	10	5	25	15	58	81
정보통신업	76	6	38	36	8	26	15	60	89
금융 및 보험업	78	6	31	27	9	21	16	61	94
부동산업	73	6	28	15	5	18	15	57	89
전문, 과학 및 기술	78	7	31	29	6	22	15	60	90
사업시설 관리, 자원, 임대업	62	11	49	15	4	27	18	54	73
공공행정, 국방	62	16	43	23	7	23	23	57	92
교육서비스업	77	7	31	21	6	20	13	62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65	12	45	18	5	28	21	58	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77	4	23	11	3	14	13	59	83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67	9	53	19	5	28	19	57	82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66	12	60	8	2	27	15	54	85
국제 및 외국기관	87	0	28	11	0	46		54	100

(8) 기타 : 기술 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 취업자의 10%, 임금근로자의 12% 정도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인식
- ◆ 기술진보, 자동화 등으로 인해 미래에 자신이 하는 일에 미칠 영향에서 취업자의 60%가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가장 걱정

- 취업자가 약 10%, 임금근로자가 약 12% 정도가 새로운 정보 통신 기기의 도입 또는 이로 인한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인식
- 취업자의 39%, 임금근로자의 42%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일하고 있으며
 -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을 할당하고 그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취업자의 6%, 임금근로자의 7%로 나타남
- * 물류창고 주문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창고에서 출하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호출 시 택시기사 자동 배정,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고객들이 햄버거 등을 화면으로 주문하면 전산 주문에 따라 햄버거를 만드는 경우 등을 말함
- 기술진보와 자동화 등으로 인해 미래에 자신이 하는 일에 미칠 영향에서 취업자의 60%, 임금근로자의 57%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1〉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구 분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기술 도입/변화	새로운 정보 통신 기기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 여부	9	11
	새로운 작업 방식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 여부	10	12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 여부	11	12
ICT 기기 사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함	39	42
	기타 인터넷 접속 또는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기기(장비, 기계)를 사용하여 일함	26	27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당되는 일을 함	6	7
기술진보/자동화에 따른 걱정 (매우걱정/걱정됨)	나의 발언권이 줄어드는 상황	29	29
	나의 기술과 업무 능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34	34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60	57
	조직에서 나의 뜻과 달리 흥미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	34	35
	나의 뜻과 달리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상황	35	35

1) 성별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남성이 여성보다 기술 도입과 변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많고, 기술진보에 따른 자신의 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더 많이 걱정

구 분	기술 도입/변화			ICT 기기 사용			기술 진보의 영향과 걱정				
	정보통신기기	작업방식	제품/서비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기기 사용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 할당	발언권 감소	기술, 업무능력 활용 어려움	수입 감소	흥미없는 업무 수행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
남성	11	13	13	39	27	7	30	35	61	35	35
여성	7	7	8	39	23	5	27	33	60	34	35

2) 연령별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기술 도입과 변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은 30대가 가장 많음
- 기술진보에 따른 미래 자신의 일에 대한 걱정은 전반적으로 40대가 가장 많으며,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연령이 높을수록 커짐

구 분	기술 도입/변화			ICT 기기 사용			기술 진보의 영향과 걱정				
	정보통신기기	작업방식	제품/서비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기기 사용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 할당	발언권 감소	기술, 업무능력 활용 어려움	수입 감소	흥미없는 업무 수행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
15-19세	5	5	6	19	25	1	15	19	35	27	26
20-29세	7	8	9	43	29	7	30	34	54	36	35
30-39세	14	15	17	50	31	7	30	36	57	37	37
40-49세	13	15	14	43	28	7	32	37	60	37	37
50-59세	8	9	9	31	22	6	30	35	64	35	37
60세 이상	2	3	3	15	13	3	22	28	64	27	29

3) 종사상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 상용근로자가 기술 도입과 변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가장 많음
- ◆ 자영업자가 기술 진보에 따른 수입 감소를 가장 크게 우려

구 분	기술 도입/변화			ICT 기기 사용			기술 진보의 영향과 걱정				
	정보통신기기	작업방식	제품/서비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기기 사용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 할당	발언권 감소	기술, 업무능력 활용 어려움	수입 감소	흥미 없는 업무 수행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
자영업자	4	5	6	26	19	3	29	36	72	34	3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4	5	27	19	3	28	36	72	33	3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8	9	23	21	4	29	37	72	37	36
임금근로자	11	12	12	42	27	7	29	34	57	35	35
상용근로자	13	15	15	45	29	7	31	36	56	36	36
임시근로자	2	3	3	26	20	4	22	26	59	30	31
일용근로자	1	2	2	14	19	8	19	27	64	26	32
무급가족종사자	2	3	4	12	11	4	23	29	68	28	31

4) 직종별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 상용근로자가 기술 도입과 변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가장 많음
- ◆ 자영업자가 기술 진보에 따른 수입 감소를 가장 크게 우려

구 분	기술 도입/변화			ICT 기기 사용			기술 진보의 영향과 걱정				
	정보통신기기	작업방식	제품/서비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기기 사용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 할당	발언권 감소	기술, 업무능력 활용 어려움	수입 감소	흥미 없는 업무 수행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
관리자	19	20	19	46	24	3	32	37	62	38	3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	18	17	47	27	5	31	36	52	36	34
사무 종사자	14	16	16	66	37	8	32	36	55	38	36
서비스 종사자	4	4	6	13	12	3	28	33	62	33	35
판매 종사자	5	5	9	33	26	3	34	37	69	39	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4	3	1	6	2	16	23	66	21	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10	10	11	20	6	28	38	65	36	37
장비/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0	10	13	32	12	29	36	65	35	38
단순노무 종사자	3	3	3	18	13	5	23	27	62	29	32

5) 업종별 기술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 기술 도입과 변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경험이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광업 순으로 나타남
- ◆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할당받는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로 응답
- ◆ 기술 진보에 따른 수입 감소에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71% 응답

구 분	기술 도입/변화			ICT 기기 사용			기술 진보의 영향과 걱정				
	정보통신기기	작업방식	제품/서비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기기 사용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 할당	발언권 감소	기술, 업무능력 활용 어려움	수입 감소	흥미 없는 업무 수행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
농업, 임업 및 어업	2	4	3	2	6	2	16	23	65	21	22
광업	0	19	19	67	52	0	0	0	63	14	25
제조업	14	18	18	40	31	11	30	36	59	37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31	31	30	50	28	5	25	31	46	30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3	6	5	31	21	0	30	38	64	35	43
건설업	7	9	8	30	21	4	30	37	64	34	37
도매 및 소매업	5	6	9	35	24	3	33	37	68	39	39
운수 및 창고업	9	8	6	38	32	9	28	32	63	32	35
숙박 및 음식점업	3	3	6	15	15	3	28	33	64	33	35
정보통신업	33	32	33	80	49	8	31	37	53	38	36
금융 및 보험업	19	16	18	73	48	9	37	41	61	39	38
부동산업	3	3	3	40	24	2	35	39	66	38	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17	13	69	39	9	33	37	55	39	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5	6	6	33	19	6	26	30	62	31	3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10	9	56	26	4	22	28	50	28	29
교육 서비스업	14	11	9	29	17	3	29	33	50	33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7	8	27	17	5	24	30	53	31	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7	7	8	32	24	8	28	29	58	35	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4	8	7	17	17	2	32	43	71	38	3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0	0	0	0	0	0	13	14	46	16	23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45	12	0	35	35	24	7	30

〈표 8-2〉 기술진보, ICT에 대한 경험(%) [요약]

구 분	기술 도입/변화			ICT 기기 사용			기술 진보가 미래 업무 영향				
	정보통신기기	작업방식	제품/서비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인터넷 접속 기기	자동화된 업무	발언권 감소	기술, 활용 어려움	수입 감소	흥미 없는 업무 수행	원하는 근로시간 변경
남성	11	13	13	39	27	7	30	35	61	35	35
여성	7	7	8	39	23	5	27	33	60	34	35
15-19세	5	5	6	19	25	1	15	19	35	27	26
20-29세	7	8	9	43	29	7	30	34	54	36	35
30-39세	14	15	17	50	31	7	30	36	57	37	37
40-49세	13	15	14	43	28	7	32	37	60	37	37
50-59세	8	9	9	31	22	6	30	35	64	35	37
60세 이상	2	3	3	15	13	3	22	28	64	27	29
자영업자	4	5	6	26	19	3	29	36	72	34	3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4	5	27	19	3	28	36	72	33	3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8	9	23	21	4	29	37	72	37	36
임금근로자	11	12	12	42	27	7	29	34	57	35	35
상용근로자	13	15	15	45	29	7	31	36	56	36	36
임시근로자	2	3	3	26	20	4	22	26	59	30	31
일용근로자	1	2	2	14	19	8	19	27	64	26	32
무급가족종사자	2	3	4	12	11	4	23	29	68	28	31
관리자	19	20	19	46	24	3	32	37	62	38	3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	18	17	47	27	5	31	36	52	36	34
사무 종사자	14	16	16	66	37	8	32	36	55	38	36
서비스 종사자	4	4	6	11	12	3	28	33	62	33	35
판매 종사자	5	5	9	33	26	3	34	37	69	39	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	4	3	1	6	2	16	23	66	21	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10	10	1	20	6	28	38	65	36	37
장비/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0	10	13	32	12	29	36	65	35	38
단순노무 종사자	3	3	3	18	13	5	23	27	62	29	32
농업, 임업 및 어업	2	4	3	2	6	2	16	23	65	21	22
광업	0	19	19	67	52	0	0	0	63	14	25
제조업	14	18	18	40	31	11	30	36	59	37	3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하수	31	31	30	50	28	5	25	31	46	30	34
기계, 장비 및 폐기물	8	6	5	31	21	0	30	38	64	35	43
건설업	7	9	8	30	21	4	30	37	64	34	37
도매 및 소매업	5	6	9	35	24	3	33	37	68	39	39
운수 및 창고업	9	8	6	38	32	9	28	32	63	32	35
숙박 및 음식점업	3	3	6	15	15	3	28	33	64	33	35
정보통신업	33	32	33	80	49	8	31	37	63	38	36
금융 및 보험업	19	16	18	73	48	9	37	41	61	39	38
부동산업	3	3	3	40	24	2	35	39	66	38	38
전문, 과학 및 기술	13	17	13	69	39	9	33	37	65	39	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업	5	6	6	33	19	6	26	30	62	31	34
공공행정, 국방 및 교육서비스업	11	10	9	56	26	4	22	28	60	28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7	8	27	17	3	29	33	60	33	33
예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7	7	8	32	24	8	28	29	68	35	33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4	8	7	17	17	2	32	43	71	38	39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0	0	0	0	0	0	13	14	46	16	23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45	12	0	35	35	74	7	30

[부 록] 근로환경조사 질문 문항 및 자료 산출 방법

(1) 노동환경의 유해·위험 요인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

- 문 28번, 문 29번(제6차 조사 문항 번호 기준)에서 전체 응답자 중 ①번부터 ⑤번* 까지 응답한 사람(즉, 근무시간의 1/4 이상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28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 내									
□ 응답자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가 일하는 작업장 전체에 대한 질문이 아님									
문 항	근무 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3/4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1/4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모름/ 무응 답	거절
A)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1	2	3	4	5	6	7	8	9
B)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1	2	3	4	5	6	7	8	9
C)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1	2	3	4	5	6	7	8	9
D)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1	2	3	4	5	6	7	8	9
E) 연기, 흙(용접 흙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 (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1	2	3	4	5	6	7	8	9
F)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1	2	3	4	5	6	7	8	9
G)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1	2	3	4	5	6	7	8	9
H)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1	2	3	4	5	6	7	8	9
I)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함	1	2	3	4	5	6	7	8	9

29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 항	근무 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3/4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1/4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모름/ 무응 답	거절
A)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제외)	1	2	3	4	5	6	7	8	9
B)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김	1	2	3	4	5	6	7	8	9
C)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	1	2	3	4	5	6	7	8	9
F)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1	2	3	4	5	6	7	8	9

○ 위험요인 종합점수(0~100)

- 위의 질문에서 ①번부터 ⑦번까지 응답한 것을 노출 수준이 가장 많은 '① 근무시간 내내'를 0으로 노출 수준이 가장 적은 '⑦ 전혀 없음'을 100으로 환산
- 따라서, 위험요인 종합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임

1) ① 근무시간 내내 = 0, ② 거의 모든 근무시간 = 1, ③ 근무시간의 3/4 = 2, ④ 근무시간의 1/2 = 3, ⑤ 근무시간의 1/4 = 4, ⑥ 거의 없음 = 5, ⑦ 전혀 없음 = 6 으로 변환

2) 환산 후 각 13개 문항의 응답 값을 6으로 나눈 후 1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산출
예) 13개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① 근무시간 내내 = 0'이라 응답한 경우 :

$$(0/6 + 0/6 + \dots + 0/6) / 13 = 0$$

13개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④ 근무시간의 1/2 = 3'이라 응답한 경우 :

$$(3/6 + 3/6 + \dots + 3/6) / 13 = 0.5$$

13개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⑦ 전혀 없음 = 6'이라 응답한 경우 :

$$(6/6 + 6/6 + \dots + 6/6) / 13 = 1$$

3) 평균값에 100을 곱하여 0~100으로 환산

예) 13개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① 근무시간 내내 = 0'이라 응답한 경우 :

$$0.0 \times 100 = 0$$

13개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④ 근무시간의 1/2 = 3'이라 응답한 경우 :

$$0.5 \times 100 = 50$$

13개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⑦ 전혀 없음 = 6'이라 응답한 경우 :

$$1.0 \times 100 = 100$$

(2) 노동 강도

- 양적 요구 -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함(%) ; 근무시간의 3/4 이상
 - [문 45번] 응답자 중 ①번부터 ③번까지 응답한 사람(즉, 근무시간의 3/4 이상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는 사람,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하는 사람)의 비율

45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의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문항	근무시간 내내	근무시간 대부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A)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1	2	3	4	5	6	7	8	9	
B)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함	1	2	3	4	5	6	7	8	9	

- 양적 요구 -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 [문 54번 G] 응답자 중 ④번, ⑤번을 응답한 사람의 비율

5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G)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2	3	4	5		8	9		

- 양적 요구 - 잦은 작업 중단으로 업무 방해 여부(%)
 - [문 47번] 응답자 중 ‘① 매우 자주 있다’를 응답하고, [문 47-1]에서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47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예상치 않게 발생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매우 자주 있다										
2. 비교적 자주 있는 편이다										
3. 가끔 있는 편이다										
4. 전혀 없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47-1		문47=①~③ 응답자,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면 귀하의 일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1. 방해가 됨										
2. 아무 영향이 없음										
3. 도움이 됨										
8. 모름/무응답										
9. 거절										

○ 작업 속도의 결정 요인 - 작업 속도의 결정 요인이 3개 이상 해당(%)

- [문 46번]의 각 문항의 응답자 중 '① 그렇다'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각각 구한 후 아래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① 그렇다'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

46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대체로 귀하의 업무속도는 아래의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니까?						
문 항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A) 동료가 수행한 업무	1	2	7	8	9	
B) 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의 직접적 요구	1	2	7	8	9	
C) 수치화된 생산 목표나 성과 목표	1	2	7	8	9	
D) 자동화 라인 속도 또는 제품의 이동 속도	1	2	7	8	9	
E) 상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1	2	7	8	9	

○ 감정 노동 -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항상/대부분 그렇다)(%)

- [문 54번 N] 응답자 중 '① 항상 그렇다' 또는 '② 대부분 그렇다'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

5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N)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1	2	3	4	5		8	9

○ 감정 노동 -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업무시간의 3/4 이상)(%)

-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업무시간의 1/4 이상)(%)

- [문 29번 H] 응답자 중 '①~③'을 응답한 사람(즉, 근무시간의 3/4 이상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루는 사람)의 비율
- [문 29번 I] 응답자 중 '①~⑤'를 응답한 사람(즉, 근무시간의 1/4 이상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의 비율

29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 항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H)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	1	2	3	4	5	6	7	8	9
I)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	1	2	3	4	5	6	7	8	9

(3) 노동 시간

○ 장시간 노동 - 주당 노동시간 ; 48시간 이상, 52시간 이상

- [문 16번] 응답자 중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 또는 52시간 이상인 사람의 비율

* 한 달 기준으로 응답한 경우는 응답 시간을 4주로 나누어 주당 노동 시간을 산출

16 **모두 응답, 「일자리 전체」 기준**

귀하가 직장에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실제** 몇 시간 일하십니까? 계약상의 노동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점심시간 및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안내

□ 30분이 넘는 경우 1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적을 것

문항	일주일 기준	또는	한 달 기준
1) 주된 일자리(주업)	주 <input type="text"/> 시간		월 <input type="text"/> 시간

○ 장시간 노동 - 휴식 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의 유무

- [문 35번] 응답자 중 '㉠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35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퇴근 시간부터 다음 날 출근 시간까지의 간격이 11시간 미만인 경우가 **지난달에 최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밤 10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8시에 출근하는 경우, 퇴근 후 출근까지의 간격은 10시간 밖에 되지 않음)

1. 예 2. 아니오 8. 모름/무응답 9. 거절

○ 장시간 노동 -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

비정형 노동 -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 [문 34번]의 각 문항에서 '1일' 이상 응답한 사람의 비율

3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보통** 한 달에 며칠정도 아래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십니까?

문항	일	하지 않음	모름	거절
A) 밤 근무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	한 달에 <input type="text"/> 일	0	88	99
B) 일요일 근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한 달에 <input type="text"/> 일	0	88	99
C) 토요일 근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한 달에 <input type="text"/> 일	0	88	99
D)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점심시간은 제외하되, 출근시간 전 업무준비시간과 퇴근 전 업무정리 시간을 모두 포함함)	한 달에 <input type="text"/> 일	0	88	99

○ 비정형 노동 - 교대 근무

- [문 36번] 응답자 중 '① 그렇다'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구한 후, [문 36-1]에서 교대 근무 형태에 따라 비율 산출

36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의 근무 형태에 대해 아래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모름/무응답	거절
E) 교대 근무를 한다	1	2	8	9

36-1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문36E=① 응답자),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의 교대 근무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하루 단위 분할 교대(1일 단위로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간격을 두고 교대하며 근무)
예: 경비, 청소업무를 4시간 간격으로 다른 직원과 교대하며 일할 경우
2. 고정 교대(오전, 오후, 야간 등 시간대의 변경이 없는 경우)
예: 3교대 근무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 근무조의 변경이 없는 경우
3. 순환교대(오전, 오후, 야간 등 시간대가 변경 가능한 경우)
예: 교대 근무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 근무조를 주(월)단위로 변경하며 근무
4. 기타(_____)
8. 모름/무응답
9. 거절

○ 유연성 - 지난 1년간 정규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 업무를 얼마나 자주 해야 했는지 (한달에 여러 번 이상)

- [문 41번] 응답자 중 '①~③'를 응답한 사람(즉,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정규 근무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 업무를 한 경우)의 비율

41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정규 근무 시간 이외의 자유시간에 업무를 위해 얼마나 자주 일하였습니까?

안 내

- 자유시간은 휴식과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활동 이외의 시간을 의미함
- 자영업자의 경우 업무 계획이 없었거나 일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대에 업무한 경우가 해당됨

1. 매일	2. 한 주에 여러 번	3. 한 달에 여러 번
4. 드물게	5. 전혀 없었음	7. 해당 없음
8. 모름/무응답	9. 거절	

○ 유연성 -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의 처리 가능 여부(매우 쉬움/비교적 쉬움)

- [문 43번] 응답자 중 '① 매우 쉬다', '② 비교적 쉽다'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

43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 중에 한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 매우 쉽다

2. 비교적 쉽다

3. 비교적 어렵다

4. 매우 어렵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4) 사회적 환경

○ 반사회적 환경 - 폭력, 차별 경험(%)

- [문 72번], [문 73번], [문64번의 A, E, I, J, K] 응답자 중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72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지난 한달 동안 귀하는 업무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 항	72 업무 수행 중 당한 일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거절
A) 언어 폭력	1	2	8	9
B)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1	2	8	9
C) 위협	1	2	8	9
D) 모욕적 행위	1	2	8	9

73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귀하는 업무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73-1 (문73=① 응답자)

있었다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당했습니까?

문 항	73 업무 수행 중 당한 일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거절
A) 신체적 폭력	1	2	8	9
B) 성희롱	1	2	8	9
C) 왕따/괴롭힘	1	2	8	9

6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귀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안 내 □ 문항 B~D는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만 응답하고 그 외의 사람은 '⑦ 해당 없음'에 응답

문 항	있다	없다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A) 연령 차별	1	2	 	8	9
E) 성차별	1	2	 	8	9
I) 학벌에 따른 차별	1	2	 	8	9
J)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1	2	 	8	9
K) 고용 형태(비정규직 등)에 따른 차별	1	2	 	8	9

○ 사회적 지지 - 관리자(직속 상사)의 질(%)

- [문 58번] 응답자 중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58		직속상관이 있는 피고용자의 경우[임금근로자(문5=③), 무급가족종사자(문5=④)],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의 직속 상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어떻습니까? 항목별로 적합한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A)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1	2	3	4	5	7	8	9	
B) 직원들이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2	3	4	5	7	8	9	
C)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7	8	9	
D) 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피드백)을 해 준다	1	2	3	4	5	7	8	9	
E) 내가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1	2	3	4	5	7	8	9	

○ 사회적 지지 - 동료와 상사의 지지(%)

- [문 54번] 응답자 중 '① 항상 그렇다', '② 대부분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5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A)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1	2	3	4	5	7	8	9	
B)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1	2	3	4	5	7	8	9	

(5) 기술과 재량권

○ 지적 활동(%)

- [문 48번] 응답자 중 '①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 [문 54번 I] 응답자 중 '① 항상 그렇다 ~ ③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48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까?				
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름/무응답	거절
C)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	2	8	9
E) 복잡하다	1	2	8	9
F) 새로운 것을 배운다	1	2	8	9

5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I)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1	2	3	4	5		8	9	

○ 결정 권한(%)

- [문 49번] 응답자 중 '①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 [문 54번 E] 응답자 중 '① 항상 그렇다 ~ ② 대부분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49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직장에서 일하실 때 다음 사항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까?				
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름/무응답	거절
A) 일의 순서	1	2	8	9
B) 작업 방법	1	2	8	9
C) 작업 속도 또는 작업률	1	2	8	9

5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E) 같이 일할 사람(동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	1	2	3	4	5	7	8	9	

○ 조직 참여(%)

- [문 54번 C, D, M] 응답자 중 '① 항상 그렇다 ~ ② 대부분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54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C) 작업 목표가 결정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묻는다	1	2	3	4	5	7	8	9	
D) 부서,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절차 개선에 참여한다	1	2	3	4	5	7	8	9	
M) 내가 하는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2	3	4	5		8	9	

○ 교육/훈련(%)

- [문 60번]에서 A 문항 또는 B 문항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문 60번] C)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60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기술 수준(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 항	60			
	있다	없다	모름	거절
피고용자만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A)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는 교육(훈련)	1	2	8	9
모두 응답 B)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교육(훈련)	1	2	8	9
C) (동료나 작업 관리자의) 현장 훈련/교육(OJT)	1	2	8	9

○ 정보 제공(%)

- [문 30번]에 '① 매우 잘 제공 받는다' 또는 '② 잘 제공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30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		
안 내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주는 고용부, 공단, 지자체, 원청, 상인회 등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잘 제공받는다 2. 잘 제공받는 편이다 3.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이다 4.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6) 직업 전망

○ 종사상 지위(%)

- [문 5번], [문 6번]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 분류

5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의 종사상 지위(일하고 계신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명 이상 동료(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 1주일 중 하루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예: 일요일만 고용)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봄**

-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간주

플랫폼 노동자: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형태(예: 배달대행업, 대리운전업 등)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연속적으로 일하는 유급 고용원을 1명 이상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3. 임금근로자 ⇒ 6 번으로

지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급여, 일당, 현물, 숙식 등)'를 지급받은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임금근로자'로 간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자

4. 무급가족종사자 ⇒ 14 번으로

동일가구 내 거주하는 가족(또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주 18시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보수를 받는 경우는 '3. 임금근로자'로 간주

6

임금근로자만(문5=③ 응답자),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의 계약에 따른 고용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상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에 **제약이 없거나**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 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2. 임시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고용 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따라 고용된 경우**

3. 일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직업 전망 및 직업 안전성(%)

- [문 78 B] 응답자 중 '① 매우 동의한다' 또는 '② 대체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 [문 78 F] 응답자 중 '① 매우 동의한다' 또는 '② 대체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78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는 현재 다음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 항	매우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모름/ 무응 답	거절	
B) 내 일자리는 전망이 좋다	1	2	3	4	5	7	8	9	
F)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 지도 모른다	1	2	3	4	5	7	8	9	

○ 사업장 규모 감소(%)

- [문 25] 응답자 중 '④ 조금 감소' 또는 '⑤ 크게 감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25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에서 지난 3년 동안 (일한지 3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직원 수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 크게 증가	2. 조금 증가	3. 변화 없음	4. 조금 감소	5. 크게 감소	8. 모름/무응답	9. 거절			

(7)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 [문 67번] 응답자 중 '① 매우 좋다' 또는 '② 좋은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67 **모두 응답**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나쁜 편이다 5. 매우 나쁘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문제) 있음

- [문 68번] 응답자 중 '①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68 **모두 응답**
귀하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는 경우

- [문 74번] 응답자 중 '1일' 이상을 응답한 사람의 비율

74 **모두 응답, 「일자리 전체」 기준**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귀하는 건강 관련 문제로 결근한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일 0. 없음 888. 모름/무응답 999. 거절

○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 지난 1년간 몸이 아픈 데도 나와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 [문 75번] 응답자 중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75 **모두 응답, 「일자리 전체」 기준**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귀하는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7. 해당없음(아프지 않았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 근골격계 건강문제, 두통·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

- [문 70번] 응답자 중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70		모두 응답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 항	70 건강상 문제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거절	
A) 요통(허리통증)	1	2	8	9	
B)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상지 근육통	1	2	8	9	
C)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하지 근육통	1	2	8	9	
D) 두통, 눈의 피로	1	2	8	9	
E) 불안감	1	2	8	9	
F) 전신 피로	1	2	8	9	

○ 수면 장애

- [문 71번] 응답자 중 '① 매일', '② 한주에 여러번', '③한 달에 여러 번'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71		모두 응답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수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문 항	매일	한 주에 여러 번	한 달에 여러 번	드물게	전혀 없음	모름	거절	
								A) 잠들기가 어렵다
B) 자는 동안 자주 깬다	1	2	3	4	5	8	9	
C)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하다	1	2	3	4	5	8	9	

○ WHO-5 웰빙 지수

- 웰빙 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항목의 수치는 [문 76번] 응답자 중 '① 항상 그랬다' 또는 '② 대부분 그랬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 5개 항목을 종합한 'WHO-5 웰빙지수'는 '항상 그랬다 = 5, 대부분 그랬다 = 4, 2주의 절반 이상 그랬다 = 3, 2주의 절반 미만 그랬다 = 2, 가끔 그랬다 = 1, 그런 적 없다 = 0'으로 변환 후 합산한 값(5문항 총점 25)에 4를 곱하여 0~100으로 환산한 점수

76		모두 응답		다음 문항에서 지난 2주 동안 아래와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골라 주십시오.					
문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2주의 절반 이상 그랬다	2주의 절반 미만 그랬다	가끔 그랬다	그런 적 없다	모름/ 무응답	거절	
A)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다	1	2	3	4	5	6	8	9	
B)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다	1	2	3	4	5	6	8	9	
C) 나는 적극적이고 활기차다	1	2	3	4	5	6	8	9	
D)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꼭 쉬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8	9	
E)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5	6	8	9	

○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매우 만족한다/만족 한다)

- [문 77번] 응답자 중 '① 매우 만족한다' 또는 '② 만족한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77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귀하의 근로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모름/무응답	9. 거절		

(8) 기타 : 기술 진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기술 도입 / 변화

- [문 27번] 응답자 중 '① 있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27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문 항		27 도입된 것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A) 새로운 정보 통신 기기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		1	2	8	9
B) 새로운 작업 방식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		1	2	8	9
C)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또는 중대한 변화		1	2	8	9

○ ICT 기기 사용

- [문 31번] 응답자 중 '① 근무 시간 내내' 또는 '②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31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문 항		귀하는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일을 하십니까?								
		근무 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3/4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1/4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모름/ 무응답	거절
A)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함		1	2	3	4	5	6	7	8	9
B) 기타 인터넷 접속 또는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기기(장비, 기계)를 사용하여 일함		1	2	3	4	5	6	7	8	9
C)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당되는 일을 함		1	2	3	4	5	6	7	8	9

○ 기술진보/자동화에 따른 걱정(매우 걱정/걱정됨)

- [문 81번] 응답자 중 '① 매우 걱정된다' 또는 '② 걱정된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81		모두 응답, 「주된 일자리(주업)」 기준				
기술진보 및 자동화 등으로 인해 미래에 귀하의 일에 미칠 수 있는 다음 상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문항	매우 걱정 된다	걱정 된다	걱정 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 되지 않는다	모름/ 무응 답	거절
A) 나의 발언권이 줄어드는 상황	1	2	3	4	8	9
B) 나의 기술과 업무 능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1	2	3	4	8	9
C)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1	2	3	4	8	9
D) 조직에서 나의 뜻과 달리 흥미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	1	2	3	4	8	9
E) 나의 뜻과 달리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상황	1	2	3	4	8	9